편집부 엮음

이슬람을 조금 더 자세히, 친절히 알려주는 안내서

모두를 위한 이슬람

이슬람에서는 그 누구도 믿음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로지 통찰력과 바른 판단으로 이해한 다음, 그 종교가 과연 내 종교로 받아 들일만큼 가치 있을지는 각자 스스로가 판단할 일입니다.

신앙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벗이 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모두가 자신의 몫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이니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개인의 상호관계입니다.

이 책은 선교나 홍보 책자가 아닙니다. 이슬람이 무엇인지 조금 더 설명하는 종합안내서입니다. 이 책은 이슬람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만약 주변에서 이 내용과 다른 것을 마치 이슬람 교리인 듯 주장한다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쌀람누리

모두를 위한 이슬람

모두를 위한 이슬람

편집부 엮음

쌀람누리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 이름으로,
모든 찬미와 찬양은 온 세상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속하나니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에게 평화와 은총이 깃드소서

주님, 저의 지식이 깊어지도록 해 주옵소서

책을 펴내며

이슬람이 어떤 종교인지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는 분을 여럿 만났지만, 이슬람뿐 아니라 어느 종교라도 대화 몇 번이나 책 한 권으로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변을 보면 이슬람에 관해 말하는 사람이 꽤 많지만, 실제로 잘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심지어는 잘못 이해하며 무슬림이 된 교우까지 생기는 웃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는 미신을 믿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슬람에 관련한 바른 안내서가 부족해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라는 영역은 개인마다 종교마다 서로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어느 것은 틀리고 또 다른 것이 맞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철저히 개인 문제인 까닭입니다. 이슬람에서는 그 누구도 믿음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로지 통찰력과 바른 판단으로 이해한 다음, 그 종교가 과연 내 종교로 받아 들일만큼 가치 있을지는 각자 스스로가 판단할 일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슬람은 믿음을 강요하거나 구걸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벗이 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모두가 자신의

몫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이니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개인의 상호관계입니다.

이 책은 선교나 홍보 책자가 아닙니다. 이슬람이 무엇인지 조금 더 설명하는 종합안내서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많은 분이 이슬람이 무엇인지 질문하지만 듣고 싶은 답을 마음속에 미리 정해놓거나, 매스컴에서 전하는 대로 편견과 오해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무슬림의 눈에 비치는 우리 매스컴도 이슬람을 모르는 것은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도 알 수 있을 만한 바른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책은 이슬람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만약 주변에서 이 내용과 다른 것을 마치 이슬람 교리인 듯 주장한다면 맞지 않는 말입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할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 읽는 분들이 다른 종교와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한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그분들의 몫입니다.

책의 특성상 깊이 있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여러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책을 읽은 후 이슬람에 관해 조금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쌀람누리 기획 위원회

차례

1장. 이슬람의 배경 ····· 13

하나님 ····· 13

이슬람의 뜻 ····· 26

이슬람 신앙의 기본 ····· 30

2장. 신앙의 기초 ····· 53

신앙 ····· 53

정의 (正義) ····· 57

경건 (敬虔) ····· 59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 ····· 61

생명 ····· 62

종교 ····· 64

죄 ····· 68

자유 ····· 73

평등 ····· 75

형제애 ····· 77

평화 ····· 79

공동체 ····· 80

윤리 ····· 85

세계 ····· 102

3장. 신앙의 실천 ····· 113

예배 ····· 117

단식 ····· 126

구빈세 (자카, Zakah) ····· 139

순례 (핫즈, Hajj) ····· 145

4장. 신앙과 현실의 조화 ····· 159
내적 본성 ····· 160
외적 본성 ····· 164
가정 생활 ····· 172
사회 생활 ····· 188
경제 생활 ····· 194
정치 생활 ····· 203
국제 관계 ····· 215
5장. 이슬람에 관한 왜곡 ····· 223
성전 (지하드) ····· 223
예수 ····· 244
일부다처제 ····· 263
결혼과 이혼 ····· 290
이슬람에서 여성의 지위 ····· 298
부록. 꾸란의 특성 ····· 317
꾸란의 지혜 ····· 317
역동성 ····· 322
실천성 ····· 323
중용 ····· 324
부록.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 ····· 327
부록. 이슬람력 ····· 334

모두를 위한 이슬람

1장 이슬람의 배경

1장. 이슬람의 배경

하나님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믿는 것, 이것이 이슬람의 기초입니다. 주제가 매우 중요하기에 명료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간단한 논증을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논증을 이미 접했거나 알고 있다면, 지루하거나 단순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읽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과학적 논리를 따른다는 명분으로, 혹은 경험과 이해가 부족한 탓에, 하나님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박학한 지식인을 자처할지라도 실은 불안한 내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구체적 이론보다 이들이 취하는 내면의 상태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이 책의 대부분은 쉽고 단순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의 주요 목적은 청년들에게 이슬람의 하나님 개념을 올바로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 중에도 이슬람의 하나님 개념을 왜곡해서 말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몇 가지 간단하면서도 기초적인 논증을 하겠습니다.

논증의 단순함 때문에 오히려 심오한 사색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하고 발전적 단순성이 되겠지요. 이러한 단순성 자체가 이슬람의 뚜렷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가정마다 가장이 있고, 학교마다 교장이 있으며, 도시마다 시장이 있고, 도마다 도지사가 있으며, 국가마다 국가 원수가 있습니다. 모든 생산물은 생산자의 작품이며, 모든 아름다운 예술품은 예술가의 창작품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지만, 인간의 지식이 세상의 경이로운 모습에 대한 호기심 모두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수려하고 절묘한 경치를 보여주는 자연, 무한히 펼쳐진 하늘, 지평선 너머 아스라함, 쉼 없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는 낮과 밤의 교차, 태양과 달, 행성의 궤도, 생물계와 무생물계, 대대로 이어지는 인간의 부단한 세대교체와 발전, 이 모든 것을 보고 사람들은 감탄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지 의문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광활한 우주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존재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게 정확히 설명한 이론이 있습니까? 책임을 진 가장이 없이는 가정이 제구실할 수 없고, 행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도시가 번창해 나갈 수 없으며, 어떤 식으로든 수반이 있지 않고는 국가가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

다. 어떤 것도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주는 질서 정연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길고 긴 세월을 넘어 존속하고 있음을 관찰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과 인간의 존재를 단순한 우연에 맡겨 버릴 수 있습니까?

단순한 우연으로 인간이 생겼다면, 인간의 전 생애도 우연의 지배를 받을 것이고 인간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성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알 수 없는 우연에 맡기거나, 잘 모른다고 우연의 영역으로 넘기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가능한 한 의미 있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계획에 따라 행동방침을 설정합니다. 개인·단체·국가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로 가는 단계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꼼꼼히 계획을 세웁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위해 어떤 식으로든 계획을 세우고 어떤 계획이 좋은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광대한 우주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세운 계획의 가치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다면, 인간의 존재와 우주의 존립 역시 어떤 계획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질적 존재 배후에 계획하는 법칙이 있으며, 사물을 존재하게 하고 질서 있게 운용하는 의지 혹은 존재가 있음을 뜻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이로움과 생명의 신비는 단지 우연의 산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세계에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대한 힘이 작용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에는 매력적인 예술 작품을 창조하고 생명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생산하는 위대한 예술가가 있습니다. 이 힘은 모든 힘 중에 가장 강한 힘이며, 이 예술가는 모든 예술가 중에 가장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진실한 신앙인과 진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 존재를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 존재가 창조주이며, 만유의 설계자이자, 생명을 창시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유지시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세상을 창조하거나 만들 수 없으므로 그 존재는 인간이 아닙니다. 동물이나 식물도 아니며 우상이나 상징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모두 스스로 생겨날 수도 다른 무엇을 창조할 수도 없습니다. 기계도 아닙니다. 태양도 달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른 거대한 체계가 통제하며 그 어떤 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 존재는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유지시키기에 피조물과 구별됩니다. 만든 존재는 만들어진 존재와 다릅니다. 만든 존재는 만들어진 존재보다 더 위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저절로 생겨나지 않으며, 경이로 가득한 이 세상이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

다. 세상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운동과 변화 자체가 세상이 만들어진 것임을 증명하고 있으며 만들어진 것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만든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존재, 인간을 만들고 돌보는 존재, 자연의 모든 것에 작용하는 실질적인 원리, 자연의 섭리, 이 모두가 하나로 같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신비 중의 신비이며, 만유 중에 가장 지고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의 책, 꾸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 **일러두기** / 훌륭한 문학 작품을 다른 언어로 온전하게 번역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꾸란의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각국의 아랍어 전문가와 문장의 대가들이 꾸란을 제대로 번역하기 위해 도전해왔고 지금도 도전하고 있지만 그중 가장 짧은 장(章) 하나도 원문의 아름다움과 뜻을 제대로 살리는 번역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꾸란의 의미와 아름다움과 매력을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책에서 인용한 꾸란은 온전한 번역이 아니며,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본래의 꾸란은 아닙니다. 이는 다른 언어를 사용한 사람의 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번역을 통한 해석은 원전의 힘찬 문체에 미치지 못합니다.

"밤을 만들어 그대들을 쉬게 하시고 낮을 만들어 보게 하신 하나님이시니, 은혜와 자비가 충만함에도 사람들 대부분은 감사할 줄 모르도다.
그대의 주님,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는데 어찌하여 그대는 진실을 외면하는가.
하나님의 징표를 거부하는 자들이 오히려 외면당하리라.
하나님은 땅을 만드시어 그대 안식처로 하시고, 하늘을 지붕으로 하시어 그대 휴식처로 삼으셨고, 그대 모습을 만드시어 가장 아름답게 하시고 정결하고 좋은 음식을 베푸시노라.
그대의 주님은 이런 하나님이니 온 세상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바칠 것이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나니, 진실하고 참된 헌신을 바쳐 온 세상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꾸란 40장 61 - 65절)

"하나님은 그대를 위해 바다에 배가 다니도록 명령받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선물을 구함이오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며,
하늘과 땅 천지만물이 그대를 받게 하시어 정녕 이 가운데 생각 있는 이들을 위한 징표가 있으리라."
(꾸란 45장 12 - 13절)

온 세상의 주인이자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입니다. 그토록 위대하고 다른 존재와 구별되기에, 사람은 성찰과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無所不在)하시고, 그 큰 힘은 우주 어디에나 작용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인류는 생명의 큰 신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깨달음과 종교적 통찰력을 얻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건전한 행위와 윤리에 이르는 바른길이고, 행복과 번영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지침입니다.

하나님이 존재를 인정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덕성과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완전한 모든 것과 절대적 선은 하나님께 속하지만, 결점이나 악은 그 어느 것도 하나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1. 하나님은 유일하므로 동반자나 자식이 없으며, 누구를 낳지도 누구에게서 태어나지도 않았다. 하나님은 영원히 만인의 간구를 받으며, 시작도 끝도 없으니, 그 무엇과도 동등하지 않다. (꾸란 112:1 - 5)

2.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시며, 보호하시고 진실로

안내하시며, 공명정대한 최고의 주님이시고 창조주요, 지켜보시며,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시며, 들으시고 아시며, 증언하시고 영예로우며, 능력과 힘을 갖고 계시다. (꾸란 57:1 – 6, 59:22 – 24)

3.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관대하고 자비로우시니, 풍요롭고 독립 자존하시며, 용서하시고 온화하시며, 인내하시고 식별하시며, 유일무이하시며, 보호하시고 재판관이며, 평화로우시다. (꾸란 3:31, 11:6, 35:15, 65:2 – 3)

이러한 하나님의 특성과 덕성이 꾸란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 모두에게 지극한 사랑과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자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류에 대한 사랑은 헤아릴 길이 없으니,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꾸란 14:32 – 34, 16:10 – 18)

더할 수 없이 높은 하나님이지만 신앙심 깊고 경건한 사람에게는 가까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사랑하고,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을 환영하며, 누구도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고 옳은 일을 하라 하시며, 악을 멀리하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선과 사랑은 지극하시기에 선하고 옳은 일만을 권하고 허

락하십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자비의 문은 하나님의 후원과 보호를 진지하게 구하는 사람 모두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꾸란 2:186, 50:16)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태어난 후에는 물론이고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조물 중 가장 좋은 형체를 주셨고,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감각과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가족을 부양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성을 얻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영혼과 양심을 얻어 선하고 정의롭게 되었으며, 느낌과 감정을 얻어 친절과 인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얻고 밝은 빛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기에 우리를 창조할 때 가장 아름다운 형체로 만드셨고 태양과 달, 육지와 바다, 땅과 하늘, 식물과 동물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되는 것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존엄과 지성, 명예와 존경을 부여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희망과 평온을, 용기와 자신감

을 심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비탄과 슬픔을 치유하며, 고난을 딛고 일어서 성취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고난에 빠진 자를 구하며, 고통당하는 자의 기운을 북돋우고, 병든 자를 위로하며, 절망에 빠진 자를 일으키고, 궁핍한 자를 위안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 삶 곳곳에 항상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당연시한 나머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실재하며 우리는 마음으로 느낄 수 있고 정신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잊거나 저버리지 않으시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지한 요청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서로 보내셨습니다. 이 모두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마지막 선지자는 무함마드이며, 현재 남아있는 성서 중 가장 믿을 만한 성서는 꾸란입니다.

우리는 꾸란의 가르침과 무함마드의 언행록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배웁니다. 죄를 짓거나 악행을 저지르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자, 자신의 존엄과 존재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지은 죄를 뉘우치며 성실히 용서를 구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하나님은 죄지은 자를 받아들여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사람조차 자신의 잘못된 태도를 진정으로 깨닫고 하

나님께 되돌아온다면 틀림없이 용서받습니다. 이에 관한 꾸란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동료를 대신 세운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나 그 밖에 원하는 이를 용서하시노라.
하나님께 동료를 대신 세운다면 결코 씻을 수 없는 가증한 죄이노라."
(꾸란 4장 48절, 116절)

"말하라, '오 그대, 스스로 영혼을 욕되게 하는 종복이여! 하나님의 자비를 단념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지극히 관대하고 자비로우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라.'
'형벌이 그대에게 내리기 전에 뉘우침으로 주님께로 돌아와 복종하리니 늦는다면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노라.'
'그런 즉 주님께서 내린 최선의 길을 따를지어다.
그대가 알지 못하는 순간, 갑작스런 형벌이 내리기 전에.'"
(꾸란 39장 53 - 55절)

이렇게 커다란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보답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며 독립 자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답할 수 없거니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총과 자비의 가치를 가늠할 수

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요구는, 선량하며,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할 줄 알며, 하나님의 권고를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며, 하나님의 미덕과 덕성을 올바로 나타내고, 지상에서 하나님을 정직하게 대리하여 진실하게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엄과 명예를 주실 뿐 우리를 노예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두려움과 미신에서 해방시킬 뿐 우리에게 복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물 위에 놓으시며, 우리가 모욕을 겪지 않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규칙이나 규정을 보내심은 결국 우리를 위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규칙이나 규정은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친절하게 형제애를 나누고 서로 협력하는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큰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확실한 길을 찾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가사의와 감동적 경이로 가득 찬 세상은 마치 펼쳐놓은 책과 같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낸 여러 선지자와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알게 해주십니다.

자연을 깊이 관찰하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귀담아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읽음으로써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 향하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 꾸란 구절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신이 없음을 스스로 증언하시니,
천사와 현자들도 정의에 확고하도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나니 현명함과 강함의 극치로다."
(꾸란 3장 19절)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어 만사를 관장하시니,
하늘과 땅의 열쇠가 하나님께 속하노라.
하나님의 징표를 거부하는 자 마침내 잃는 자가 되리라."
(꾸란 39장 63 - 64절)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하셨고 또 이를 거듭하시니,
그대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꾸란 30장 12절)

"하늘과 땅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니 모두가 따르도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시작하시어 또 이를 거듭하시니,
지극히 쉬운 일이라, 하늘과 땅 가장 높은 지위가 하나님의 것

으로 현명하시며 강함의 극치로다."
(꾸란 30장 26 - 27절)

이슬람의 뜻

이슬람의 어원은 아랍어 어근 '싸리마SLM'인데, 이는 특히 평화, 순수, 순종, 복종, 따름을 뜻합니다. 종교적 의미에서 이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이 용어의 문자적 의미와 종교적 의미는 강하고 명백합니다. 오직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법, 섭리를 따를 때 진정한 평화와 순수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종교를 마호멧주의, 그리고 신자들을 마호멧주의자, 마호멧교도로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슬림은 이런 용어의 사용을 거부할 뿐 아니라 사용 자체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마호멧주의로 분류하거나, 우리를 마호멧주의자로 부르면 매우 잘못된 의미를 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명칭은 이슬람을 일개 인간에 불과한 무함마드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고 이슬람 역시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채식주의 등과 다를 바 없는 또 하나의 '주의ism'에 불과하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잘못된 명칭이 내포하는 또 다른 오류는, 기독교인에게 예수처럼, 무슬림이 무함마드를 숭배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용어인 마호멧주

의자는 무함마드가 종교를 창시했고, 그 때문에 창시자의 이름을 따서 종교의 이름으로 정했다고 오도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용어에 내포된 의미는 모두 크게 잘못된 것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이슬람은 또 하나의 '주의 ism'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무슬림은 무함마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무슬림은, 기독교인이나 마르크스주의자가 그들의 지도자를 신봉하는 것처럼 무함마드를 여기지도 않습니다.

무슬림은 오직 하나님만을 숭배합니다.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삶으로 모범을 보일 임무를 하나님이 부여한 일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함마드는 인간의 경건성과 완전성을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모범 사례입니다. 무함마드는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품위와 인간됨의 최고 경지를 보여준 증인이었습니다.

종교 발전의 마지막 단계에서 무함마드에 의해 이슬람이 회복되었지만, 이슬람을 무함마드가 창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슬람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이슬람의 시작은 아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슬람은 태초부터 어떤 형태로든 존재했으며, 세상 마지막까지 존속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의 올바른 명칭은 이슬람이며, 이를 믿는 사람이 무슬림입니다. 일반적인 오해와 달리 이슬람, 혹은 하나님의 뜻과 법을 따르는 것이 결코 개인의 자유 상실이나 운명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믿는 사

람이 있다면, 이슬람의 올바른 의미와 하나님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슬람에서 하나님의 개념은 가장 자비롭고 자애로우며, 끝없는 사랑으로 인간의 안녕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고, 지혜로 충만하고 피조물을 보살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자비롭고 선한 뜻이며, 하나님이 규정하는 모든 법은 인류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 법을 준수할 때 건전한 시민이자 사회의 정직한 성원으로, 문명인으로 간주합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유를 잃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법을 준수하는 사람을 운명론자나 무력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한 뜻과 최선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건전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한편, 타인의 권리 또한 존중하면서 책임을 다하는 창조적인 고차원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의에 순종한다고 개인의 자유가 사라지거나 줄지 않으며,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자유를 풍요롭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결과로 정신은 미신으로부터 해방되고 진리로 채워집니다. 영혼은 죄와 악에서 해방되고, 선과 순수로 감화됩니다. 자아는 허영과 탐욕에서, 질투와 긴장에서,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되고, 가짜 신들과 저급한 욕망에서 해방돼 선과 미덕의 아름다운 지평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선의를 따르고 유익한 법에 따르는 것은 평화와

조화를 보존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른 한편으로 인간 사회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또한 자연의 구성요소 사이에 조화로울 수 있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세상 만물과 현상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전 물질계는 이슬람의 상태에 있으며, 이는 곧 그것이 무슬림임을 뜻합니다. 물질계는 스스로 선택의 여지가 없고 다만 이슬람, 즉 창조주의 원리에 따를 뿐입니다. 유독 인간에게만 지성과 선택, 자유가 부여되었습니다. 인간은 지능과 선택 능력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선의와 법에 따르라는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길을 택할 때만이, 하나님의 법칙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자연의 모든 구성요소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길을 걷는다면 바른길에서 이탈하여 세상의 일관성을 잃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세상의 운행법칙을 만든 창조주의 노여움과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슬람은 하나님의 선의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유익한 법에 따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선지자가 전한 말씀의 정수이므로 무슬림이라면 무함마드 이전 모든 선지자를 차별 없이 받아들입니다. 무슬림은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와 이들의 교우 모두가 무슬림이었으며, 그들이 믿은 종교는 하

나님의 유일하고 참된 종교인 이슬람이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꾸란 2:128 – 140, 3:78 – 85, 17:42 – 44, 31:22, 42:13)

이슬람 신앙의 기본

진실하고 충실한 무슬림은 다음을 신앙의 기본으로 삼습니다.

1. 오직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할 수 없이 높고 영원하시며, 무한하고 강하시며, 자비롭고 자애로우시며, 창조주이시며, 돌보십니다. 이런 신앙이 힘을 발휘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희망을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도움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공포와 절망, 죄의식과 혼란에서 해방됩니다. 앞서 설명한 이슬람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시길 권합니다.

2.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선지자를 믿으며, 이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민족마다 하나님이 보낸 경고자 혹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선을 가르친 위대한 교사였으며, 정의를 수호한 진정한 투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택해 인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선지자는 각기 다른 시대에 나타났는데, 민족에 따라 선지자가 한 사람 이상이기도 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는 동시에 선지자 두 명 이상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꾸란에는 이들 선지자 중 25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무함마드를 제외한 나머지 선지자는 민족적, 지역적 선지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종교는 근본적으로 같은, 즉 이슬람입니다. 선지자들의 언행과 행적은 하나의 같은 근원, 즉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했으며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인류를 인도하는 같은 목적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예외 없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임명하여 계시를 내리고 과업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선지자 중 무함마드는 마지막 인물로, 선지자 지위의 초석(礎石)이라는 영예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자의적 해석도, 편의상 신앙도 아닙니다. 이슬람의 다른 신앙이 그렇듯, 근거를 가진 논리적 진리입니다.

참고로 위대한 선지자 몇 분, 아브라함, 이스마엘, 모세, 예수—이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 이름이 언급된 꾸란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꾸란은 무슬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와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야곱 그리고 그 12지파에 내려진 계시를 믿습니다. 그리고 모

세와 예수에게 내려진 계시와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선지자에게 내린 계시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 사이에 서로 차별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꾸란 2:136, 참조: 꾸란 3:84, 4:163 - 165, 6:84 - 87)

3. 진실한 무슬림은 위 내용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성서와 계시를 믿습니다.

성서와 계시는 무슬림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선지자들은 이를 통해 각기 자기 민족을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꾸란은 특히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예수의 성서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런 성서와 계시는 소실되거나 왜곡되었으며 일부는 잊히거나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존하는 하나님의 성서로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성서는 꾸란뿐입니다.

무슬림은 꾸란 이전 성서와 계시를 믿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온전한 원본이 어디 있을까요? 사해 밑에 가라앉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어딘가에서 두루마리들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인이나 유대인 고고학자가 성지에서 발굴해 찾아낸 것을 전부 공개하면 성서에 관한 내용을 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슬림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완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꾸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꾸란은 소실된 부분이 없으며 무엇인가를 더 첨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꾸란의 신빙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신중한 학자나 사상가 중 누구도 꾸란이 진본이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꾸란이 이런 특성을 지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꾸란을 계시하면서 첨삭과 왜곡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따라서 무슬림에게 꾸란은 다른 모든 성서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꾸란과 일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인정하지만, 꾸란과 어긋나는 것은 배제하거나 판단을 보류합니다.

"하나님이 꾸란을 보냈으니, 정녕코 이를 보존하리라."
(꾸란 15장 9절, 참고: 꾸란 2:75 - 79, 5:13 - 14, 41, 45, 6:91, 41:43)

4. 진실한 무슬림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믿습니다.

이들은 순수하고 빛나는 영적 존재이며 본질적으로 먹고 마시거나 자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육체적 욕망이나 물질적 욕구가 없습니다. 이들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많은 천사가 있는데, 천사마다 특정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맨눈으로 천사를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실존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는 눈으로 볼 수 없고 감각으로 알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남극에 가보지 못했어도 남극이 그곳에 있음을 압니다. 공기처럼 맨눈으로 보거나, 냄

새를 맡거나, 만지거나, 맛을 보거나, 들을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를 인정합니다. 천사를 믿는 것은 지식이나 진리가 오로지 감각적 인식이나 지식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슬람 원칙에서 비롯합니다. (꾸란 16:49 – 50, 21:19 – 20)

5. 진실한 무슬림은 최후 심판을 믿습니다.

언젠가는 세상의 종말이 오고 죽은 이들이 부활하여 공정한 최후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쌓은 행적, 우리가 가진 의향, 우리가 하는 거동, 우리가 마음에 품는 생각,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 하나하나가 모두 정확히 기록되고 보존됩니다. 심판날에 이 모든 것을 심리(審理)합니다. 기록이 좋은 사람은 보상을 받고 하나님의 천국에서 따뜻한 영접을 받습니다. 기록이 나쁜 사람은 형벌을 받아 지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본질과 정확한 모습은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꾸란과 무함마드의 언행록에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묘사가 있지만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는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마음속에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이 있노라"고 무함마드가 말했습니다. 무슬림은 선행에 보상이, 악행에 벌이 따르리라 믿습니다. 최후 심판은 정의의 실현이자 마지막 총결산입니다.

인간이 만든 법에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처럼, 죄를 짓고

도 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최후 심판에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런 대비 태세도 갖추지 못한 채, 처지를 대변해 줄 변호사도 없이 현장에서 체포되는 신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천사들이 모든 사람의 모든 행위를 일일이 헤아리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선행을 베풀어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나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사례나 찬사를 못 받더라도 심판날에는 결국 응분의 보상과 사례를 받습니다. 절대적 정의가 모두에게 구현됩니다.

심판날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날 세계가 당면한 수많은 복잡한 문제를 풀어주는 종국적인 해답이 됩니다. 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서 겉보기에는 사업에 성공하고 생활에 여유가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덕망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진지한 노력에 응분의 대가가 따르기는커녕 피해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도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죄진 사람이 법망을 피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면, 게다가 더 부유해진다면, 덕망 있는 사람에게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세상 이치가 그러하다면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에는 보상하고 악은 저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 세상에서 악이 처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다들 알다시피 악이 처벌

된다 하더라도 제때에 바로 처벌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처벌됩니다. 그때가 바로 심판날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를 용납하고 해악을 묵인하려고 심판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날은, 착취당하는 자를 회유하거나 착취하는 자를 안심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바른길에서 벗어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구현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6. 진실한 무슬림은,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식과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무관심하지 않고, 보고만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힘은 늘 작용하면서 광대한 영역의 질서를 유지하며 우주를 온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사랑하시며, 하시는 모든 일은 반드시 선한 동기,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생각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록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그것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굳은 신앙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식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은 개인적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반면, 하나님의 인식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보편적 차원에서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운명론자가 되거나 무력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 경계를 그을 뿐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유한하고, 육신의 제약 속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자유 역시 유한하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게도 우리가 하는 일에만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나 하나님께 속한 일은 우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한된 속성과 책임에 맞는 제한된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계획을 수행할 때 시간을 초월하는 지식과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그와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 내에서 우리 스스로 일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라고,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거나 계획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신앙심을 잃거나 정신적 긴장, 건강을 해치는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한번 해서 안 되면 다시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땐, 최선을 다했으니 그 결과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우리 능력과 책임 한계 밖의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관계되는 일입니다.

이런 신조를 가리켜 '까다아Qadaa'와 '까다르Qadar'를 믿는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한 섭리는 세상의 현상을 예견하며, 세상의 현상은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에

따라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꾸란 18:29, 41:26, 53:33 – 62, 54:49, 65:3, 76:30 – 31)

7. 진실한 무슬림은, 하나님이 만물을 무의미하게 창조하지 않았으며, 인생에는 인간의 육체적 필요와 물리적 활동을 초월하는 웅대한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은둔과 명상으로 생애를 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율에 따라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며, 옳은 일을 하고, 악을 피함으로써 하나님의 대의를 세우는 것이며, 자신과 동료, 인류를 공정하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삶에서 도피하지 않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더할 수 없이 높은 하나님의 덕성이 우리 몸에 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포괄적이고 결정적인 말입니다.

삶에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이바지하도록 인간을 창조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무를 부과할 때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움도 함께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지성과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력을 다해 자신의

존재 목적을 추구할 것을 권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인생을 헛되이 보내거나 자신이 맡은 바를 등한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꾸란 21:17 – 18, 51:56 – 58, 75:37)

8. 진실한 무슬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유의 위계 질서에서 인간이 특별히 높은 지위를 누린다고 믿습니다.

인간이 이처럼 뛰어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합리적 사고력에 기반한 행동 능력 그리고 영적 열망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도 무거워지는 법입니다.

인간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지위를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대리자로 임명한 인간은 필연적으로 권력과 권위를 가지기 마련입니다. 적어도 명예롭고 고결한 존재가 될 잠재력을 타고 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슬람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지위입니다.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저주받은 종족이 아니라, 훌륭하고 고귀한 업적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된 존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서 선지자를 택한 사실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신의를 갖고 있고 유능하며 선(善)이라는 보물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꾸란 2:30 – 34,6:165, 7:11, 17:70 – 72, 90 – 95)

9. 진실한 무슬림은, 모든 사람이 무슬림으로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출생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명에 따른 결과로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영적 잠재력과 지적 성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슬람을 접하고 천성을 향상시킨다면, 타고난 잠재력과 성향을 통해 훌륭한 무슬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슬람을 올바로 전하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인간의 자연적 열망과 함께 윤리적·영적 요구를 충족하려는 사람에게, 그리고 개인·사회·국가·세계 어느 차원에서건 건설적이고 건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용하고 올바른 삶의 방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창조했기에 인간의 본성에 맞는 유익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종교가 이슬람이기 때문입니다. (꾸란 3:30, 64:1 – 3, 82:6 – 8)

10. 진실한 무슬림은, 모든 사람이 타고난 죄도, 타고난 덕(德)도 없다고 믿습니다.

사람은 빈 공책 같은 존재입니다.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성인이 되면 자신의 행동와 말에 책임을 집니다. 인간은 죄를 짓지 않는 한 죄에 구속되지 않으며, 자신의 계획에 따라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행동할 자유를 누립니다.

이 두 가지의 자유, 즉 원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와 스스

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 덕분에 무슬림의 양심은 상속 받은 죄라는 무거운 짐에서 해방됩니다. 이슬람에는 원죄라는 것이 없습니다. 원죄 교리가 인간의 영혼과 정신에 불러일으키는 불필요한 긴장이 없습니다.

이슬람에서 자유 개념은, 하나님의 정의라는 원칙과 개인이 하나님께 직접 책임진다는 원칙에 기초합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짐을 스스로 져야 하며,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누구도 타인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다면, 속죄는 바로 그 자신, 아담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용서할 수 없었다거나, 또 다른 누군가가 아담의 죄를 대속해야 했다거나, 아담이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거나, 용서를 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말은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덕성과 용서의 권능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에도 어긋나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원죄론은 하나님의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꾸란 41:46, 45:15, 53:31 – 42, 이 책의 2장 신앙의 기초, '죄' 항목 참조)

이와 같은 논리와 꾸란의 권위를 바탕으로, 여느 지각 있는 죄인이 그러하듯, 아담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다고 믿습니다. 자비롭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용서를 베푸셨다고 믿습니다. (꾸란 2:35 – 37, 20:117 – 122) 그러므로 아담뿐 아니라 전 인류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져 예수

가 그 죄를 대속하러 올 때까지 용서받지 못했다는 교리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전 인류의 죄를 단번에 제거했다는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해를 막기 위해 부언하자면, 예수의 대속 교리를 믿지 않는 이유는 이 교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라는 원칙에 반하고 인간의 창조 논리와 존엄성에도 반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의 예수에 대한 존경심이 약해지거나, 이슬람에서 예수가 차지하는 높은 지위가 내려가거나, 하나님의 뛰어난 선지자로 예수를 받드는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무슬림은 이러한 교리 없이 예수를 받아들이기에, 예수를 더욱 높이 평가하고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슬람의 불가결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슬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모두를 차별 없이 받아들이고 존경해야 합니다. 이슬람에서 예수가 차지하는 지위는 책의 뒷장에서 더 논의할 것입니다.

11. 진실한 무슬림은,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는 구원을 얻으려면 신앙과 실행, 신념과 실천이 겸비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실행을 동반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 없는 실행만큼이나 불충분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

활 속에 살아 움직이고 현실화되어야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앙의 다른 기본 요소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말뿐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진실한 신자는 신앙의 실천적 요건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도 타인을 대신하거나, 누구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할 수 없습니다. (꾸란 10:9 – 10, 18:30, 103:1 – 3)

12. 진실한 무슬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먼저 가르친 다음, 책임을 지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많은 선지자와 계시를 보내셨습니다. 바른길을 미리 알리고 경고하기 전에 벌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를 접하지 못한 사람이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건전한 상식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은 것에만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고의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바른길에서 이탈한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악행으로 처벌받습니다. (꾸란 4:165, 5:16 & 21, 17:15)

모든 무슬림에게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이슬람에 관해 들어보지도, 알 방법도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도 이슬람으로 가는 길을 찾는다면 진실하고 훌륭한 무슬림이 될 수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알 길도 없는 사람이 무슬

림이 되지 않았다고 책임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 대신, 이슬람을 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해 이슬람의 참모습을 보여 주지 못한 무슬림이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무슬림은 말로 이슬람을 전할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슬람을 충실히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꾸란 3:104, 16:125)

13. 진실한 무슬림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 본성에 악함보다 선함이, 절망적 실패보다 성공적 교화 가능성이 더 크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선지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계시를 보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합니다. 만약 인간이 날 때부터 희망도, 인도 가능성도 없는 존재라면, 절대적 지혜를 가진 하나님이 이런 인간에게 책임을 부과해 이런 것은 하고 저런 것은 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허사라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보살피고 관심을 쏟는 사실 자체가 인간이 무력하거나 가망 없는 존재가 아니라, 선을 식별하고 선해지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고 인간을 합당하게 신뢰한다면, 정녕 우리 세대에도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꾸란을 면밀히 연구하고 뜻을 되새겨야 합니다.

14. 진실한 무슬림이라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한 합리적 신앙이 아닌 맹목적 추종, 의문 없는 수용은 완전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따라 행동하고 믿음과 실행으로 구원에 이른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기만이나 강요 없는 튼튼한 확신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집안 전통 때문에 무슬림으로 자처하는 사람, 강요를 받거나 맹목적으로 모방해 이슬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무슬림이 아닙니다. 풀리지 않는 의심이 남아 있거나 반신반의하는 것이 아닌, 충분한 근거를 가진 확신으로 신앙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기 신앙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관찰하거나, 이성의 힘을 발휘하거나, 꾸란의 가르침을 성찰하라고 권유합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진리를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중하고 진지하게 찾는다면, 진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꾸란 2:170, 43:22 – 24)

건강한 확신을 중요시하고 맹목적 모방에 반대하는 것이 이슬람의 방식입니다. 강한 확신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신앙이나 마음속에 의심이 남아 있다면 진정한 무슬림이라 자처할 수 없습니다. 이슬람은 굳건한 확신과 선택의 자유를 기초로 할 때만이 완전한 신앙이 되기 때문에,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강요당한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거나, 자유롭고 건강한 확신에서 비롯되지 않는 이슬람은 진정한 이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무슬림 지역에서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무슬림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이슬람이 종교의 강요를 금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슬람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선택의 자유가 책임의 초석입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의 영혼에 무관심해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견실한 바탕 위에 신앙을 정립하는 데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영적인 접근법은 주로 꾸란과 무함마드의 언행록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적 접근법이 있습니다. 이 역시 더할 수 없이 높은 존재에 대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영적인 접근법에 합리성이 없다거나, 이성적 접근법이 영성을 고취해 주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양자는 상호보완 관계에 있으며 자연스럽게 활발한 상호작용을 합니다.

합리적 지식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으면, 이성적 접근법이나 영적인 접근법 혹은 두 가지 방법 모두에 의지할 수 있으며, 자신이 내린 결론의 타당성에 자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깊은 연구나 이성적 접근법에 자신이 없다면, 꾸란과 무함마드의 언행록에서 얻는 지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요컨대, 영적인 접근법, 이성적 접근법 혹은 두 방법을 모두 쓰든 간에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같습니다. 접근법에 높고 낮음이 없으며 이슬람은 양자를 똑같이 인정합니다. 올바른 경로만 밟는다면 같

은 결과, 즉 더할 수 없이 높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꾸란 5:16 – 17, 12:109, 18:30, 56:80)

15. 진실한 무슬림은, 꾸란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꾸란을 여러 번에 걸쳐 조금씩 계시했습니다. 각각의 계시는 특정한 질문에 답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논쟁을 종결짓는 것이었으며, 인간을 진리와 영원한 행복으로 이끄는 최선의 지침입니다. 꾸란의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꾸란에서 울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만들어내는 울림입니다.

꾸란은 이슬람의 가장 믿을 만한 원전입니다. 꾸란은 아랍어로 계시되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완전한 아랍어 원본이 존재하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직접 관심을 쏟아 꾸란을 보존하고 언제 어디서나 인류에게 최선의 길잡이가 되도록 하며 왜곡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꾸란 4:82, 15:9, 17:9, 41:41 – 44, 42:7, 42:52 – 53)

꾸란이 문체의 변화는 물론, 심지어 점하나 바뀌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된 유일한 성서라는 사실을 보아도 하나님이 이를 보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꾸란을 기록하고 장과 절을 구성하고 본문을 보존한 역사는 무슬림 뿐 아니라 정직하고 진중한 학자들의 마음에도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

해, 이는 어떤 신앙을 가진 학자도, 지식인으로서 양심을 지킨다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꾸란이 불멸의 기적인 이유는 온 인류가 나선다 해도 꾸란의 어느 장 하나라도 흉내 내거나 만들어낼 수 없음에 있습니다. (꾸란 2:22 – 24, 11:13 – 14, 17:88 – 89)

16. 진실한 무슬림은, 꾸란과 무함마드의 언행록이 확연히 구분된다고 믿습니다.

꾸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함마드의 언행록은 꾸란의 실천적 해석입니다. 무함마드는 꾸란을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전했습니다. 받은 말씀을 해석하고 철저하게 실천하는 것 또한 무함마드가 맡은 사명이었습니다. 무함마드가 내린 해석과 실천이 무함마드의 언행록을 만들었습니다. 무함마드의 언행록은 이슬람법의 두 번째 원전이고, 첫 번째 원전이자 판단의 기준인 꾸란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무함마드의 언행록과 꾸란 사이에 조금이라도 모순이나 불일치가 있다면, 무슬림은 꾸란을 고수하고 나머지는 모두 질문 앞에 열어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함마드의 언행이 꾸란에 어긋나거나 상반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일러두기** / 이슬람 신앙의 기본을 설명하면서 일부러 전통적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기본을 다섯 기둥이나 6가지 믿음에 국한하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원칙을 포함하려 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한 신앙의 기본은 꾸란의 가르침과 무함마드의 언행록(하디스)에 근거했음을 밝힙니다.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꾸란이나 무함마드의 언행록을 그대로 인용할 수도 있지만, 지면 관계상 상세 인용은 생략하고 참고할 꾸란 구절을 표시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꾸란과 무함마드의 언행록을 더 자세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운명 예정, 숙명, 자유의지 등의 서구식 술어와 전문용어는 최소한으로 사용했습니다. 지나친 전문성을 피하고 독자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비아랍어권에서 사용하는 종교 용어를 이슬람에 적용하면 오해의 소지를 낳을 뿐 아니라 그릇된 인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 용어를 이슬람에 대입시켜서 사용하면 이 책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종교 용어를 사용할 경우, 불가피하게도 수많은 단서와 주석을 붙이고 지면을 늘려야 하는데, 그럴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평이하고 단순한 말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 책은 앞으로도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이슬람

2장
신앙의 기초

2장. 신앙의 기초

이 장에서는 이슬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과 가치를 설명합니다. 각 항목의 의미를 알아봄으로써 이슬람의 신앙관과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고, 무함마드는 마지막 선지자임을 믿노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 바로 무슬림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앙의 온전한 의미와 거리가 멉니다. 이슬람에서 신앙이란 겉으로 내세우는 것이나 형식에 불과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슬람 신앙은 능동적인 행위와 건설적 개념 그리고 역동적이고 효과적 수단을 통해 이뤄내는 일종의 행복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꾸란과 무함마드의 언행록은 의미 있는 신앙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규정하고 기준을 정합니다.

진실한 신자는,

1.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 꾸란으로 완결되는 성서들, 무함마드를 마지막으로 하는 선지자들, 최후 심판, 하나님의 절대적 지식과 지혜를 믿습니다.

2.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확고부동하게 신뢰합니다.
3. 하나님이 부여한 부와 생명, 건강, 지식, 경험 등을 하나님을 위해 다른 이에게 베풉니다.
4. 합동예배와 일상 예배를 제때에 지킵니다.
5. 구빈세(자카)를 정당한 수혜자(개인이나 기관)에 냅니다. 구빈세의 최소한도는 연 순수입 혹은 투자한 경우 증권 총액에서 비용과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의 2.5%입니다.
6. 의(義)와 선(善)을 지향합니다. 불의와 악에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 수단으로 맞서 싸웁니다.
7.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 무함마드를 따릅니다. 꾸란이 낭송되면 신앙심이 고조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을 때 마음이 겸손해짐을 느낍니다.
8.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극진히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며 동료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9. 가깝고 먼 이웃을 사랑합니다. 손님과 낯선 사람에게 진심 어린 친절을 베풉니다.
10. 진실한 말로 건전한 대화에 참여합니다. 아니면 말을 삼갑니다.

이슬람 신앙이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이슬람은 당연히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깊숙이 그리고 건설적으로 스며들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한 신앙은 인간의 정신적·물질적 운명과 개

인적·사회적 행동 그리고 경제 활동과 정치 행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꾸란에는 진실한 신자를 언급하는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 일부 구절을 인용해 꾸란이 진실한 신자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진정으로 믿는 이라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마음을 떨며 하나님의 징표가 낭송될 때 주님께 신뢰하여 믿음이 고조되고 굳세어지며,
예배에 늘 임하고, 받은 선물을 함께 베푸나니,
바로 이들이 진정으로 믿는 이로, 주님께로 불리어 용서와 자애로운 보답을 받으리라."
(꾸란 8장 2 - 4절)

"진실되게 믿는 이라면 남녀를 불문하고 서로를 보호하여, 의를 명하고 악을 금하며, 예배에 들고 구빈세를 물어 하나님과 선지자에 복종하리니,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 것이며, 정녕코 하나님은 모두 아시며 강함의 극치로다.
하나님은 믿는 남녀에게 강이 흐르는 동산에 아름다운 거처를 마련하시어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셨으니, 그럼에도 더 큰 행복은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며 더 할 나위 없도다."
(꾸란 9장 71 - 72절)

"진정으로 믿는 이라면 하나님과 선지자를 믿음에 돌아서서 의심 두지를 않고, 자신과 재산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노력하니, 바로 진실된 이로다."
(꾸란 49장 15절)

이러한 꾸란의 언급 외에, 무함마드의 언행록에도 진실한 신자에 관한 언급이 많습니다. 무함마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자신에게 일어난 것처럼 기뻐하지 않는 자는 진실한 신앙인이라 할 수 없다."

"세 가지 성품이 건강한 신앙의 징표를 이루는데,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만이 신앙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랑하며,
불신으로 돌아서는 것에 마치 불 속에 던져지기라도 하듯 분노하여 저항한다."

"하나님과 최후 심판을 믿는 사람은 이웃에 해를 입히는 것이 금지되며, 손님 특히 낯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고, 진실을 말하든지 아니면 말을 삼가야 한다."

번역한 인용은 아랍어 원전에 나오는 꾸란과 무함마드의 말씀 그대로가 아니며,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학식과 재능을 갖춘 사람이 번역한다 해도, 꾸란의 영적인 힘과 마음을 끄는 활력을 다른 언어로 재현할 수 없습니다. 꾸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에, 흉내 낼 수 없으며 인간의 상상력과 재현 능력을 넘어 섭니다.

이 점에 있어, 무함마드의 언행록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함마드의 말씀은 꾸란 다음으로 설득력 있고 확증적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정의 (正義)

이슬람은 피상적 개념과 겉치레를 항상 경계합니다. 현실성 없는 형식주의와 실효성 없는 신앙에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꾸란의 대표적인 구절에서 정의의 진정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올바름이란 그대 얼굴을 동서 양쪽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오,
정의로움은 곧 하나님과 마지막 날과 천사들과 경전들과 선지자들을 믿으며,
하나님께 사랑을 바쳐 재산을 친척과 고아와 궁핍한 자와 나그네와 거지와 노예 해방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니,

예배에 늘 임하고, 구빈세를 물며, 맺은 계약을 지키고 고통과
역경에서는 굳게 인내하여 헤쳐나가는 것이니,
이들이야 말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로다."
(꾸란 2장 177절)

위 꾸란 구절은 의로운 사람을 아름답고 선명하게 묘사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지키기 어려워도 유익한 규칙에 따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동료 인간을 사랑합니다. 다음 네 가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앙은 진실하고 성실해야 하며,

(2) 언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선과 친절을 베풀어 신앙심을 증명하고,

(3) 자선단체와 사회기관을 후원하는 선량한 시민이 되며,

(4)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침착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의는 결코 말만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정의는 굳센 신앙과 실천 위에 구축되어야 합니다. 정의는 개인의 생각과 행동에서 시작해 삶의 내면과 외면으로, 공과 사 모든 문제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슬람의 정의와 원칙이 서면 개인에게는 평온이 늘 깃들고, 사회는 각 방면에서 안정을 누립니다. 국가는 결속되고, 국제 사회에는 희망과 조화가 넘칠 것입니다.

이슬람의 정의를 실천하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평화롭고

즐거워질까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슬람의 정의라는 대의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마음 든든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피지배자의 불안을 덜고, 착취당하는 자의 고통을 줄이며,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의 궁핍한 처지를 돌보는 것보다 더 인도적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양심을 깨끗이 하여 약속을 이행하고 성실히 지키는 것보다 더 자상하고 정직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이 모든 일을 실행하는 것보다 더욱 큰 정신적인 기쁨을 주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건 (敬虔)

신앙과 정의에 관한 내용은 대체로 경건에도 해당합니다. 경건 역시 편의상 요구가 아닙니다. 단지 말로 신앙 고백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경건은 보다 깊은 문제입니다. 꾸란은 경건한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이란 볼 수 없어도 믿고, 예배에 굳게 임하며, 하나님이 준 것을 나누는 이로,
그대에게 내린 계시와 이전 계시들을 믿어 내세를 확신하니,
이들에게 주님의 안내가 베풀어지며 마침내 성공하리라."
(꾸란 2장 3-5절)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아낌없이 베풀며, 분노를 삼가 사람을 용서하니, 하나님은 진정 선량한 이를 사랑하시며,
수치스런 일로 영혼에 욕을 입혔어도, 고의로 악행을 되풀이하지 않고 뉘우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 외에 누가 그 죄를 용서하리오.
주님께서 용서로 보상하시어 강이 흐르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니, 그들 노력에 대한 대가로 얼마나 큰 보상이련가."
(꾸란 3장 134 - 136절)

위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삶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위해 베풀고, 정해진 각 예배를 통해 신체적 능력뿐 아니라 영적 능력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경건하기 위해서는 분노와 감정을 자제하며, 용서하고 인내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 그리고 죄인을 회개시켜 하나님께 향하게 해야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경건하다는 말은 올바르고 훌륭한 확신과 결단력, 인격을 갖춘 의지와 용기를 겸비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경건, 정의, 진정한 신앙은 서로 연결되며 결국 하나의 길로 통합니다. 이 요소 모두가 우리를 이슬람으로 이끌고 진정한 무슬림으로 만듭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

자비로운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민족마다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모두 훌륭한 인격과 높은 명예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택해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정직과 진실성 그리고 지성과 성실성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이들에게는 과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인간이었기에, 인간사를 해결하고 결정을 내리면서 본의 아니게 실책을 범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들의 개인적 판단이 모두 옳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낸 것은 하늘과 지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강한 유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에게 개선의 여지가 있고 선한 기질이 다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둔 목적은, 인간이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것을 확인시키고 스스로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바른길을 찾도록 도움을 베풀어 의를 행하고 악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지자의 존재는 하나님의 피조물 사랑과 피조물을 올바른 믿음과 행동으로 이끌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 정의를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준

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했는데도 악행을 저지른다면, 그 행위를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인간의 가치와 능력이 온전히 부합함을 보여줍니다.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했으며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후원합니다. 선지자의 존재 이유는 인류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인간에게 신성한 가르침을 알게 해 진리와 선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진정한 존재 목적을 깨닫게 하고, 인생을 목적에 맞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무슬림이 차별하지 않고 모든 선지자의 가르침을 일관되고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수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무슬림은 하나님의 모든 경전을 믿고, 모든 선지자를 받아들입니다.

생명

생명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란하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창조주입니다. 그 무엇도 우연히 존재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생명은 귀하고 소중한 재산입니다. 온전한 정신이라면 누구도 생명을 잃고 싶지 않을 것입

니다. 절망에 빠진 나머지 자신의 생명을 버리려는 사람조차도 마지막 순간에는 다시 한 번 기회를 잡고 싶어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므로 그것을 되찾을 권한도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즉 누구에게도 살생의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살과 자멸을 금하고, 귀중한 영혼이 떠나는 순간을 인내와 신앙으로 맞으라 권합니다. 살인자를 처벌할 때 또한 하나님의 법과 권한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면서 고유한 자질과 능력을 이유 없이 부여한 것도, 의무를 이유 없이 부과한 것도 아닙니다. 이는 인간이 삶의 목적을 충족시키고, 존재의 목적을 실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창조적으로 살아나가는 법을 터득하고, 삶의 진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생명과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정직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의식해야 합니다.

인생은 출발지와 목적지가 있는 여행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삶은 내세의 영생으로 들어가는 여정이자 일시적 무대입니다. 이 길을 걷는 여행자는 내세에 이르는데 이로운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최선을 다해 영원으로 향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 주어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떠날 때가 오면 단 한 시도 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

명이 다하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따라서 삶을 가장 보람 있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영생에 이르는 안전한 여정이 됩니다.

궁극적인 목적에 이르는 수단으로서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슬람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질 것과 버릴 것,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 등에 관한 규정과 규칙 체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하나님께 돌아감이 당연합니다. 삶을 세상을 스쳐 가는 여행으로, 스스로 이방인으로 여기라고 선지자 무함마드는 조언합니다.

종교

역사적으로 종교는 수없이 이용되고 오해받아 왔습니다. 착취와 압제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편견과 박해의 구실이 되는가 하면, 특권층과 백성 모두를 지배하는 권력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핑계로 의롭지 못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과학을 박해했습니다. 어린 생명을 빼앗기도 했으며 인간의 존엄과 명예를 무자비하게 짓밟기도 했습니다. 종교를 핑계로 워낙 많은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에, 종교 자체도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종교 본연의 기능이고 올바로 접근하는 방법일까요? 과연 이것

이 종교의 목적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단연코 '아니오' 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저마다 유일한 진정한 종교를 자처합니다. 종교마다 사람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종교라고 말합니다만, 모든 종교가 하는 주장이 모두 맞을 수는 없겠지요. 이런 분열은 서로 모순되어 자애로운 하나님 아래 인류를 범세계적 형제애로 결속시키기는커녕 불화를 일으키고 종교에 대한 거센 반발만 초래했습니다. 제삼자 관점에서 이런 상황을 본다면 종교 자체에 혼동과 환멸을 느끼기도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슬람의 종교 개념은 매우 독특합니다. 진정한 종교는 인류를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과 기본 욕구는 시대를 막론하고 같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한가지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하고, 모든 시대에 상존하고 해결되지 않은 인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참된 종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종교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그러나 이슬람이 선지자 무함마드만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무함마드 이전 선지자들 역시 이슬람을 가르쳤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예수를 비롯해 여러 선지자와 진실한 교우들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즉 무슬림으로 불렸습니다. 따라서 이슬람은 하나님의 보편 종교로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와 장

소, 민족과 언어, 그 어떤 요인이 작용하더라도 인간의 본성과 기본 욕구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기초로 해서, 종교가 영적·지적으로 필수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보편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지합니다. 종교는 인간을 미혹하지 않으면서 인도하며, 인간을 격하시키지 않고 인간의 도덕성을 향상시킵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이로운 것을 박탈하거나 짐을 지우거나 인간의 자질을 억누르지 않고 건전한 사고와 올바른 행동이라는 무한한 보물을 선사합니다. 종교가 인간을 좁은 영역에 가두지 않고 진리와 선의 광활한 지평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요컨대, 진정한 종교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자기 자신과 세계 또한 알게 합니다. 이는 종교의 기능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표현이 아닙니다.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진정한 종교의 목적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종교가 인간의 정신적 요구와 적당한 육체적 요구를 만족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심리적 매듭과 강박관념을 풀어줍니다. 본능과 열망을 순화해주고 욕망과 인생행로 전체를 지도합니다. 또한, 최고의 진리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스스로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킵니다.

종교는 인간에게 생명의 신비와 인간의 본성, 이를 다루는 방법, 선과 악, 의와 불의를 가르쳐 줍니다. 종교는 또한 악을 제거하여 영혼을 정화하고 마음에서 의혹을 가시게 합니다. 인격

을 강화하고 인간의 사고와 신념을 올곧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실현은 종교가 제시하는 정신적 의무와 육체적 규정을 충실히 지킬 때 가능합니다.

진정한 종교는 사람을 교육하고 단련하여 희망과 인내심을 가지게 합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만들고, 의와 선을 사랑하게 하며, 용기와 참을성을 길러줍니다. 이 모든 것이 아름답고 훌륭한 삶을 성취하도록 도와줍니다. 종교는 두려움과 영적 손실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단단한 유대를 보장합니다. 그리하여 평화와 안정을 주고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종교가 인류를 위해 할 일이며, 이슬람의 종교 개념입니다. 이런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종교는 이슬람이 아닙니다. 아예 종교조차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로부터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심도, 하나님을 염원하는 마음도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꾸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입니다.

"하나님께 종교는 오직 이슬람이니, 성서의 백성들도 지식을 받고 서로 시기하지를 않는다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니라. 만약 하나님의 징표를 부인한다면 곧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리라."
(꾸란 3장 19절)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바란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시리니, 내세에서 상실한 무리들과 함께 하리라."
(꾸란 3장 85절)

죄

인간의 실존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가 바로 세상의 죄와 악입니다. 죄는 에덴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했고, 그들은 지은 죄 때문에 낙원에서 추방되었으며, 그 후로 인류는 죄와 치욕의 낙인이 찍힌 채 살아온 것으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문제 전반에 대해 이슬람이 취하는 입장은 독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다른 어떤 종교와도 다릅니다. 꾸란에서 이에 관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에덴동산에 살면서 풍부한 양식과 안락을 보장받고 마음껏 누렸습니다. 단, 해악과 불의를 피하려면 한 나무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에덴 밖으로 쫓겨나 유배당한 그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 결국에는 최후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 수치와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꾸란 2:35 – 38,

7:19 – 25, 20:117 – 123)

이 상징적 사건이 알려주는 바는 의미심장합니다. 즉 인간은 낙원에서 산다 할지라도 불완전하며 미흡한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짓거나 과오를 범해도 영혼이 되돌릴 수 없이 타락하거나, 도덕적 성장이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충분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기 죄와 결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어디로 돌아가야 하며, 누구에게 인도를 구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층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들의 진지한 요청에 언제라도 기꺼이 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자애로우시기에 용서하되 여지를 남기지 않으며, 자비를 베푸시되 빠짐이 없게 합니다. (꾸란 7:156)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성차별'과 '죄의 상속'이라는 발상이 이슬람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슬람의 가르침에 원죄 혹은 죄의 상속 개념은 없습니다. 꾸란 30장 30절과 선지자 무함마드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피뜨라 Fitrah, 즉 순수 자연 상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른다는 의미인 이슬람 상태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태어난 후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외부의 영향과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현대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인격은 태어난 후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소위 사회화 과정이 인

성 형성과 도덕성 발달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부인되거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려받은 죄 혹은 본능적 죄라는 무거운 짐은 덜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굳이 정의한다면, 공정하고 자비롭고 자애롭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꾸란 15:29, 32:9, 66:12) 하나님은 절대적인 무한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완전하므로 그리고 인간은 창조되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인간에게는 적어도 창조주의 선한 영의 일부나마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의 선한 기질과 영적 열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창조했을 뿐, 하나님과 대등한 경쟁자나 선의 완전한 화신이나 절대적 권한을 갖도록 만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간이 창조의 힘으로 아무리 선하고 완전하다 해도 하나님의 선과 완전성에는 미칠 수 없습니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의 특성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지만, 인간의 능력과 책임이 유한하듯이 이런 특성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하며 과오를 범합니다.

그렇다고 불완전하고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 곧 죄나 범죄행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슬람에서는 그렇습니다. 인간이 비록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결점의 제물이 되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따름으

로 그리고 이성과 선택의 자유로 강해집니다. 사회적·심리적 기질의 인도를 받아 상대적이나마 완벽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과 악 사이를 오가는 부단한 투쟁과 같습니다. 이러한 투쟁 덕분에 우리의 삶이 단조롭거나 정체하지 않고 흥미롭고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영적·도덕적 승리를 성취하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이슬람의 윤리적 범주에서 보면, 인간이 불완전하거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이는 유한하고 한계를 가진 피조물인 인간이 지닌 특성일 뿐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는데도 고의로 이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에 해당합니다. 죄는 행위, 사고, 의지를 말하는데,

(1) 고의적이며,
(2) 하나님의 명백한 법을 무시하고,
(3) 하나님의 권한이나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며,
(4) 영혼과 육체에 유해하고,
(5) 반복해서 저지르며,
(6) 정상 상태에서는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죄의 구성요건입니다. 죄는 타고나거나 물려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저지를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잠재력은 경건과 선의 능력보다는 작습니

다. 어떤 이가 선의 잠재력이 아니라 죄의 잠재력을 행사하면, 자신의 순수성에 새로운 외부적 요인을 더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스스로 더한 외부적 요인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이슬람은 크고 작은 죄를 구분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죄와 하나님과 인간을 동시에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는 죄지은 이가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꾸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쉬르크shirk(우상숭배)의 죄만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다른 죄는 용서하시며, 사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를 용서합니다. 다신론자, 무신론자도 하나님께 돌아선다면 그 죄 또한 용서받습니다. 사람에 대한 죄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응분의 보상이나 처벌 중의 어느 하나가 이루어져야 용서가 가능합니다.

결론으로, 죄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는 어쩌다 저지르는 것이지 천성적으로 몸에 밴 게 아니며, 피할 수 있는 것이지 불가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법을 알면서 고의로 어기는 것이 곧 죄입니다. 타고난 본능이나 억제가 불가능한 욕구, 제어할 수 없는 충동 때문에 어떤 일을 저지른 것이 명백하다면, 이슬람은 이런 행위를 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의미해지고 인간의 책임은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킬 수 있는 것만을 지키라고 요구하십니다.

자유

역사를 보면 개념으로서, 가치로서 '자유'가 많은 개인과 집단, 민족에서 부인되어 왔습니다. 오해와 악용 사례도 많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라면 어느 곳이든 절대적 의미의 자유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사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자유에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반적 통념과 별개로 이슬람은 자유를 가르치고 소중히 여기며, 무슬림은 물론 비무슬림에게도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슬람의 자유 개념은 인생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모든 자발적 활동에 적용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은 누구나 피뜨라, 즉 자연 순수 상태에서 자유를 갖고 태어납니다. 이는 예속, 죄, 물려받은 신분, 조상의 잘못과는 무관한 상태로 인간이 태어난다는 뜻합니다.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법을 고의로 범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모독하지 않는 한 신성한 것입니다.

이슬람의 주요 목표는 정신을 미신과 불확실성으로부터, 영혼을 죄와 타락으로부터, 양심을 억압과 공포로부터, 육체를 고통과 쇠락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슬람의 가르침은 깊이 있는 학습, 지속적인 예배, 윤리 원칙, 식생활 규정을 독려합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을 독실하게 따를 때, 자유와 해방의 궁극적 목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신앙과 예배, 양심과 함께 하는 자유는 어떻게 가능한가 역

시도 이슬람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신앙, 예배, 양심의 자유를 가집니다. 꾸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에는 강요가 없느니라. 진리는 오류와 뚜렷이 구분되나니, 누구라도 악을 금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 밧줄을 잡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다 아시노라."
(꾸란 2장 256절)

이슬람의 이런 관점은 종교가 신념, 의지, 참여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힘으로 강제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더욱이 이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기회'로 제시하고, 스스로 길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꾸란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리는 그대 주님에게서 오나니, 믿으려는 이 믿도록 하고, 거부하는 자 내버려 둘 것이니 …… "
(꾸란 18장 29절)

이슬람의 자유 개념은 신앙의 기본이며, 창조주 하나님이 내린 엄명입니다. 자유 개념은 다음 기본 원칙 위에 세워집니다.

첫째, 인간의 양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며, 모든 사람은 각자 하나님께 직접 책임을 집니다.
둘째,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스스로 책임을 지며, 자신만이 자기가 이룬 업적을 거두어들일 권리를 가집니다.
셋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스스로 결정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넷째, 인간은 스스로 책임지고 건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과 영적 인도를 받습니다.

이것이 이슬람의 자유 개념의 기초이고, 이슬람에서 말하는 자유의 가치입니다. 이는 천부인권이자 영적 특권이며, 도덕적 특권인 동시에 무엇보다도 종교적 의무입니다. 이슬람이 말하는 자유 개념의 체계에는 종교적 박해와 계급갈등 혹은 인종적 편견 여지가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 권리는 생존 권리만큼이나 신성합니다. 자유는 생명 자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평등

이슬람의 가치 체계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평등 원칙이 있습니다. '공평'이라는 표현이 의미에 더 잘 맞습니다. 평등의 가치를 동일성이나 획일성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만 똑같지는 않다는 것이 이슬람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은 능력, 잠재력, 의욕, 재산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로 어떤 사람이나 민

족이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혈족, 피부색, 가지고 있는 재산, 누리는 특권은 개인의 인격이나 품성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영적 우수성입니다. 꾸란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 인간들이여, 하나님은 그대를 한 쌍의 짝으로 만드셨으며, 부족과 민족으로 나누어 서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셨으니, 그대 중에 더 귀한 사람은 더 정의로운 사람이노라"
(꾸란 49장13절)

인종, 피부색, 성별, 신분은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차이는 인성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더욱이 평등의 가치는 헌법상의 권리나 신사협정 혹은 생색내는 자선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등의 가치는 무슬림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고수해야 하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평등의 가치는 이슬람의 체계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다음 기본 원칙에서 나옵니다.

(1) 모든 사람은 만유의 최고 주이신, 유일하고 영원불변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2) 모든 사람은 인류로서 같은 종(種)에 속하며, 모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다.

(3)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공정하고 호의로우며, 특정 민족이나 시대 혹은 종교에 치우치지 않으신다.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지배 영역이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4)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온다는 의미에서 평등하고,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의미에서 평등하다.
(5) 하나님은 사람의 공과를 근거로 각각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
(6)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명예와 존엄을 누릴 권리를 부여하셨다.

이것이 이슬람 평등의 원칙입니다. 이 개념을 충실히 실현하면 편견이나 박해는 자리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시행되면, 압박과 억압의 소지도 사라질 것입니다. 선민과 이방인, 특권 받은 민족과 저주받은 민족, 귀족과 천민 같은 개념 역시 모두 의미를 잃을 것입니다.

형제애

이슬람의 가치 체계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기본 요소로 '인간은 모두 한 형제'라는 형제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가치 역시 자유와 평등을 다룰 때 논한 것과 같은 원리에서 비롯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슬람의 형제애의 기초는, 우리가 예배드

리는 하나님의 유일성과 보편성에, 예배자인 인류의 통일성에, 예배의 매개체인 종교의 통일성에, 그리고 이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에 있습니다.

무슬림에게 하나님은 유일하고 영원하며 보편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인의 창조주요, 만인을 돌보시며, 만인을 심판하시고, 만인의 주님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민족적 우수성 혹은 어느 인종에 속하냐는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만인은 평등하며 서로 형제입니다.

무슬림은, 인류의 창조 근원과 최종 운명이 같다는 의미에서 인류의 통일성을 믿습니다. 창조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고, 조상은 하나로 같으니, 곧 아담과 하와입니다. 모든 인간은 같은 조상의 후손으로 같은 부모를 가집니다. 무슬림은 인류의 최종 운명이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 있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되돌아간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슬림은 하나님 종교의 통일성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종교를 한정하거나 특정 민족 혹은 시대를 편애하지 않으심을 뜻합니다. 이것을 올바로 해석하면 우월한 체 하거나, 주제 모르고 남을 배척하는 일이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식을 분명히 할 때, 인간은 모두 형제라는 형제애 개념이 확실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무슬림은 하나님의 유일성과 인류의 통일성 그리고 종교의 통일성을 믿기에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와 계시를 차별 없이 믿습니다.

평화

이슬람이 평화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기 위해서, 이슬람에 관한 몇 가지 기본 사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평화와 이슬람은 같은 어원에서 파생한 용어로서 동의어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흔아홉 이름(덕성) 중 하나가 평화입니다. 모든 무슬림이 일상 예배를 끝내며 하는 말도 평화입니다. 무슬림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는 인사는 평화입니다. 무슬림이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인사도 평화라는 말입니다. 형용사로 '무슬림'은 평화롭다는 의미도 갖습니다. 이슬람의 천국은 평화가 가득한 곳입니다.

이슬람에서 평화는 근본적이고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입니다. 이슬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자기 자신 그리고 모든 사람과 평화를 이룹니다. 이런 가치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모든 인간을 존중하며, 이슬람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훌륭한 신앙과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개선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며, 평등을 이루고, 보편적 형제애를 누리며, 지속적 평화를 이루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공동체

공동체라는 용어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의 어떤 것은 낭만적이고 그리운 느낌을 주는 반면, 또 어떤 것은 경멸적이거나 시대에 역행하는 듯한 느낌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근본을 살펴보려 하므로, 논의를 공동체라는 용어의 가장 기본적 의미로 제한하겠습니다.

기본적 의미에서 본 공동체 개념을 인용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의 대인 친밀감, 감정적 깊이, 도덕적 약속, 사회적 결속 그리고 시간적 연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관계를 뜻한다. …… 이러한 공동체는 지연, 종교, 민족, 종족, 직업 혹은 공통의 목적을 가진 집단에서 발견된다. 그 원형이 가족이다." (〈The Sociological Tradition〉 Robert Nisbet, New York: Basic Books, 1966. 47－48면)

또 다른 기본적 의미의 공동체는 다음 두 가지 특징을 갖는 포괄적 집단입니다.

(1) 공동체는 개인이 그 안에서 자신의 주요 활동 대부분을 전개하고, 경험을 획득하는 집단이다.

(2) 이 집단은 공유된 귀속감과 일체감에 의해 결속된다.

(〈Sociology: A Text with Adapted Readings〉 L. Broom & P. Selznick, New York: Harper & Rowe, 1968. 31면)

역사의 큰 흐름을 보면, 인류는 윤리와 친밀한 관계를 중시하

는 '공동체'에서 형식적이며 실용주의적 관계를 중시하는 '대중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이러한 움직임은 각 분야로 파급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부터 몇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역사의 이런 경향이 완전히 부정적이지만은 않으나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라 하기도 어렵습니다. 사람에 따라, 정도에 따라 부정적일 수도,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현대사회는 결코 완전하지 않으며, 해결해야 할 큰 과제가 있습니다.

셋째, 인류는 의미를 상실한 것도, 희망을 잃어버린 상황도 아닙니다. 위기와 진통을 겪고 있지만, 통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넷째, 인류의 상호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으며, 사회는 더욱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른 사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슬람의 공동체 개념을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의 공동체 개념이 고유한 특징을 가진다는 말은 대체로 맞습니다. 고유한 특징이란 공동체의 기반, 역사적 사명, 목적, 여러 공동체에서 차지하는 지위, 정체성, 지속성을 말합니다.

이슬람에서 공동체는 인종, 국적, 지연, 직업, 친족 관계 혹은 특별한 이해 관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 지도자나 창립자 혹은 사건의 이름을 따서 부르지도 않습니다. 국경이나 정치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이슬람의 공동체입니다. 이슬람 공동체의 기초는 하나의 원칙으로, 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대의에 기여한다는 원칙입니다. 이슬람 공동체란 오직 이슬람이 육성하는 경우에만 존재합니다.

이슬람 공동체는 단순한 생존이나 권력 쟁취, 민족 번영, 생리적 연속성뿐 아니라 이를 초월하는 역사적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꾸란은 이 사명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대 가운데 공동체를 둘 것이니, 선에 초대하여 의를 내세우고, 악을 근절하리니, 이리하여 형통하리라."
(꾸란 3장 104절)

"그대의 공동체가 가장 뛰어나리니, 의를 행하고 악을 금할 것이며, 하나님을 믿을 것이니 ……"
(꾸란 3장 110절)

이슬람 공동체의 역사적 소임은 미덕, 건전성, 순수함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슬람 공동체는 선을 빈틈없이 지키고,

악을 철저히 배척하는 수호자입니다. 공동체 전체에 요구되는 것이 구성원 개개인에게도 똑같이 요구됩니다. 각 개인은 저마다 하나님께 책임을 지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무슬림 개개인의 소임은 선지자의 다음과 같은 말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대 중 누구든지 악한 일을 보거든 행동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니,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말로 고쳐야 하며, 그것조차 할 수 없다면 거부와 항의의 감정을 격하게 표시하라. 이것이 신앙의 최소한도로다."

보다시피 이러한 설명은 의미심장하고 포괄적입니다. 현재와 같은 대중매체 시대에 조직적인 행동의 힘이나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의 힘 혹은 대중적 감정의 힘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꾸란은 이슬람 공동체의 역사적 소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올바로 균형 잡힌 공동체를 두게 했으니, 그대가 모든 나라의 증인이오, 선지자가 그대 증인이 될 것이로다."
(꾸란 2장 143절)

위 구절의 증인 역할은 중요한 의미인 동시에 어려운 것입니다.

이는 이슬람 공동체가 모범이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이슬람 공동체는 가장 높은 행위 기준을 설정하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슬람 공동체는 극단과 사치, 경직성과 경거망동을 피해야 합니다. 균형을 지키고 확고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수용할 것과 거부할 것을 알고, 원칙을 세우되 융통성을 견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과 사회의 가능성에 관한 아마도 가장 어려운 과제일 것입니다. 어렵지만 이것이 이슬람 공동체의 소임이며 무슬림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바로 이러한 평가 기준 때문에 무슬림 공동체가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최선의 공동체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슬람 공동체의 정체성은 일관된 균형, 모범적 행위, 같은 목적, 서로에 대한 정서적 이해와 연대, 형평 등의 원칙이 핵심입니다. 꾸란과 선지자의 언행록에는 이런 취지의 언급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꾸란 4:135, 21:92, 25:52)

이슬람 공동체의 연속성에 관해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슬림의 의무 중 자신이 지닌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속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혼인과 상속에 관한 규정, 구빈세 Zakah 와 성지순례 Hajj , 친족의 상호 권리와 의무, 개인의 양심과 사회적 책임, 이러한 사항의 지속으로 이슬람 공동체는 건전함을 지향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공동체의 지속을 보장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꾸란을 보존하고, 꾸란의 순수성을 지키겠

다고 하셨습니다. (꾸란 15:9) 이는 꾸란을 신봉하는 공동체가 늘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꾸란을 믿는 사람이 사라지는 상황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둘째, 이슬람 자체가 하나의 연속체입니다. 한 민족이 하나님의 길에서 일탈할 때마다 말씀을 다시 다짐하고, 진리를 재확인했으며, 새로운 선지자나 개혁자를 임명하고 임무를 계속하게 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무슬림이 바른길을 버린다면 실패할 것이며, 실패한 무슬림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겠노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꾸란 47:38)

또한, 하나님은 경고하기를 만약 누구라도 신앙을 등질 때, 믿는 사람에게 겸손하고, 불신자에게 꿋꿋하며,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속히 만들어 내겠노라고 했습니다. (꾸란 5: 57)

윤리

이슬람에서 윤리 개념은 몇 가지 기본 신념과 원칙이 핵심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은 모든 선과 진리와 미의 창조주이자 근원이다.

(2) 인간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명예로운, 창조주의 대리자다.

(3)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인류에게 제공하셨다.

(4) 자비와 지혜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을 기대하지 않으며,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일에 책임을 묻지 않고, 인간이 삶을 즐기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5) 절제, 실천, 균형이 순수하고 건전한 윤리를 보장한다.
(6) 원칙적으로 모든 것이 허용되나, 다만 의무로 규정된 것은 지켜야 하고 금기로 규정된 것은 피해야 한다.
(7) 인간의 최종 책임은 하나님께 지는 것이기에, 최고의 목적은 창조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슬람의 윤리는 다차원적이고 광범위하며 포괄적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인간과 세상을 이루는 피조물, 개인과 개인의 자아 관계를 다룹니다.

무슬림은 행실을 조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말, 생각, 의도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 의미에서 무슬림의 역할은 정의를 옹호하고, 악과 싸우며, 진실을 추구하고, 거짓을 배척하며, 무례를 피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미덕이 무슬림의 목표입니다. 겸손과 소박, 예의와 동정심은 제2의 천성입니다. 무슬림으로서 오만과 허영, 혹은 매정함이나 무관심을 보인다면, 부당하고 무례한 처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노하게 합니다.

특히 무슬림과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과 순종, 철저한 신뢰와 깊은 사려, 평화와 감사, 불굴의 의지와 적극적 봉사입니다.

무슬림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 고차원적 관계는 인간 차원의 윤리를 더욱 키우고 강화시킵니다. 무슬림이라면 친족에게 다정하고, 이웃에 관심을 보이며, 연장자를 존중하고, 어린이를 감싸며, 병자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며,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의기소침한 사람을 격려하며, 남의 경사를 기뻐하고, 잘못된 길을 걷는 자가 바른 길로 돌아올 때까지 인내로 지켜보며, 무지한 자에게 아량을 베풀고, 무력한 사람에게 관용하며, 악을 거부하고,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무슬림은 자신의 권리 못지않게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정신은 건설적인 생각과 진지한 탐구열로 가득 차야 하며, 마음은 동정심과 선의로 고동쳐야 하고, 영혼은 평화와 평온의 빛을 발해야 하며, 충고는 하되 진심을 담아 정중하게 해야 합니다.

정직과 완벽의 실제 본보기가 되고, 약속을 이행하며,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해 지식과 덕을 추구하며, 잘못을 고치고, 죄를 회개하며,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의 문제에 민감한 성품을 기르며, 가족을 풍족하게 부양하되 사치를 피하고 가족의 정당한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슬림의 윤리적 의무입니다.

자연과 세계는 탐구의 장이자 즐거움의 대상입니다. 자연의 경이를 음미하면서 자연을 활용하고, 경이로운 자연에서 하

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읽어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면서 탐구하고 신비를 파헤쳐야 합니다. 하지만 자연을 이용하거나 즐기되 낭비나 무절제는 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는 대리자이자 양심의 수탁자로서, 무슬림은 자신과 세계를 공유하는 이들과 또 앞으로 계속 살아갈 사람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슬람의 윤리적 원칙의 한 면은 이행의 의무가 따르는 긍정적 서약 형식이고, 또 다른 면은 금지가 따르는 부정적 명령 형식입니다. 긍정 형식, 부정 형식 모두 인간에게 건전한 정신과 평온이 깃든 영혼, 강인한 인격과 건강한 육체를 길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복지와 번영에 필수 조건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슬람은 이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다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유일성과 무함마드가 선지자임을 서약할 것.
2. 일상 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릴 것.
3. 구빈세 혹은 가난한 사람의 몫(자카), 즉 종교세를 바칠 것.
4. 이슬람력 9월, 라마단 달 단식을 지킬 것.
5. 일생에 한 번은 성지 메카를 순례할 것.

이런 규정에 내포한 윤리적·사회적 의미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긍정 형식 외에 예방 조치에 해당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

슬람은 인간을 광란과 퇴폐, 우유부단과 방종, 천박함과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음식과 음료, 성에 관한 금지 사항을 규정해놓았습니다. 금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도주, 증류주, 독주 등 취하게 하는 술 전부 (꾸란 2:219, 4:43,5:93 – 94)
2. 돼지고기와 관련 식품(소시지, 햄, 베이컨, 돼지기름), 발톱이나 이빨로 먹이를 잡는 들짐승(호랑이, 늑대, 표범 등)의 고기와 관련 식품, 설치류·파충류·곤충을 먹이로 하는 날짐승(매, 독수리, 까마귀 등)의 고기와 관련 식품, 제대로 도살되지 않은 짐승과 새의 사체에서 나온 고기와 관련 식품 (꾸란 2:172 – 173, 5:4 – 6)
3. 도박과 무익한 스포츠 (꾸란 2:219, 5:93 – 94)
4. 혼외 성관계, 성욕을 자극하고 유혹을 부추겨 은연중 음란 행위로 이끄는 말, 시선, 태도, 걸음, 몸짓, 복장 (꾸란 23:5 – 7, 24:30 – 33, 70:29 – 31)

하나님이 이렇게 금지 규정을 둔 이유는 인간의 영적·정신적 안녕 뿐 아니라 인류의 윤리적·물질적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취한 조치도 아니고, 인간 스스로 선택한 제한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류의 복지에 관심을 표명한 사례이자 인간을 보살피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금할 때에는, 인간에게 요긴하고 이로운

것을 박탈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인간을 보호하고, 인생에서 보다 좋은 것을 즐길 수 있는 분별력과 고상한 취향을 길러주고, 숭고한 윤리가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마음과 정신, 영혼과 육체 그리고 양심을 보살핍니다.

이와 같이 금기는 박탈이 아니라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 억압이 아니라 훈련하는 것이며, 제한이 아니라 확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금기는 자비와 지혜의 조율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와 관련된 이슬람의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상사태나 위급한 상황, 불가피하고 긴급한 상황에 처한 무슬림은 정상 상태에서 금지된 행위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이 계속되는 한, 하나님의 윤리 규정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꾸란 2:173, 5:4)

둘째, 하나님은 법에 자비를 두어서, 몰라서 죄를 지었지만 후에 회개하고 자신의 행위를 고치는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용서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꾸란 6:54)

꾸란 구절에는 특히 눈여겨볼, 건전한 윤리적 행위의 기초와 철학에 기준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아담의 자손이여, 마스짇에 갈 때는 복장을 갖출 것이며, 먹

고 마시되 낭비하지를 말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검소한 이를 사랑하시노라.
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종복에게 베푼 아름다운 선물과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누가 금했는가?'
말할지어다 '이는 현세에서 믿음을 지녀 심판날에 정결한 이를 위함이로다'
이처럼 깨닫는 이를 위하여 징표를 보냈으니,
말할지어다 '내 주님께서 진정 금지하신 것은 공개적이든 은밀하든 수치스러운 짓이며, 진리와 도리에 거스르는 죄이고, 하나님께 동료를 붙여 권좌를 어지럽히며,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로다.'"
(꾸란 7장 31 - 33절)

이슬람에서 윤리의 범주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비롯해 종교의식, 예배, 사회적 처신, 의사 결정, 지적 탐구, 소비 습관, 언어 예절과 생활의 모든 면을 포함합니다. 이슬람에서 윤리는 이처럼 필수적이고 핵심이므로, 꾸란의 전 구절은 윤리의 어조를 담고 있습니다. 꾸란 전체를 통해 여러 문맥에서 윤리적 가르침을 되풀이해 강조합니다. 이런 이유로 꾸란 구절을 인용하면서 윤리적 가르침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요약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원칙이 다양한 문맥에서 여러 번 언급됩니다. 어떤 원칙은 중요한 하나의 원칙

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또 어떤 원칙은 전체 윤리체계의 한 요소로 등장하기도, 종교 전체의 상부 구조를 이루는 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특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에 제시하는 구절은 꾸란에서 발췌한 후 번역과 해석을 가한 것으로, 다시 말해 원전의 완전성에 미칠 수 없고, 온전한 번역이 될 수도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읽어주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 어떤 동료도 두지 말아야 할 것이며, 선을 행함에 그대 부모와 친척과 고아와 가난한 이와 가깝거나 모르는 이웃이리니, 만나는 나그네가 그대 동료이며 또 그대 오른손에 속한 것들이로다. 진정코 하나님은 오만하거나 자만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으시도다.
자신에 인색하거나 남에게도 인색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추는 자, 믿음을 거부하는 자에게 마련된 것은 깊은 멸시의 형벌이로다.
보이기 위해 재산을 베풀면서 하나님과 마지막 날을 믿지 않으니 누구라도 이러한 자를 벗으로 삼는다면 얼마나 끔찍하게 사악한 동료이련가."
(꾸란 4장 36 - 38절)

"말할지어다. 오시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말하리니. 하나님과 그 무엇도 견주어서는 안될 것이며, 부모에 효도하고, 두려움으로 자식을 살해해서는 안될 것이니, 그대와 자식 모두에게 양식을 마련해 놓으셨노라. 공개적이든 은밀하든 수치스러운 짓을 삼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신성하게 한 생명을 공정한 법이 아니고서는 앗을 수 없으니, 이것이 바로 그대를 지혜롭게 할 하나님의 명이로다."

"고아의 재산을 늘려주지 않는 한 자립할 때까지 가까이하지 말 것이며, 부피와 무게 측정을 바르게 할 것이니, 어느 영혼이라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짐을 지우지 않느니라. 가까운 친척일지라도 말을 공정히 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니, 이것이 바로 그대가 명심해야 할 하나님의 명이로다."

"올바르게 인도한 나의 길이니 따를 것이며, 바른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따르지 말 것이니, 이것이 바로 그대를 정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명이로다."
(꾸란 6장 151 - 153절)

"하나님께서 정의를 명하시며, 선을 펼치고 일가친척을 잘 대할 것이며, 모든 부끄러운 행위와 불의와 배신을 금하셨으니, 그대가 교훈 받기를 위한 지침이니라.

하나님과 맹세를 지켜고 깨지를 않는다면, 그대 하나님의 보장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대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니라."
(꾸란 16장 90 - 91절)

"믿음으로 정의를 실천하는 이, 남녀를 불문하고 새 삶이 주어지리니, 순수하고 선한 삶이며, 그들 최선에 따른 보상으로 주어지리라."
(꾸란 16장 97절)

"바른 설교와 지혜로 하나님의 길로 초대하여 무엇이 더 나은 길인지 논하라. 그대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잃은 자와 안내에 있는 이를 잘 아시노라."
(꾸란 16장 125절)

"하나님께로 초대하고 선행하면서 '나는 무슬림이오'라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말이 있으리오.
선과 악은 같을 수가 없나니, 선으로 악을 물리친다면 적대하던 자가 벗이 되리라."
(꾸란 41장 33 - 34절)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은 현세에서 그대를 위함이지만, 주님

을 믿어 신뢰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은 더 낫고 영원하리니.
악행과 수치스러운 일을 금하고, 분노할 때 용서를 하며,
주님께 귀 기울여 예배 드리고, 서로가 의논하며, 베푼 것을 나누고,
압제가 도래하면 함께 견디어,
상해에 따른 배상은 같아야 하나, 화해로 용서한다면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것이니 정녕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사랑하지 않으시도다.
그러나 정당방위로 해를 입혔다면 책임 지울 수 없으며,
책임은 오직 악행으로 타인을 억압하고 권리가 없이 영토를 침범하는 자에 있으니, 그들에게 가혹한 벌이 있으리라.
만약 인내와 용서를 보인다면 일을 처리함에 참된 용기와 의지를 보이리니."
(꾸란 42장 36 - 43절)

"현세의 덧없는 것을 원하는 자, 그들에게 기꺼이 베풀 것이나 마지막 그들에게 마련한 것은 지옥 불이니 수치와 버림 속에 불타질 것이며,
내세를 위해 노력하며 온 힘을 바치는 이, 믿는 이로 정성이 받아들여지리니,
주님의 선물은 누구에게나 이르러, 그대 주님의 선물은 막힘

이 없느니라."
(꾸란 17장 18 - 20절)

"하나님 곁에 경배 대상을 두지 말 것이니, 아니라면 수치와 빈곤을 면치 못하리라.
주님께서 하나님 이외에는 경배 드리지 말고, 연로한 그대 부모를 잘 공양하도록 명하셨으니, 멸시하거나 반박하지 말 것이며, 영예롭게 공경하도록 하라.
친절한 마음씨로 겸손의 날개를 깃들게 함으로 말할 것이니, '주님이시여, 저 어릴 때 보살핌 받았듯이 제 부모에게 자비를 내리옵소서.'
그대 주님은 그대 마음속을 가장 잘 아시니, 선행으로 뉘우친다면, 거듭 용서해 주시리라.
가난한 이와 나그네에게 하듯 가난한 친척에게도 권리가 있으나, 그대 재산을 낭비하지 말 것이오,
낭비하는 자는 악마의 형제이리니, 악마는 진정 주님께 불충하도다.
그대 주님께 의지하고 자비를 구해 그들과 결별할지라도, 다정한 말을 해줄 것이오,
그대 손으로 목 조르지를 말 것이오, 그대의 손을 한없이 펼치지도 말 것이니, 아니라면 그대는 비난 받고 곤궁해지리라.
정녕코 그대 주님께서는 원하는 이를 아낌없이 주시고 공정하

시니, 모든 종복을 보며 아시노라.
가난이 두려워 자식을 살해해서는 안 되니, 그대처럼 그들에게도 베풀어 줄 것이오, 자녀 살해는 진정 큰 죄악이라.
간음에 가까이하지 말 것이니, 수치스러운 악행이며 다른 죄악을 여는 길이라.
정당한 권리 없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살생을 해선 안 되니, 누군가 부당하게 죽으면 후계자에게 권한을 주었으나 한계를 넘어서서는 안될 것이며 도움 받아야 하리라.
고아 재산을 늘려주지 않는 한 자립할 때까지 가까이하지 말 것이며, 약속을 지킬 것이니,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로다.•
치수와 무게를 잴 때에는 공정하고 바르게 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결정•에 가장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노라.
알지 못하는걸 따르지 말 것이니,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책임이 따르리라.•
땅 위를 오만하게 걷지 말 것이니, 그대는 땅을 가를 수 없거니와 산과 대적할 수도 없느니라.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불쾌해하시니,
주님께서 계시한 내용에는 지혜가 스며있으며, 하나님 곁에 경배 대상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고, 아니라면 수치와 버림 속에 지옥으로 떨어지리라."
(꾸란 17장 22 - 39절) • 심판날을 의미

"루끄만에게 지혜를 베풀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이는 스스로를 위한 것이나, 거역하는 자가 있음에도 하나님은 충분하시며 찬미를 받으시노라."
(꾸란 31장 12절)

"사람들에게 명했으니, 부모를 공경하라. 어머니가 진통을 거듭하여 그들을 낳았으며, 두 해에 걸쳐 수유하지를 않았던가. 명하건대, 내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할지니, 그것이 내게 감사함이라.
그러나 나 이외에 알지 못하는 것에 숭배를 강요한다면 현세에서 정의로 내게 돌아올 때까지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대는 모두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가 그대 행위의 모든 진실을 밝히리라."
(꾸란 31장 14 - 15절)

"아들아, 예배를 드리며 정의를 실현하고 악을 금할 것이니, 실행함에 있어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인내하라.
타인을 업신여기지 말며 오만하게 걷지 말 것이니, 하나님은 거만한 허풍쟁이를 사랑하지 않으시노라.
늘 겸손을 지키며 목소리를 낮출 것이니, 나귀 소리가 가장 거치니라."
(꾸란 31장 17 - 19절)

"믿는 이들아, 술과 도박과 내기와 요행, 이런 것들은 사탄의 소행이니 피해야만 성공하리라.
사탄의 술책이란 오직 술과 도박으로 그대 사이에 적의와 미움을 부채질하여 하나님을 잊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니, 삼가야 않겠는가."
(꾸란 5장 90 - 91절)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세의 집을 구할 것이니, 현세의 몫도 잊지를 말되, 하나님께서 베푸시듯 선을 행하여, 세상에서 악을 엿보지 말라. 정녕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사랑하지 않으시노라."
(꾸란 28장 77절)

위의 발췌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꾸란 구절과 무함마드의 언행록은 이 외에도 더 있습니다만, 여기에 발췌한 것만으로도 이슬람의 기본 윤리를 보여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이슬람의 윤리는 특성상 모든 상황에서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윤리 원칙을 세운 것은, 가끔 보면서 그저 감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직접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각 개인의 성격을 가장 건전하게 개선하고, 인격을 도모하며, 모든 선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유대를 강화하고, 하나님과 결속을 다

지도록 하려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수동적이고 똑같이 만들기 위해 이슬람의 윤리를 세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무슬림이 해를 입거나 억압을 당할 경우, 선택에 따라 이에 저항하고 상응하는 처벌을 하거나 혹은 용서를 베풀어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알고, 용서해 주는 쪽이 더 좋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선택으로 용서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합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에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부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이런 태도는 그 자체가 신성한 의무이며 동시에 관계 당국이 질서와 정의를 확립하는 데도 일조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절대적인 용서만 요구한다면, 수양이 안 된 사람이 죄를 범하거나 제약에서 벗어나기 쉬울 것입니다. 또 일부 다른 종교에서 잘못 가르치는 근거 없는 말처럼, 이슬람이 오로지 보복만 요구한다면, 자비와 인내 그리고 영적 개선과 윤리적 성숙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인간의 많은 훌륭한 성품이 자취를 감추고, 많은 윤리적 잠재력이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용서하라고만 배운 사람은 대개 그런 가르침을 실천하지도 않거니와, 실천할 수도 없다는 것이 주

지의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르침은 결국 인류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윤리를 증진시키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차 없이 보복하라고만 배운 사람 역시 인간의 미덕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고, 윤리의 가치에 관한 관심도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인격을 함양하는 종교 이슬람은 이러한 문제에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슬람은 죄지은 자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고,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면 용서하기를 권합니다. 하지만 용서를 고마워할 줄 모르고 다시 악을 저지르려 하는 자에게는 저지른 짓에 상응하는 처분을 가합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도 무슬림은 건전하고 유익한 태도를 견지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경우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우월한 입장에 서서 비행을 저지른 자의 선도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합법적 대응을 할 경우에도 자기 권리를 보호하고 질서와 정의를 확립하며 악을 저지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건전한 윤리일까요? 물불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복수하는 것? 아니면, 자비와 용서의 여지를 두고 예외적 경우를 허용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누가 더 윤리적으로 건전할까요? 보복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상응하는 처벌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용서하는 무슬림인가요? 어느 쪽이 진정한 용서일까요? 외적 강제와 금지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는 용서와,

선택과 행동의 자유에서 비롯하는 용서, 어느 쪽이 진정한 용서일까요? 이슬람의 윤리 원칙이 건전하고 독자적이며 융통성이 있다는 사실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선과 윤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현대 세계에서 인류가 처한 입장과 전반적 상황 그리고 우주관과 세계관에 관한 이슬람의 개념과 관점을 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선 논의의 개념을 재확인하는 한편, 몇 가지 새로운 생각을 덧붙이고 다양한 차원에 걸친 주제를 한데 묶어 요약할 것입니다.

현재 인류는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경고 상황에 있습니다. 선의와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의 관심과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절망하거나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그래 왔듯이 희망의 정신은 이슬람에 필요 불가결한 핵심입니다. (예: 꾸란 12:87, 65:3 참조)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와 위기가 오직 현대에만 국한된 특이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와 위기는 난감하고 복잡하며 고통스러운 사실이고, 그 정도는 아마 이전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한층 더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시대와 지난 세기 사이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입니

다. 현대가 처한 곤경이 점점 복합적 문제가 되어 가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기대와 능력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난 수 세기 동안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골치 아픈 위기는 본질에서 거의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로 생소하고 이질적이며 외래의 것에 배타적이며 편협한 태도를 완고하게 고집하기에 나타난 위기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인종주의, 엘리트 의식, 아집과 편견 그리고 이에 못지않은 여러 가지 불편한 흐름을 조장했습니다.

인류가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인간이 현재 처해 있는 위기는 외부를 향한 물질적 탐구와 내면을 향한 윤리적 탐색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균형을 유지하여 중도를 표방하고 중용을 찾자며 이를 위한 운동을 하는 것이야 어렵지 않겠지만 이처럼 성취하기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과거에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물질적인 복지를 무시해도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오해한 나머지, 구제 불능의 운명론이나 인간의 자유와 자기완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성과 하나님께 의탁을 지나치게 내세우면 필경 이에 대한 반동으로 물질주의와 합리주의, 자유의지 등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어느 한계를 넘어 영성을 강조하면 미신과 미혹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되는 것에 대한 강조가 지나치면 물질주의가 방종으로, 자유의지가 방탕으로 변하고 합리주의가 지적 허영으로 끝날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수세기 지성의 역사가 이런 경향을 단적으로 증명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정신세계의 기준은 요동쳤습니다. 한때, 미증유의 외계 탐사가 뉴스를 독차지했습니다. 우리의 내면세계로 파고드는 탐구 역시, 때로는 제정신이 아닌 듯 보일 정도로 지나친 느낌을 주거나 혹은 유행처럼, 외계 탐사 못지않게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계와 내면 양방향으로 뻗어가는 전대미문의 두 가지 탐구열은 유례없는 불안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불안의 원인은 아마도 이 두 가지 탐구열이 서로 수렴하기는커녕 서로 아무 관계 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양상에는 뚜렷한 관계나 보완 혹은 교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두 양상이 불안정하고 불균형하게 혼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불안과 혼란에 빠지는 것은 극히 당연하며, 이로 인해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현대인의 스트레스도 더욱 가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계를 향한 과학 탐사와 내면을 향한 윤리적 탐색이 어떤 식으로든 서로 화해한다면, 이런 불안한 경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지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예배만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정치적·물질적 동물인 동시에 영적 탐구자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현대세계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역시 당황을 부추깁니다. '지금 세상에 필요한 것은 사랑…' 같은 대중가요를 읊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간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인도주의, 악마주의 혹은 과학주의를 궁극의 해결책으로 내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차 구세주가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무관심한 사람들, 자포자기한 사람들, 냉담한 사람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오늘날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이해'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자신의 천성, 잠재력, 한계를 이해하며, 세상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위치, 자신과 세상의 관계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슬람이 어떻게 자신을 이해시키고, 정신의 장애물을 걷어내 시야를 맑게 해 줄 수 있는가입니다. 이 문제에 답하려면 이제까지 논한 이슬람의 기본 개념을 머리에 새기고, 이슬람의 가치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를 보다 정교하게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탐구를 통해 이슬람의 개념과 가치체계가 고통스러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현대인이 자신의 길을 찾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중용의 원칙은 이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인간 본성과 삶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개념을 파악하는 이슬람의 관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슬람은 편파적 '인본주의' 철학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인간을 거의 신격화하여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슬람은 또한 인간이 날 때부터 포악하고 사악하여 죄성(罪性)이 깃들어 있다는 편파적인 견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인생이 추잡하고 동물적이며 짧고 비참하다는 논리 역시 배격합니다.

이슬람은 삶 자체가 목적이고, 아무런 걱정 없이 즐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도 배격합니다. 이슬람은 삶에 긍정적인 의미와 목적을 찾아줍니다. 이슬람은 오직 내세와 비교할 때만 지상의 삶을 낮춰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눈앞의 현실과 순간적 향락과 쾌락에만 관심을 두지 않으며, 현실에서 도피해 내세의 낙원만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슬람은 지상에서 살아가는 조건에 관심을 두는 동시에 내세에서 맞이할 운명도 중시합니다. 물론 이런 관심은 비례하는 것으로, 이슬람은 현세와 내세를 평가하면서 전체 행복에 상대적으로 끼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평가합니다. (꾸란 7:33, 17:18 – 21, 28:77, 57:20 – 21)

많은 구절 중 대표할 만한 꾸란 구절이 있습니다. 꾸란 2장

27절 – 39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슬람의 기본원칙 일부를 포함하고, 이슬람 세계관의 기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상은 설계자의 뜻과 의지로 창조되어 유지되며 하나의 독립체를 이룬다. 역사적 사건은 창조주의 뜻에 따라 일어나며, 정해진 법칙을 따른다. 역사는 맹목적인 우연이나, 우발적으로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모여 만들어지지 않는다.

2.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로,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임명되었다. 인간이 대리인으로 선택된 것은 땅을 경작하고, 깨달음과 선, 목적, 의미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여 인간에게 도움을 주도록 했다. 지상의 삶은 인간을 가두어 놓은 감옥이 아니며,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전생의 죄에 대해 처벌받기 위한 것도, 다른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난 것도 아니다. 인간의 존재는 단순한 우연이나 우발적 사건 또한 아니다.

3. 깨달음은 인간에게만 있는 능력이며 인격과 존재의 필수요소이다. 인간이 창조주의 대리인이라는 자격을 지니고, 하나님의 천사들에게조차 존경과 충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바로 이 깨달음 때문이다.

4. 지상에서 삶은 처음부터 창조주께 반역하거나 죄로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후 일어난 일련의 일들(아담과 하와의 양심의 가책, 회개, 하나님의 용서와 측은지심, 인간과 사탄 사이의 대립)은 창조주에게는 의외가 아니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결코 아닐뿐더러, 우발적이기에는 너무나 의미심장하다. 그보다는 최초의 인간을 훈계하고, 타락과 회복, 도덕적 패배와 승리 그리고 창조주로부터 이탈과 화해를 직접 체험시키려는 계획으로 보인다.

이런 경험을 통해 인간은 삶의 자세를 가다듬고, 삶의 불확실성과 고통스런 순간들을 헤쳐 나갈 혜안을 가지게 된다.

5. 하와는 최초의 인간 한 쌍에서 연약한 쪽이 아니었다. 하와가 아담을 유혹하여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 것이 아니며, 그녀만이 추방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아담과 하와는 똑같이 유혹을 받았고 똑같은 책임이 있었다. 둘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였으며, 하나님의 용서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데, 이로써 하와는 태고적부터 여성을 따라다닌 저주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여자가 도덕적으로 열등하다는 믿음에 아무 근거가 없다고 단호히 선언한다. 여기서도 꾸란은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미덕과 약점을

지니며, 똑같은 감수성과 장점을 가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2장 신앙의 기초, '죄' 항목 참조)

6. 인간은 자유가 부여된 자유 행위자다. 이것이 인간성의 본질인 동시에 창조주가 책임을 묻는 근거다. 인간에게 상대적 자유가 없다면, 삶이 의미를 잃을 것이며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서약은 헛것이 되어 목적이 깨지고 인간은 어떤 책임도 질 수 없게 된다. 이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7.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한다. 생명은 영원하지도, 그 자체가 최종 목표도 아니다. 하나의 과도기로, 이 기간이 끝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8. 인간은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자다.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은 실제 죄를 지은 사람만이 진다. 죄는 상속되지 않으며, 전가가 불가능하고, 연대성을 갖지 않는다. 각 개인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진다. 인간은 타락하기 쉬운 반면, 아울러 구제와 개선의 여지도 함께 지닌다.

이는 이슬람이 집단보다 개인을 선호한다는 뜻이 아니다. 개인주의를 사회적 맥락과 분리해서 본다면 의미를 잃어버린다. 개인마다 상이한 일련의 역할을 가진다는 것이 개인주의의 본래 의미다. 각 개인은 자기 역할을 수행하되, 자신의 도덕적

성실성을 지키고, 주체성을 보존하며, 하나님의 권리를 지키면서, 사회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9. 인간은 존엄하고 명예로운 존재다. 인간의 존엄성은 창조주가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은 사실에서 기원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존엄성이 민족이나 피부색 혹은 신분계층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존엄성은 지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존재인 모든 인간의 천부적 권리이다.

10. 끝으로 이 구절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점과 인류의 통일성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고한 사실임을 지적한다. 더 나아가 최고의 덕은 깨달음과 독실한 신앙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깨달음을 얻고 활용하면 행복한 운명이 보장되고 생애가 평탄할 것이라 말한다.

모두를 위한 이슬람

3장
신앙의 실천

3장. 신앙의 실천

이 장은 신앙을 위해 이슬람에서 강조하는 주요 실천사항을 다룹니다.

이슬람 신앙의 주요 실천사항으로는 예배, 단식, 구빈세, 성지 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한 실천 방식은 영적인 목적에 합치하고 인간의 필요에도 맞습니다. 그 중에는 매일 실행하는 것과 한 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일 년에 한번 실행하는 것이 있고, 평생에 한 번은 실행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결국 실천사항은 매일, 매주, 매달, 매년, 평생을 포괄합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전 생애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습니다.

이슬람에서는, 행함과 실천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매우 예민한 것이기에 쉽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천하지 않거나 무관심하면 생기 없는 그저 이름뿐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생기를 주고 신앙이 그 목적에 부합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실천입니다. 실천은 신앙에 양분과 지속성, 유효성을 불어 넣습니다.

역으로 신앙은 부단한 헌신과 꾸준한 실천으로 이끌고 북돋워 줍니다. 신앙과 실천의 상호관계는 매우 깊습니다. 신앙과 실천이 서로 의존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뚜렷이 감화받을 곳이 없기에, 성취하거나 열망할

가치 있는 목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삶은 무의미합니다. 살기는 하지만 이렇게 산다면 제대로 사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신앙을 선서하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실제로는 신앙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 역시 방황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슬람에서 신앙과 실천 사이의 상호관계는 이슬람의 체계 전체를 여실히 반영하며, 이슬람의 가르침이 지닌 심오한 철학을 드러냅니다. 이슬람은 어떤 경우에도 영혼과 육체, 정신과 물질, 종교와 실생활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인간을 인정합니다.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본성을 인정합니다.

이슬람은 인간의 영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성을 무시한다면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이슬람은 또한 인간의 육체적 요구를 과소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육체적 요구가 없다면 인간은 천사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인간은 천사가 아닐뿐더러, 될 수도 없습니다. 이슬람에서 인간은 피조물 중에 가운데 자리합니다.

인간은 순수한 영적 존재가 아니며, 그런 영적 존재는 천사뿐이고, 인간이 넘어서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적 존재 너머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오로지 물리적, 육체적 존재인 것만도 아닙니다. 이런 부류의 존재는 동물이나 기타 이성 없는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양면적 본성을 지닌 존재이기에, 양면적 욕구와 양면적 필요를 지닙니다. 정신적, 물질적 욕구 그리고 윤리적, 육체적인 필요를 지닙니다. 인간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종교는 인간의 모든 욕구와 필요를 고려하고, 인간의 영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육체적 욕망 제어를 훈련하는 종교입니다. 이런 종교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인간성의 어느 한 면을 억누르거나 균형을 깨트리거나 한쪽으로만 치우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심어준 본성을 무책임하게 외면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거부하고 학대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이슬람은 인간 본성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인간의 영적·물질적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종교를 사사로운 문제로 보거나 실생활과 동떨어된 실체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종교가 전체적인 인생행로에 분명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가치가 없습니다. 다른 한편,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인생을 계획하고 영위하지 않는다면 삶은 무의미합니다. 이슬람이 개인·사회·노동·산업·경제·정치·국가·국제 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일상생활과 종교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종교와 의미 있는 삶의 상호작용은 매우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당하고, 인간에게 자비로운 방식으로 인간의 제반사를 지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종교와 일상생활은 이렇게 필연적으로 부합하기 때문

에 이슬람은, '엿새는 나 자신과 세상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 하루는 주님을 위해'라는 식의 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교리는 결국, 공허하고 활기 없는 신앙이 됩니다. 그런 교리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심히 부당하게 대하는 것이며, 자신의 영혼에 해로운 상처를 입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는 영적·윤리적 욕구를 심각하게 무시하는 일입니다.

영적·윤리적 욕구가 기본적인 물질적 욕망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그에 필적할 만큼 중요합니다. '하루만 주님을 위해' 교리는 인간의 본성을 위험하게 분열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분열은 타락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엿새는 수도생활이나 명상에 몰두하고 하루는 자신을 위해'라고 해서 더 나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균형이 깨어진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행로는 이슬람이 제시하는 행로라 할 수 있습니다.

양면적 본성을 지닌 존재인 인간은, 피조물 세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영혼이나 육체 중 한 쪽을 등한시하거나 어느 한 쪽을 우위에 둔다면 심각한 곤경에 처합니다. 영혼과 육체 모두에 양분을 주고, 양쪽 모두 균형 있고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 인간의 정의감과 성실성 그리고 의지력과 진실성을 가늠하는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이 어려운 시험의 통과를 돕기 위해 이슬람은 신앙의 규칙적인 실천사항을 갖고 구원하러 온 것입니다.

예배

예배의 목적

예배는 이슬람 신앙의 한 기둥으로, 종교의 지주이자 반석입니다. 따라서 합당한 이유 없이 예배 드리지 않는 무슬림은 중대하고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가 중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존재에 경배하고, 숭고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가장 위대한 존재인 동시에 가장 숭고한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인격을 건전하게 함양하는 방법과 성숙한 자기계발 과정에서 열망을 실현하는 최선의 방법이 이슬람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게을리하는 것은 선한 자질을 억누르는 일입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즉 경배하고 사랑할 권리, 열망하고 고매할 권리, 선을 함양하고 고상한 목표에 다다를 권리를 억누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누르고 거부하는 것은 극히 심각하고 파괴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에 지니는 의의와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인간의 예배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번영과 복지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의무

를 지우는 뜻은 우리를 돕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든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고, 어떤 죄를 범하든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일입니다.

이슬람 예배에서 얻을 수 있는 이로움은 무한하고, 축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는 그저 이론이거나 상투적인 가정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놀라운 발견이자 영적 체험입니다. 이슬람 예배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의 실존과 선함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고, 이 믿음이 우리 가슴 속 깊은 곳으로 스며들게 한다.
2. 이러한 신앙에 생기를 주어, 실생활에서 건설적으로 작용하게 한다.
3. 숭고한 윤리를 추구하는 본성과 본능적 열망을 깨닫게 하여, 최상의 덕을 실현하도록 돕는다.
4. 마음을 정화하고 정신을 계발하여, 양심을 길러 주고 영혼을 위로한다.
5. 선하고 예의 바른 기질을 함양하여, 악하고 무례한 성향을 억제한다.

이슬람 예배가 지닌 특수성을 살펴보면, 단순한 신체 동작이나 공허한 성서 낭송이 아닙니다. 예배는 지적 명상과 영적 헌신 그리고 윤리적 향상과 신체 운동 모두를 총괄하는, 독자적이고 유례없는 신앙 형식입니다. 예배는 온전한 이슬람 체험으로,

예배 드리는 동안 신체의 근육이 영혼과 정신에 합일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슬람 예배의 의의를 말로 다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겠습니다.

1. 단련과 의지력 수업이다.
2. 하나님과 모든 가치 있는 목적에 헌신하는 실습이다.
3. 하나님과 변치 않는 선한 말씀을 빈틈없이 상기시킨다.
4. 영적 수양과 윤리적 건전성의 씨앗이다.
5. 삶을 가장 곧은 길로 이끄는 안내다.
6. 무례와 악, 그릇된 탈선과 방황으로부터 지켜준다.
7. 진정한 평등, 확고한 통일성, 형제애의 표명이다.
8.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다.
9. 마음의 평화와 평온의 길이다.
10. 인내와 용기, 희망과 자신감의 원천을 풍성하게 해준다.

이것이 이슬람 예배이며, 예배가 베푸는 혜택입니다. 예배의 효과를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를 체험하고 예배가 주는 영적인 환희에 젖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야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조건

다음 조건을 갖춘 무슬림은 남녀를 불문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

니다

1. 정신이 온전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2. 비교적 성숙하고 일반적으로 사춘기의 연령에 달한 사람.
3. 여자의 경우 생리 중이 아니고, 해산과 수유로 행동이 부자유스럽지 않은 사람. (이런 경우에는 예배 의무가 완전히 면제됩니다)

예배가 유효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일정한 방법으로 몸을 씻는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따로 합니다)
2. 온몸과 옷을 청결히 하고, 예배 장소도 깨끗히 치운다.
3. 의복을 윤리적인 규정에 맞춰 은밀한 곳은 가려야 한다. 남자는 적어도 배꼽에서 무릎까지는 가려야 한다. 여자는 얼굴과 양손, 양 발을 제외한 전신을 가려야 한다. 남녀 모두 속이 비치는 옷은 피한다.
4. 가능한 한 제시간에 예배를 시작하고, 마음과 말로 예배 의도를 밝힌다.
5. 예배는 메카 카아바 방향으로 향한다. 방향을 알 수 없다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에 따른다.

예배의 종류

예배의 종류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 예배: 하루 다섯 번의 예배와 금요일의 정오 합동 예배, 그리고 장례 예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심각한 죄입니다.
2. 축제 예배: 의무 예배에 수반되는 두 축제(이드 Eid) 합동예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태만이며 지탄받을 행위입니다.
3. 임의 예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느 때이든 자진해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동트기 직전 새벽과 오전 중간에 예배드리면 좋습니다.

예배 시간

모든 무슬림은 합당한 면제 사유가 없거나, 함께 모이기 위해 잠시 늦추거나 할 때가 아니라면 적어도 하루에 다섯 번 예배를 때에 맞춰 드려야 합니다. 다섯 번 예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벽 예배(파즈르 Fajr): 하늘에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여 해가 뜨기 전까지 날이 어슴푸레한 동안, 이후 해뜨기 전 사이에 예배를 드린다.
2. 정오 예배(두흐르 Dhuhr): 해가 중천에서 기울기 시작해 서녘 하늘에 질 때까지의 중간을 잡아서 그 사이에 예배를 드린다. 예를 들어, 일몰시간이 오후 7시인 경우에는 예배 시간은 12시 조금 후부터 오후 3시 30분 사이 시간이다. 이 시간 범위 직후,

다음 예배 시간이 시작된다.

3. 오후 예배(아스르Asr): 정오 예배 시간 범위가 끝난 직후부터 해 질 무렵 사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

4. 저녁 예배(마그립Maghrib): 해가 져서 어둑어둑한 때부터 사방이 완전히 깜깜해지기까지, 보통 1시간 반가량 동안 계속되는 시간 범위에 예배를 드린다.

5. 밤 예배(이샤Isha): 서쪽 지평선에 저녁놀이 사라진 후(일몰 후 약 한 시간 반 뒤)에서 새벽 조금 전까지 계속된다.

● 정확한 예배 시간을 알려주는 일정 달력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나와 있어 이것으로 각 예배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달력을 입수할 수 없다면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에 기대면 됩니다.

이슬람에서 정한 예배 시간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적 재활과 신체적 성장이 절묘하게 만나는 시간이며, 정신적 평화와 육체적 휴식이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새벽 예배는 통상 아침 식사를 부르고, 정오 예배는 점심 시간과 일치합니다. 오후 예배는 차나 커피를 마시는 휴식 시간에, 저녁 예배는 저녁 식사시간에 해당합니다. 밤 예배는 밤참 먹을 때와 일치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무슬림이 예배를 지킴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영적 도장을 찍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슬림

은 종교와 생활을 결합하고, 온종일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영적 기운 속에 일과를 마치고, 윤리적 태도를 튼튼히 키웁니다. 이에 더해 무슬림의 이런 방식은 삶의 곳곳에 영적 활기를 불어넣으며, 종교를 활동 분야 전반에서 보여줍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종교의 효과가 드러나고, 모든 분야 전반에 종교가 빛을 발합니다. 일상 생활 속 예배 시간이 돋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이슬람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가급적이면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 예배를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는 신성한 경배 절차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받는 보상은 무한하며, 기쁨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배자가 얻는 행복, 느끼는 즐거움, 받는 명예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반면,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죄에 해당합니다.

정오 예배(두흐르)와 오후 예배(아스르)는 여행 중이거나 병중인 경우, 한번에 몰아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저녁 예배(마그립)와 밤 예배(이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깨끗히 함 (우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먼저 용모를 단정히 하고 청결해야 합니다. 외부에 노출돼 더러워진 몸을 씻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우두 wudu라고 합니다

1. 우선 예배를 위해 씻는다는 마음가짐을 합니다
2. 손목까지 손을 씻습니다.
3. 입을 헹구는데 양치질하면 더 좋습니다.
4. 물로 콧속을 헹굽니다.
5. 얼굴 전체를 씻습니다.
6. 양팔을 팔꿈치까지 닦습니다.
7. 젖은 손으로 머리를 훔칩니다.
8. 양발 모두 발목까지를 씻습니다.
각각 세 번씩이면 충분합니다.

이로써 청결해지고 예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는 깨어지지 않는 한, 다음 예배까지 유효합니다. 하지만 비록 청결한 상태가 유지된다고 할지라도 자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순서가 틀려도 청결이 깨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이 순서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결은 다음 경우에 깨집니다.
1. 생리작용에 의한 대소변, 방귀
2. 출혈이나 고름 등 신체부위의 이물질 분출
3. 구토
4. 수면
5. 약 등에 취해 정신이 흐려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이런 경우, 예배드리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생리작용에 의한 배변 후에는 화장지만으로 충분치 않을 수 있기에

물 사용을 권장합니다.

우두를 대체하는 마른 청결 (따이얌뭄)

물 대신 깨끗한 흙을 이용해서도 우두나 목욕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1. 와병 중이라 물을 쓸 수 없을 때
2. 충분한 물을 구하기 어려울 때
3. 물을 쓸 경우 질병을 유발하거나 해가 될 가능성이 있을 때
4. 장례 예배나 축제 예배는 연기하지 않기에, 우두로 놓칠 우려가 있을 때

마른 청결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 손을 깨끗한 흙, 모래 혹은 돌 위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2. 손을 털어내고는 우두와 마찬가지로 얼굴을 문지릅니다.
3. 다시 양 손을 두드리고는 양팔을 뒤꿈치까지 문지릅니다.

마른 청결인 따이얌뭄은 청결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청결은 건강과 예배 양쪽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청결 의식으로 이슬람은 다른 어떤 종교나 의학도 예상하지 못한 위생요법을 아울러 가져 왔습니다.

목욕 (구슬)

우두만으로 충분치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반드시 목

욕으로서 청결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1. 부부관계가 있을 때
2. 몽정을 했을 때
3. 여성의 경우 생리가 끝났을 때
4. 산후수유로 자리를 뜰 수 없는 기간이 끝났을 때

모든 청결 과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여러 좋은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지하게 임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식

이슬람의 영적·윤리적 성격의 또 다른 특징으로 단식 제도가 있습니다. 단식은 이슬람력으로 아홉 번째 달인 라마단 달 한 달 동안 동트기 전부터 해 질 무렵까지 음식, 음료, 부부관계, 흡연 등을 완전히 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슬람 단식의 의의를 이런 사전적 의미에만 한정 짓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슬람 단식은 미덕의 귀한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고 키우는 격입니다. 이슬람 단식의 영적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슬람 단식은,

1. 진정한 사랑의 원칙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

에서 우러나와 단식해야 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곧 사랑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2. 희망을 불어넣고 낙관적인 인생관을 갖게 합니다. 단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3. 진정한 덕, 즉 효과적으로 헌신하고 정직하게 기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덕을 심어 줍니다. 단식은 하나님만을 위해,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방심 없는 건실한 양심을 배양합니다. 단식은 누가 보든 안 보든 하기 때문입니다. 단식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며, 또 누가 시킨다고 그만 두지도 않습니다. 단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남이 보든 안 보든 충실하게 양심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건실한 양심을 배양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5. 인내심과 이타심을 고취합니다. 단식을 할 때 결핍의 고통을 느끼면서 인내하기 때문입니다. 단식 기간 중 이런 결핍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직접 체험함으로 궁핍한 사람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사회적·인도주의적 의의는 이런 체험을 해본 사람이 누구보다도 빨리 같은 처지에 공감하여 필요한 도움을 베푸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이타심이자 진정한 공감입니다.

6. 절제와 의지력을 효과적으로 실습하는 방법입니다. 단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육체적인 유혹에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곧 인격자요, 의지력과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7. 투명한 영혼으로 초월의 경지에 들고, 맑은 정신으로 사고할 수 있으며, 경쾌한 몸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위를 가볍게 해서 생기는 결과로, 의학 연구와 생물학 법칙 그리고 경험이 이런 사실을 증명합니다.

8. 현명하게 저축하고 가계를 건실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덜 먹고 덜 마시면 그만큼 돈도 노력도 덜 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식은 절약을 실천하는 영적 학습입니다.

9. 어디에든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단식할 때 일상생활이 완전히 바뀐다는 점을 보면 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활 방식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체계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새로운 규칙에 순응하여 행동합니다. 이를 통해 현명한 적응 감각과 예기치 않은 곤경을 이겨낼 수 있는 자발적인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건설적 적응력과 용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단식이 지닌 효과를 인식할 것입니다.

10. 심신 단련과 건강한 생존의 기초를 닦아줍니다. 라마단 달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또 매년 규칙적으로 단식하는 사람은 고도의 훈련을 통해 질서의식을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위를 쉬게 하여 소화기관을 이완시키면, 소화기관의 혹사로 인해 신체와 영혼에 끼치는 여러 가지 해로운 점을 예방할 수 있

습니다. 이 휴식을 통해 신체는 평소 무질서와 해로운 섭취에서 벗어나고, 영혼은 순수하고 평화롭게 빛나리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11. 하나님과 법 앞에 평등, 사회적 소속감, 형제애와 화합을 진작시킵니다. 이러한 정신은 단식을 하는 사람이 전체 무슬림 사회의 일원으로, 같은 방식, 같은 시간, 같은 동기, 같은 목적을 위해 같은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을 의식하는 데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역사를 돌아보아도 이에 견줄만한 제도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사회적 소속감, 화합, 형제애, 평등을 외치기는 했지만, 이러한 외침의 반향은 미미했고 성과 역시 보잘것 없었습니다. 만약 이슬람이 인도하지를 않았다면 사람들은 어디서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12. 안정과 자제, 인간의 소중한 가치와 자유의 보존, 승리와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단식을 제대로 하면, 이런 결과를 생생하게 만날 것입니다. 자제력이 늘고, 정욕을 다스리며 욕망을 훈련하고 모든 악의 유혹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로써 자신을 안정시키고, 소중한 가치와 성실성을 회복하며, 악의 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모든 것을 달성하면 마음의 평화를 이룬 것이고, 마음의 평화는 하나님과 결과적으로 온 우주와 영구적인 평화를 이루는 원천입니다.

일부 독자는 이의를 제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슬람 단식 제도

가 그런 것이라면, 또 그것이 이슬람의 실제 모습이라면 무슬림은 유토피아에 살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무슬림은 오래 전 유토피아에 살았던 적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무슬림이 실현한 유토피아는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업적이었습니다. 유일무이하다는 것은 이슬람 외에 어떤 종교나 사회제도도 이런 이상을 실현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나 사회제도의 유토피아는—때로는 분명하지만 때로는 막연한, 때로는 가깝지만 대부분이 요원한—이론이나 소망 혹은 꿈의 범주에 머물렀지만, 이슬람의 유토피아는 실제로 실현되었고, 잠재력을 활짝 펼친 모습으로 존재했습니다. 이는 실천적 의미에서 이슬람의 유토피아를 지상에서 재현할 수 있고, 그것도 확고한 기초와 현실에 적용 가능한 원칙 위에 세울 수 있음을 뜻합니다.

오늘날 이슬람의 이상향이 건설되고 있지 못한 여러 이유가 있지만 쉽게 설명 가능합니다. 그러나 논의를 단식으로 한정하자면, 많은 무슬림이 불행하게도 단식을 하지 않으며,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단식을 하면서도 대다수가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단식을 하면서도 거의 혹은 전혀 유익함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무슬림이 단식의 이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슬람 단식에만 그런 장점이 있는 게 아니라 유대교의 유월절, 기독교의 사순절, 간디 방식과 같은 다른

유형의 단식도 마찬가지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째서 무슬림은 이슬람 단식에 대해서만 독단적 주장을 펴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 중 누구 하나라도 비방하거나, 진리를 배척하거나, 신성한 종교를 왜곡하는 것은 무슬림인 우리의 종교적 원칙과 윤리에 어긋납니다. 이런 무책임한 죄를 거리낌 없이 범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무슬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저급한 논리 아니 부도덕에 빠지면 사실상 이슬람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단식 제도가 이슬람 역사만큼 오래된 것이며, 하나님이 무슬림에게 이런 제도를 처방했듯이, 이슬람 이전 사람들에게도 나름의 단식 제도를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다른 단식 유형의 정확한 형태와 방식을 알지 못합니다. 진실을 밝히고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슬람의 제도를 다른 유형의 단식 제도와 비교해 주장을 실증해보겠습니다.

여러 종교 간 단식 비교

1. 다른 종교나 교리, 철학의 경우 단식하는 사람은 특정 종류의 음식물이나 물질을 삼가지만 그 대신 역시 물질적 성격을 지닌 다른 것을 섭취하여 마음대로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의 경우에는 영적 기쁨과 도덕적 자양을 얻기 위해서

물질적 성격을 지니는 음식, 음료, 흡연 등을 삼갑니다. 무슬림은 물질을 전혀 섭취하지 않고 공복 상태를 유지합니다. 영혼을 평온과 축복으로, 마음을 사랑과 공감으로, 영혼을 경건과 신앙으로, 정신을 지혜와 결의로 채우기 위함입니다.

2.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 단식의 목적은 항상 부분적입니다. 영적 목적이나 신체적 필요 혹은 지적 수련을 위한 것이지, 결코 이 모두를 함께 포용한 목적으로 하는 단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슬람의 단식은 영적·신체적·지적 목적뿐 아니라, 다른 여러 목적, 즉 사회·경제·윤리·인도주의·개인·집단·내면·외면·지역·국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3. 다른 종교의 단식은 어떤 물질을 부분적으로 삼가는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지만, 이슬람에서 단식은 이 외에도 헌신과 숭배, 자선과 꾸란 연구, 사교성과 활기, 자기 수양과 양심의 자각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단식하는 무슬림은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됨을 느낍니다. 내면과 외면 모두가 순수하고 깨끗해지며, 영혼이 투명해져서 완전에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4. 우리가 아는 한, 또 일상 경험을 근거로 판단하건대, 다른 윤리학이나 종교에서는 세속과 인연을 완전히 끊지 않는다면, 윤리적 목표에 도달하거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세속적 모든 관심사와 결별하여 인간의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며, 단식에 수반되는 고

행이나 엄격한 수도생활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삽니다. 이런 방식의 단식은 정상적인 생활을 등진 굴욕적인 은둔 생활을 감추기 위한 구실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단식은 실생활과 결별이 아닌 행복한 동반이며, 은둔이 아닌 영적으로 무장한 돌파이고, 일상의 등한시가 아닌 윤리적 무장입니다. 이슬람 단식에서 종교는 일상과 결별하지 않으며,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깨뜨리지 않고 조화되고, 풀어지지 않고 배어들며, 해체하지 않고 메우고 채우는 것이 바로 이슬람의 단식입니다.

5. 이슬람 단식 시간표도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단식 시기가 일 년 중 어느 때로 고정되어 불변하는 경우와 달리, 이슬람 단식 시기는 아홉 번째 달인 라마단 달에 옵니다. 이슬람력은 태음력인데 달의 경과는 달의 위상변화에 따릅니다. 이 경우, 이슬람 단식은 각 연도에 걸쳐 일 년 사계절을 포함하고, 가을과 봄을 거쳐 여름과 겨울 사이를 순환합니다. 음력의 성격상 라마단 달이 어느 해에는 양력 1월일 수도 있고, 또 어느 해에는 양력 8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두 해에 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영적 의미에서 보면, 무슬림이 다양한 환경에서 단식의 윤리적 경험을 하고, 상이한 기후와 상이한 계절, 때로는 낮이 짧고 추운 겨울에, 때로는 낮이 길고 무더운 여름에, 때로는 그 사이에서 영적 묘미를 느낀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경험의 다양함은 이슬람 제도의 활기차고 인상적인 특징입

니다. 이는 또한 무슬림에게 끊임없는 준비성·역동성·적응력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확실히 이슬람의 가르침을 구성하는 건강한 요소이자 주목할 점입니다.

단식 기간

이미 설명했듯이 단식 의무기간은 이슬람력 9월인 라마단 달입니다. 하루의 단식 기간은 동트기 전에 시작해서 해가 떨어진 직후에 끝납니다. 보통은 라마단 달의 시간을 알려주는 달력이 있지만, 이런 달력이 없을 때는 태양의 위치로 확인하거나 지역 신문, 기상대 발표, 시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참고합니다.

라마단 달 단식은 건강한 무슬림 모두의 의무입니다. 이외에도 선지자 무함마드의 말씀에 따라 단식을 권하는 때도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욕일 그리고 라마단 달이 도래하기 전 두 달, 즉 라잡Rajab과 샤아반Sha'ban 달에 며칠을 선택해 단식하고, 라마단 달 단식이 끝난 후 6일째 되는 날에도 단식합니다. 무슬림에게 단식이 금하는 날인 이드 축제일과 금요일을 제외한 일 년 중 언제 단식하든 항상 보상이 따릅니다.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라마단 단식(달의 위상에 따라 29일~30일)만이 의무적 단식입니다. 라마단 단식은 이슬람 신앙의 기둥입니다. 합당한 사유 없이 단식하지 않는 것은 중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단식이 사람에게 베푸는 바를 아시기에, 맹세를 깨는 사람에게

대안으로 3일간 추가 단식을 명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슬람 이전 그릇된 관습으로 아내를 거부한다고 선언한 사람은 스스로 저지른 경솔하고 무책임한 언동에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데, 이를 속죄하려면 두 달 동안 단식을 해야 합니다. (꾸란 2:183 – 185, 5:92, 58:1 – 4)

진지한 맹세를 깨는 데 대한 속죄로 가난한 사람 10명을 먹이고 입혀야 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노예를 해방시키거나 몸값을 치르고 노예를 풀어 줘야 합니다. 그것조차도 안 되면, 마지막 대안으로 3일간 단식을 해야 합니다.

이슬람 이전 나쁜 관습대로 말을 경솔하게 하여 죄지은 자의 첫 번째 의무는 노예를 해방시키거나 몸값을 치르고 노예를 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럴만한 여유가 없으면 아내와 다시 관계하기 전 두 달 동안 계속해서 단식해야 합니다. 단식할 수 없으면 60명 혹은 식사 60인분을 가난한 사람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처리 곤란한 일을 대신해 단식을 요구하거나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꾸란 58:1 – 4, 비교 2:196)

누가 단식해야 하나

라마단 달 단식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무슬림 모두의 의무입니다.

1. 정신과 신체가 건강할 것
2. 성년과 사춘기 이상 분별 연령에 달해 있을 것. 이 나이가 되

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쉬운 데서부터 좋은 습관을 시작하도록 권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사춘기에 달할 때, 정신적으로 단식을 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3. 주 거주지에 머물러 있을 것

4. 단식으로 인한 일반적 배고픔, 목마름을 넘어서는 정신적·신체적 손상이나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다음 무슬림은 단식에서 제외됩니다.

1. 사춘기에 이르지 않은 어린이

2. 행위에 책임이 없는 정신이상자

여기까지 두 부류의 무슬림은 단식의 의무에서 제외되며 아무 제재가 없습니다.

3. 단식의 어려움을 견디기 힘든 노인도 제외되지만 매일 적어도 한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단식을 할 수가 있을 때는 지켜야 하며, 단식하지 못하는 날에 음식을 대접합니다.

4. 단식을 하면 건강이 악화될 염려가 있는 환자: 병환 중에는 단식을 연기하고 나중에 빠진 날만큼 보충합니다.

5. 여행 중인 사람: 여행 중에만 일시적으로 단식을 멈추고, 빠진 날만큼 나중에 보충합니다. 그러나 꾸란의 언급대로 특별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한, 될 수 있는 대로 단식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6. 임산부와 수유기 산모: 단식으로 자신과 유아 건강에 해로울 염려가 있는 경우 단식을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빠진 날만큼 단식을 보충해야 합니다.
7. 생리 기간(최장 10일)이나 산후조리 기간(최장 40일) 중인 사람: 이런 경우는 설사 단식할 수 있거나 하기를 원하더라도 단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복할 때까지 단식을 연기했다가 다음에 빠진 날만큼 보충합니다.

이슬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그러하듯 단식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와 행동한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라마단 달 단식 중 고의로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거나 또는 부부관계를 갖거나 무엇이든지 입을 통해 몸 속으로 들어가면 그날 단식은 무효입니다. 합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이런 행위를 하면, 벌로 60일 동안 계속해서 단식하거나 단식이 무효가 된 날 수만큼 단식을 하는 외에 가난한 사람 60명에게 음식을 베풀어야 합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 위에서 언급한 정당한 사유로 단식을 중단하는 경우, 당사자는 나중에 빠진 날만큼 단식을 보충해야 합니다. 누구든 실수로 단식을 어긴 경우,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깨달은 순간 곧바로 멈추면 단식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라마단 달 단식을 마친 후에는 단식 종료 자선(싸드까뚤 피뜨르 Sadqatul Fitr), 즉 특별 자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단식 시 권고 사항

선지자 무함마드는 라마단 기간 중에 다음 습관을 지키도록 강조하고 권고하셨습니다.

1. 동트기 전에 가벼운 식사를 할 것—이것을 수후르 suhoor라고 합니다.—
2. 해가 떨어진 직후 대추야자를 먹고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기도드릴 것

"저희는 하나님을 위해 단식했으며, 이제 당신께서 주신 음식으로 단식을 마칩니다."

3. 가급적 식사는 가볍게 할 것—선지자 무함마드가 말했듯이 사람이 채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나쁜 것이 위장(胃臟)이기 때문입니다.—
4. 따라위 Taraweeh로 부르는 특별 예배를 드릴 것
5. 서로 방문하여 교제를 나누고 인도주의적 봉사에 힘쓸 것
6. 꾸란 공부와 낭송에 더욱 힘쓸 것
7. 최선을 다해 인내하고 겸손하게 행할 것
8. 오감과 정신 특히 말을 조심하고, 부주의한 잡담을 삼가며, 수상쩍은 거동은 모두 피할 것

구빈세 (자카, Zakah)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이슬람 제도이자 이슬람 신앙의 기둥은 구빈세(자카Zakah)입니다. 다른 언어에는 꾸란의 '자카'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쉽게 '구빈세'로 표현하겠습니다. 구빈세는 자선의 일종이나 희사 혹은 세금이나 십일조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단지 호의의 표시도 아닙니다. 구빈세는 이 모두의 의미를 합한 것 이상입니다. 자기 재산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영혼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투자입니다.

구빈세는 자발적 기부가 아닙니다. 특정인이나 대의명분을 위한 모금도 아닙니다. 약삭빠르게 안 내고 빠져나갈 수 있는 세금도 아닙니다. 구빈세는 사회 전체를 위해 하나님께서 명하고 무슬림이 떠맡은 의무입니다.

꾸란에서 '자카'라는 말은 자선, 희사, 헌금, 호의, 국세, 자발적 기부 등의 의미를 포함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영적·윤리적 동기를 아울러 내포합니다. 이것이 자카에 상당하는 말이 없는 까닭인데, 이런 특징은 하나님의 책, 꾸란의 비할 데 없는 독창성에서 연유합니다.

문자적 의미로만 보면 자카는 단순히 '청결', '순수'를 의미합니다. 이 말의 현실적 의미는 재산을 가진 무슬림이 정당한 수혜자에게 분배해야 하는 물품이나 현금의 액수를 가리킵니

다. 하지만 자카의 종교적·영적 의미는 이보다 더 심오하고 한 층 생생합니다. 자카의 인도주의적·사회정치적 가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빈세의 광범위한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빈세는 개인 재산을 정화합니다. 구빈세의 몫—더 이상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몫—을 공제하여 정당한 수혜자에게 분배해 재산을 깨끗하게 정화합니다. 구빈세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재산의 일정 비율을 지체 없이 분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유자에게 더 이상 그 몫에 대한 도덕적·법적 소유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빈세를 내지 않는다면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윤리적·영적 관점에서 보나, 법적·상업적 관점에서 보나, 어느 모로 봐도 부패이며, 명백한 횡령입니다. 불법적으로 소유한 몫 때문에 전체 소유물이 부정되고 위태롭게 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 몫을 정당한 수혜자에게 고루 분배하면 나머지 재산도 깨끗하고 떳떳해집니다. 깨끗한 자본과 떳떳한 재산은 영구적인 번영과 공정한 거래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2. 구빈세는 수여자의 재산을 정화할 뿐 아니라, 이기심과 재산에 대한 욕심을 없애 수여자의 마음도 정화합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구빈세는 질투와 시기, 미움과 불만을 없애 수혜자의 마음도 함께 정화하고, 수여자에 대한 선의와 따뜻한 호

의를 마음속에 심어 줍니다. 그 결과, 사회 전체가 정화되어 투쟁과 의혹, 악한 감정과 불신, 부패와 분열 그리고 이런 류의 모든 해악에서 해방됩니다.

3. 구빈세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회구성원의 고통을 최소한으로 덜어 줍니다. 불운한 사람에게 큰 위안이 되고, 모든 사람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재산을 늘려가는 계기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구빈세의 기본적인 성격이 비상조치라는 사실과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신도 남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수여자는 구빈세가 염두에 두고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은 재산을 쌓아야 합니다. 구빈세는 모든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보상이 풍부한, 영적인 투자가치 있는 공개된 보물입니다.

4. 구빈세는 이기적 탐욕, 사회적 불화, 파괴적 이데올로기 침투를 막아내는 건전한 방위 수단입니다. 수여자에 대한 선의와 따뜻한 호의를 마음속에 심어 줍니다. 수여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수혜자에게는 사회에 대한 신뢰와 소속감을 주는 효과적 수단입니다.

5. 구빈세는 개인과 사회가 서로 화답하여 상호 작용하는 영적·인도주의적 정신을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이슬람이 개인 기업을 막거나 사유 재산을 죄악시하지는 않는 동시에 이기적이고 탐욕적 자본주의에 관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구빈세가 실증하고 있습니다. 구빈세는 개인과 사회, 시민과 국가, 자본과

사회, 물질과 영성 사이에 균형을 지키면서 적극적이고 현실적 노선을 걷는 이슬람 철학의 표현입니다.

구빈세의 몫

한 해를 마무리하며 계산한 재산이 현금이나 상품으로 약 오백만 원(금 85g) 이상 가진 모든 무슬림은 재산의 2.5% 비율로 구빈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 액수가 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간단합니다. 그러나 소유 재산이 증권이나 상품이면 매년 말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최소한 재산 총액의 2.5%의 비율로 구빈세를 내야 합니다. 건물 임대 같은 부동산이나 산업 부문에 투자한 경우, 구빈세율은 재산 총액이 아닌 총 순수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팔려고 내놓으면, 구빈세율은 재산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가 신용할 만한 경우 빌려준 금액을 재산에 포함합니다. 이 역시 확실한 자기 재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농축산물도 구빈세 의무 대상입니다.

어느 경우에나 기억해야 할 것은 구빈세는 차감 순잔액에 대해서만 지불한다는 점이나 개인비용, 가족 용돈, 필요 경비, 이행기채무(履行期債務)를 먼저 모두 지급하고 나서, 차감순잔액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2.5% 비율이 최소한도라는 사실입니다. 긴급사태가 발생하거나 구호가 필요한 경우, 구빈세율에 한계가 없습니다. 많이 베풀수록 당사

자 모두에게 더 좋습니다. 구빈세로 내야 할 몫은 경우에 따라 다르며 이슬람법을 다룬 구체적인 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구빈세로 모은 기금은 일반적인 사회 기금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구빈세 기금은 다른 모든 기금에 우선합니다. 그리고 국가에 내는 세금이 구빈세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빈세는 특별한 의무로 국가에 내는 세금과는 별도로 내야 합니다. 반면, 구빈세 납부로 세금 공제를 받는 것은 허용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슬람 통치의 역사에서 구빈세를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슬람 제국 민중(무슬림, 기독교인, 유대인) 모두의 필요를 충족할 만큼 가진 것이 충분했기 때문에 거둬들인 구빈세를 국고에 보관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구빈세 법이 올바로 시행되면 가난하거나 빈곤한 사람이 없고 막대한 잉여금마저 생길 정도로 국민에게는 부족한 것이 극소화되고 국고는 넉넉해집니다.

구빈세가 지닌 공익적 기능의 핵심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내린 명이자 법이라는 데서 기원합니다. 이는 사적인 문제이거나 자발적인 기부가 아니라, 당사자가 하나님께 직접 책임지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구빈세는 하나님이 공익을 위해 친히 세운 법이기 때문에 무슬림이라면 결코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구빈세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시민을 대변하는 관계 당국이 제도를 확립하고 시행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구빈세의 정당한 수혜자

꾸란은 구빈세의 정당한 수혜자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1. 가난한 무슬림: 그들 고통을 덜기 위해
2. 빈곤한 무슬림: 자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3. 새로 입교한 무슬림: 자리를 잡고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해
4. 무슬림 전쟁포로: 자유를 되찾기 위한 몸값을 치르기 위해
5. 빚진 무슬림: 급한 사정으로 진 빚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6. 구빈세 징수를 관리하는 무슬림: 급여를 지불하기 위해
7. 이슬람 연구, 학업, 전파, 보급 등으로 하나님의 대의에 봉사하는 무슬림: 이들에 대한 몫은 비용을 충당하고, 봉사를 계속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8.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무슬림 여행자

구빈세의 정당한 수혜자는 연말에 재산을 셈했을 때 오백만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오백만 원 이상이 되면 구빈세의 수혜자가 아니라 수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혜자는 자기 몫을 받아서 시급한 필요에 충당하고, 오백만 원 이상 남는다면 더 이상 받아서는 안 됩니다. 받자마자 자격이 있는 다른 수혜자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구빈세는 앞서 설명한 정당한 수혜자에게 직접 분배할 수도 있고, 이들을 돌보는 기관이나 단체에 낼 수도 있습니다. 총망하고 유망한 학생이나 연구자에게 장학금 형식으로 낼 수 있

고, 이런 대의명분을 후원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보조금 형식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구빈세의 수혜자로는 무능력하거나 병약한 무슬림이 능력 있고 다만 얼마라도 벌 수 있는 무슬림보다 더 적격입니다. 수여자는 최선의 판단으로 가장 합당한 수혜자를 찾아야 합니다.

수여자는 구빈세 의무를 이행했다고 자만하거나 남의 이목을 끌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의무를 이행할 때는 되도록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선행을 전부 무효화시키는 위선이나 허영의 제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밝히거나 기부했다는 것을 알려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와 자극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순례 (핫즈, Hajj)

핫즈는 성지 순례를 뜻합니다. 이는 이슬람 신앙의 기둥이자 여러 의미를 담은 훌륭한 제도입니다. 적어도 평생에 한 번 하는 순례는 정신적·재정적·신체적 능력을 갖춘 무슬림 모두의 의무입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이 되고, 건강이 양호하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무슬림은 적어도 일생에 한 번 순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재정적으로 안정되었다는 말은 순례 여정이 끝날 때까지 자신과 가족 그리고 자신에게 딸린 사람의 비용 모두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빚을 진 경우에는 빚을 갚을

수 있을 만큼 재산이 충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순례의 여정은 이슬람이 지닌 또 하나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목적을 위해 이를 명했는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례는 서로를 알고, 공통의 문제를 연구하며, 전체적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전 세계 무슬림이 만나는 연례 최대 신앙집회입니다. 또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정기적 평화회의입니다. 순례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영혼이 평화를 이루어야 하며, 무슬림과는 물론, 동물과도 평화를 이루어야 하고, 새 심지어 곤충과도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타인이나 형태를 불문한 다른 생명의 평화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합니다.
2. 이슬람의 보편성과 무슬림의 형제애, 평등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사회 각계각층,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해 메카로 모입니다. 모든 무슬림은 똑같이 간편한 옷을 입고, 같은 규정을 지키며,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같은 목적을 위해, 같은 기원을 드립니다. 왕이 따로 없고, 하나님을 향한 모두의 충성이 있을 뿐입니다. 귀족이 따로 없고, 겸손과 헌신이 있을 뿐입니다.
3. 하나님께 한 서약을 굳건히 하고, 물질적 이익 추구를 버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합니다.

4. 순례자는 선지자 무함마드의 영적·역사적 환경을 돌아보며 뜨거운 감화를 받고 신앙심을 굳건하게 합니다.
5.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행한 신성한 의식을 기념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은 지상 최초의 하나님 성전, 메카 카아바를 처음 순례했습니다.
6. 최후 심판날 열릴 큰 대회를 연상케 합니다. 이 날 모든 사람은 인종이나 혈통에 관계 없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서서 마지막 운명을 기다릴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 시대부터 일신교의 중심지였고, 마지막 때까지 변함없이 순수한 일신교인 이슬람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오직 메카만이 하나님에 의해 성역화되었음을 상기시킵니다.

순례를 수행하는 동안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도덕적으로 재무장하는 여정이며, 열렬한 헌신과 수련의 여정이고, 인도주의적 관심과 고무적인 깨달음의 여정임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슬람의 순례 제도 속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순례 기간 중에 따라야 하는 규칙과 단계를 설명하자면 이야기가 길어지므로 여기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는 순례를 상세하게 다룬 책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순례 여행을 가다 보면 항상 박식한 안내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순례자는 이들로부터 올바른 설명을 친절히 들을 수 있습니다.

헌신의 전 여정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무슬림이 메카에 가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이지, 돌을 만지거나, 위인을 숭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카아바의 흑석을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일은 의무나 필수가 아닙니다. 흑석이 신성하거나 거기에 어떤 미신적 속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만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 입니다

카아바를 개축하며 기초에 흑석을 놓았던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한 사랑의 상징으로 흑석에 입을 맞추거나 만지고 가리킬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무함마드는 평화를 가져오는 중재자로 등장합니다. 이슬람이 도래하기 수년 전, 카아바를 개축할 당시 흑석을 기초에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흑석을 누가 제자리에 놓는 영광을 차지하느냐를 놓고 각 부족장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해져서 성역에는 내분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흑석은 돌 덩어리에 불과했지만, 부족장들은 이를 극진하게 숭상했기 때문입니다. 이 흑석은 고대에 건축한 대사원의 유물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실체였기 때문에 그런 숭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숭상에도 불구하고, 이 돌은 이슬람과 무슬림에게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습니다. 부족장들은 스스로 논쟁을 해결할 수 없자, 맨 처음 그 장소에 온 사람에게 해결을 맡기기로 합의했

습니다. 선지자 무함마드가 맨 처음 온 사람이었습니다. 무함마드는 천 조각에 흑석을 싼 후, 논쟁자 모두에게 그것을 함께 들어서 제자리에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족장이 한 몫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무함마드의 현명한 결정을 흡족하게 여기고 즉시 그 말에 따라 옮겼습니다. 이것이 흑석 이야기에 내포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순례자가 흑석에 입을 맞추거나 손으로 가리키는 것은 경의의 표시로 현명한 중재자인 무함마드를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비교해서 설명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망명했다 귀국하는 애국자나 전쟁에서 귀환하는 군인이 사랑하는 조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감동에 겨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를테면 땅에 입을 맞추거나 맨 처음 만나는 동포와 감정이 북받쳐 포옹하거나 조국의 이름이 쓰인 안내판을 보고 감동합니다. 이런 행동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국자나 군인이 그런 행동을 한다고 땅을 숭배하거나 자기 동포를 신격화하거나 안내판에 신적인 속성이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례자의 행동도 이와 같습니다. 메카 카아바는 이슬람의 영적 중심지이자 모든 무슬림의 영적 조국입니다. 순례자가 메카에 가면, 망명했다 귀국하는 애국자나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개선하는 군인과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이는 비유적인 해석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역사에 있었습니다.

초기 무슬림은 하나님 성전인 카아바에서 예배할 권리를 빼앗기고 몇 년 동안 외국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망명에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카아바였습니다. 기쁨에 겨워 성전에 들어간 그들은 그곳에 있던 우상과 형상을 모두 부수고 순례 의식을 끝마쳤습니다.

다른 곳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헝가리 작가는 자기 나라가 침략당하자 흙 한 줌을 가지고 피난 갔습니다. 이 작가는 한 줌의 흙에서 가장 큰 위안과 가장 깊은 즐거움을 얻었다고 합니다. 흙 한 줌은 작가에게 격려의 원천이었고, 언젠가는 자유 조국으로 돌아가리라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겪은 체험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흑석에 관한 이야기는 이런 인간적 시각에서 보아야 합니다.

순례를 마치며

메디나Medina에 있는 선지자 무함마드의 묘소를 방문해야 순례가 완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슬림의 최대 스승인 선지자의 묘소를 찾아서 경의를 표하는 것은 메디나에 가는 사람 누구에게나 권할만한 일입니다.

기억해 둘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희생 제물을 바치고, 헌신의 여정 완성을 축하하는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만인이 누리는 이드 축제일의 기쁨을 함께 나눌 때, 순례는

절정에 달합니다. 이는 순례자뿐 아니라 전 세계 무슬림 모두의 의무입니다.

일부 무슬림은 희생제로 도살되는 동물이 너무 많아서 막대한 양의 고기가 낭비된다는 문제를 거론합니다. 날씨는 무더운데 냉동시설은 없고, 운송수단은 부족한 데다, 희생제를 치르는 며칠 동안 고기가 과잉 공급됩니다. 고기 대부분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상해버립니다. 이는 새로운 상황에서 비롯되는 문젯거리입니다. 양심적인 무슬림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 문제로 종교학자의 학문적 견해를 따져가며 토론을 벌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슬람이 종류나 정도 여하를 막론하고 낭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슬림은 보다 시급한 필요에 먼저 응하고, 나쁜 것은 보다 덜한 쪽을 택하며, 가장 중요한 것으로부터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또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것까지 우선순위에 맞춰 운용하고, 상황에 맞는 처신과 동시에 융통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할 해결책은 문자적 해석에서 다소 벗어나 보일 수도 있지만 이슬람의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 단계와 수준에서 이 해결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남은 고기를 저장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최선을 다해

확보하여 성역과 인근 가난한 사람들이 일 년 내내 그 고기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곳곳에 있는 가난한 무슬림에게 남은 고기를 보냅니다. 희생 동물을 메카에서 잡아서 고기 통조림으로 만들거나 냉동시켜 세계 각지 가난한 무슬림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셋째, 남은 고기를 팔아서, 지역·국가·국제 규모 자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슬림은 합심해서 이런 조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해결책을 시행하지 않고 주저하는 동안 남은 고기가 낭비된다면, 희생 제물을 바치는 날짜를 미루거나 앞당겨도 됩니다. 적절한 시기와 장소를 택해 낭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혹은 순례기간 중 메카에서 희생된 제물에 해당하는 돈을 자선 형식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생제와 그것이 상징하는 바에 관해 덧붙이겠습니다. 앞서 이드 축제일을 언급하며 지적했듯이,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일은 고기나 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선지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희생으로 바치라는 명을 듣고, 이를 기꺼이 따를 각오가 서 있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생명 대신, 양 한 마리가 희생되었습니다.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은 이때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축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아들에 관해서는 두 가

지 이론이 있습니다. 무슬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바치기로 한 아들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할 각오를 보이자, 하나님은 바로 명을 취소하고 양을 바치게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적어도 스무 가지는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거 중 어느 하나도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적 역할이나, 선지자 모세가 이들에게 전한 빛과 지혜를 흠잡으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꾸란이 그러한 점을 여러 곳에서 지적합니다. (꾸란 2:40, 2:47, 7:137, 17:2, 40:53, 45:16)

이에 관한 논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꾸란(37:101 – 103)에 계시된 사건 경위로 보아 하나님의 명에 응해 아버지가 희생으로 바치려 했던 아들은 이스마엘이 틀림없습니다.

2. 구약성서(창세기 21:5)에 의하면, 이스마엘은 아버지가 86세일 때 태어났고, 이삭은 아버지가 100세일 때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16:16) 그렇다면 14년 동안 이스마엘이 유일한 아들이었던 셈입니다. 구약성서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명합니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

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창세기 22:2, 표준새번역 성경)

이삭이 둘째 아들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외아들일 수 없습니다. 문맥상 이삭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삽입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모리아 땅이란 이슬람에서 해석하는 대로 메카에 있는 마르와 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사건이 일어난 곳은 메카 근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을 따라 메카로 가서 정착하고, 아브라함을 도와 카아바 성전을 세운 사람은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꾸란 2:124 - 130, 14:35 - 40)
4. 다음이 이슬람의 믿음과 대립하는 가장 중요한 논거일 것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해석에 의하면 다음 같은 부당한 결론에 이릅니다.
(1) 한 사람의 어머니는 노예고 다른 사람의 어머니는 자유인이라는 이유로 형제 차별
(2) 인종이나 교리로 차별
(3) 조상의 이름으로 영적 우월성 주장
(4) 어머니가 노예인 자식의 합법성 거부

이런 추정과 결론은 모두 이슬람 정신에 어긋납니다. 무슬림은

이런 추정과 결론 유도를 모두 배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상의 지위, 어머니의 귀천, 사회적 출신, 피부색 차이는 영적·인간적 자질과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렇습니다.

모두를 위한 이슬람

4장
신앙과 현실의 조화

4장. 신앙과 현실의 조화

이 장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이슬람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줍니다. 이슬람의 세계관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슬람은 그저 명목상 숭상하기 위해 만든 추상적 이론이거나, 특정 장소에만 틀어박혀 이따금 찾아오는 사람에게 숭배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슬람은 생활 규범이자, 생활 곳곳에서 드러나는 살아 움직이는 힘입니다.

이슬람에서 중요한 또 하나는 각 개인이 이슬람 혹은 이에 상당하는 다른 제도를 가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입니다. 이슬람이 항상 개인에서 시작하고 양보다 질을 우선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슬람이 시작하는 곳인 개인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본성을 고찰하고, 이슬람이 개인의 본성을 어떻게 여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철학적 논쟁이나 추상적 논의를 피하면서 명확히 표현하자면, 인간에게 아주 긴밀하게 서로 관련되고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는 두 가지 상호보완적 본성이 있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적 본성과 외적 본성입니다. 혹은 하나가 내면적이고, 다른 하나는 외면적인 두 부분이라고 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실제로는 한 가지 본성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내적 본성은, 루흐Ruh(영혼, 자아, 마

음)와 아끌Aql(지성, 추론, 사고)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내적 본성을 설명하자면, 다음 두 가지 면을 다루어야 합니다.

(1) 영적·윤리적 측면

(2) 지적 측면

나머지 사회적 활동은 외적 본성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인간이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내적 본성

1. 영적인 삶

이슬람에는 경건과 정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영적 자양분이 있습니다. 이를 사람에게 공급하도록 영적·윤리적 생활을 조직합니다. 이슬람의 영적 생활규정을 충실히 따른다면, 영적 성장과 성숙에 관한 한 가장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배

(2) 구빈세와 자선

(3) 단식

(4) 순례

(5)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목적과 진리,

인류 사랑

(6)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뢰와 소망

(7)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희생

이와 관련하여 이미 자세하게 거론했기에, 여기서는 이런 기본적 요소 없이 진정한 이슬람 신앙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부언하는 데 그치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잊은 독자는 책의 앞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지적인 삶

앞서 말했듯이, 인간의 지적 본성은 지성, 추론 능력, 사고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슬람은 이런 면을 고려하여 지적 구조를 튼튼한 기초로 세웁니다. 지적 구조의 기초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경험이나 실험 혹은 둘 모두를 통해 얻은, 명백한 증거나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근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깨달음

이 점에 관해, 꾸란이 실험과 관찰은 물론 경험을 통해 지식을 탐구하라고 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넓은 의미의 지식을 추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것은 무슬림 모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연과 온 세상은 끊임없이 지식과 진리를 계시하는 공개된 보물이며, 자연이 지식의 풍부한 원천이라는 사

실을 지적한 최초의 책이 꾸란입니다.

꾸란은 '전래되는 진리'라든가 증거와 근거로 실증하지 않고 주장하는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꾸란이야 말로 지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한 최초의 경전입니다. 주장에 대해 이유를 묻고, 주장을 뒷받침할 증명을 요구합니다. (꾸란 2:111, 21:24)

꾸란은 그 자체가 매우 특별한 지적 도전입니다. 꾸란은 인간 지성에게 꾸란의 진리와 겨루거나, 꾸란과 비슷한 것을 만드는 도전을 해보라 합니다. 꾸란의 어떤 장을 펼쳐보든, 자연이라는 무한한 원천을 통해 지식을 탐구하라는 호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지식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과 같으며, 그 보상도 가장 크다고 여깁니다.

(2) 두 번째 핵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야말로 지식의 끊임없는 원천이며, 생각의 모든 분야에 영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슬람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종교라는 이름의 건축물, 건물 전체의 초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유효하려면, 믿음을 확고한 신앙 위에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성을 적절히 써야 합니다. 침체하고 무관심한 정신과 빈곤한 상상력으로는 더할 수 없이 높은 하나님의 진리와 깊이 있는 신앙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슬람은 맹목적 모방이나 의문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믿음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이 점은 우리의 지적 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며, 꾸란은 거듭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초대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와 관련된 꾸란 구절을 그저 반복해 묵송만 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지성을 움직여 생각하며, 숙고하고, 명상하면서 지혜를 구하는데 꾸란 구절의 의의가 있습니다. 꾸란이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전달하지만, 마치 상속받은 사람처럼, 스스로 아무 노력 없이 빈둥거리는 행동을 하나님은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지하게 노력하고 정직하게 지적 재산을 쌓아 지적으로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슬람은 쉽게 얻은 신앙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이 바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효과적이고 영속적이며, 마음을 속속들이 비추고, 생활 곳곳에서 드러나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으로, 이슬람은 책임감 없는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탐구와 연구에 바탕을 둔 믿음을 요구하는 동시에, 지성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드넓은 사고의 장을 활짝 펼칩니다. 이슬람은 지식을 추구하여 시야를 확장하고 정신을 폭넓게 하려는 자유사상가에 아무 제한도 두지 않습니다. 이론적인 것이든, 실험적인 것이든 가리지 말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식을 추구하라 촉구합니다. 이슬람이 이렇게 지성

을 호소하는 이유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속박과 한계로부터 인간의 정신을 해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슬람은 인간의 정신을 계발하고 정신세계가 다루는 범위를 물리·형이상학·과학·철학·사회 등 모든 영역으로 확장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성을 강화하면서 지적 생활은 풍요롭고 생산적으로 됩니다. 이와 같이 이슬람의 가르침에 따라 영적·지적 활동을 조직할 때, 인간의 내적 본성은 건전하고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건전하고 튼튼할 때, 외적 본성 역시 건전하고 튼튼해집니다.

외적 본성

인간의 외적 본성은 내적 본성만큼 복합적이며 미묘하고 광범위합니다. 내적 본성의 건전성이 외적 본성의 건전성에 크게 의존하고, 그 반대도 성립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내외 양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인간의 외적 측면 즉 외적 본성의 구체적인 하위범주들을 거론하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 본성의 체계가 균형을 잃을 때 파괴적이고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즉 인간의 내적 본성과 외적 본성은 상호 작용·반작용하며, 이슬람은 생활 내면과 외면 모두에 거룩한 손길이 닿고 있습니다.

개인 생활

이슬람은 개인의 순수성과 청결을 유지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권하는 한편 예의에 맞는 복장, 품행, 치장, 운동 등을 이끌어 개인 생활을 인도합니다.

1. 순수성과 청결

무슬림은 몸이 깨끗한 상태에 있지 않는 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몸을 씻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깨끗이 함은 상태에 따라 부분적이 될 수도, 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슬림이 순수한 마음과 정신으로, 깨끗한 몸에 깨끗한 옷을 입고 순수한 동기와 의도로 하루에 다섯 번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행위가 인간에게 미치는 유익한 결과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참조, 꾸란 4:43, 5:7)

2. 식사

순수한 마음과 건전한 정신을 유지하고, 열망하는 영혼과 깨끗하고 건강한 신체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의 음식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슬람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배를 채워야 하는 인간에게, 먹고 마시는 것이 신체와 정신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적어도 이슬람에서는 그렇

게 보지 않으며, 이 문제를 아주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이슬람의 일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깨끗하고 좋은 것을 적당하게 섭취하는 한 모두 음식으로 적합
-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불결하고 해로운 것 섭취는 모두 부적합
- 항상 예외를 허용하는 여유와 융통성으로 절대적인 필요에 대처

(꾸란 7:157, 이슬람의 윤리 참조)

이러한 일반 원칙을 넘어, 하나님께서 금기로 지정한 음식과 음료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죽은 상태의 짐승에서 얻은 고기, 돼지고기, 하나님 이외의 다른 이름으로 도살한 고기 (꾸란 2:173, 5:4)
- 이슬람에서 인간의 정신, 도덕, 육체, 사기에 유해하다고 여기는, 꾸란 구절에서 금기로 한 음료, 취하게 하는 것 그리고 도박과 내기도 금하고 있습니다. (꾸란 5:90 - 91)

이런 음식과 음료를 금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마음 내키는 대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 또한 아닙니다. 이는 오직 인간에게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꾸란이 일부 불결하고 해로운 음식을 지정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윤리와 지혜, 건강과 재산, 경건과 일반 행동에 대해 면밀하게 관찰하고 계심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윤리적·지적·정신적·경제적으로 여

러 배려를 하시는데, 그 목적은 인간이 올바른 생활을 통해 자신을 향상시켜 가족, 더 나아가 사회, 궁극적으로는 인류 전체의 건강한 구성단위가 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과학으로 이러한 이슬람 규정이 인간에게 이롭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영적 건전성과 지적 성숙만큼이나 사람이 먹는 음식의 질에 대해서도 일관되고 비타협적 입장입니다. 어떤 음식은 앞서 말한 대로 섭취해서는 안 되며, 또 다른 음식은 어느 정도까지는 섭취해도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즉 무슬림은 적합한 것이라도 적당량만 섭취해야 합니다. 탐닉해서는 안 되고, 도에 지나쳐도 안 됩니다. (꾸란 7:31) 종류나 정도에 있어 금지된 모든 것을 피한 후에야 무슬림은 비로소 하나님께 초대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 양식을 즐기고, 자비로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꾸란 2:168,172, 5:90 – 91)

3. 복장과 치장

이슬람은 남성의 복장과 치장에 대해 겸손, 정숙, 품위, 남자다움이라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자다운 장점에 반하는 복장과 치장은 금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할 점은 과시하려는 오만한 마음과 자만, 허영을 자극하는 옷감과 차림새입니다. 이를 엄격하게 금합니다. 남성의 윤리를 떨어뜨리고 남자다움을 해치는 치장 역시 금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이 지정해 준

남자의 천성에 충실해야 하며, 나약하게 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것 모두 멀리해야 합니다. 이슬람은 남자가 비단 등의 옷감이나 금, 은, 보석으로 치장을 하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자의 천성에만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멋은 보석으로 멋을 내거나 비단옷을 입고 과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결한 덕성과 매력 그리고 건실한 품행에 있습니다. 이슬람이 남자에게 금하고 여자에게는 사용을 허락했다고 해서, 제한 없이 방종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여자는 천성에 어울리는 것을 허락받지만, 천성을 남용하거나 망칠 우려가 있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여자가 옷을 고르고, 아름답게 꾸미고, 길을 걷거나, 시선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슬람은 여성의 복지와 안전을 감안하여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 존엄과 순수를 유지하고, 험담이나 악의에 찬 소문 그리고 의심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남자와 여자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합니다. 꾸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이에게 말할 것이니, 시선을 내려 겸손을 지킨다면, 더욱 순수해지리라, 하나님께서 그대들 행동을 다 아시노라.
믿는 여인에게 말할 것이니, 시선을 내려 겸손을 지킬 것이오, 평상이 아닌 자태와 장신구로 과시하지를 말 것이며, 가슴을 가려 남편이나 아버지 등 가족 외에 자태를 드러내서는 안 되리니 ……

시선 끌려고 발을 굴러서도 안 될 것이며 ……”
(꾸란 24장 30 – 31절)

이슬람은 옷 차림새와 몸치장하는 방법에 민감합니다. 남자나 여자가 각자의 천성을 지켜 타고난 본능을 보호하고, 겸손과 고결한 윤리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합니다. 선지자 무함마드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자처럼 행동하는 남자들과 남자처럼 행동하는 여자들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은 무해하고 적절한 복장과 치장에 제한을 가하지 않습니다. 사실 꾸란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일컬어, 이를 금기로 여기는 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꾸란 7:32 – 33)

4. 스포츠와 오락, 음주와 도박

이슬람 경배방식 대부분, 예를 들어 예배나 단식, 순례 등이 영적 목적을 위한 것이지만, 흥미롭게도 스포츠와 비슷한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체력과 사기는 상보적 관계입니다. 스포츠와 오락에 대해 이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전한 사색을 자극하거나 정신을 상쾌하게 하고 몸의 생기를 회복시켜 건강

한 체형을 유지케 하는 것은 무엇이나 권장합니다. 다만 그것은 범죄 행위를 내포하거나 범죄를 유도할 소지가 없고, 해악을 끼치거나 다른 의무 이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선지자 무함마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선한 성격을 지니지만, 강한 성격이 약한 성격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무함마드는 체력을 키우고 사기를 돋우는 스포츠와 오락에 호의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포츠도 오락도 아닌데 이에 연관시키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박이나 음주를 스포츠나 오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이슬람의 견해가 결코 아닙니다.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으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삶을 남용하거나 전적으로 요행과 우연에만 의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에 권장 사항을 두는 것은 개인 권리 침해가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소중한 재산인 생명은 고귀한 목적을 지향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슬람은 인간이 올바르고 즐겁게 사는 길을 제시합니다.

도박 금지 역시도 이 같은 관점에서 취한 조치입니다. 도박은 긴장을 풀어 주기보다는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행과 우연에 기대는 것은 인생의 심각한 남용입니다. 도박 기계에 운을 걸거나 도박판의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에 능력을 바치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이같이 불필요한 정신적 긴장과

파탄을 미연에 방지하고, 목적은 물론 수단에서도 자연스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슬람은 모든 형태의 도박을 금합니다.

주벽과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것 또한 부끄러운 현실 도피이자 인간 최고의 자질인 지성에 대한 무책임한 모욕입니다. 술에 취해서 생기는 위험과 비극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 자세히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술과 알코올로 인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많은 가정이 붕괴합니다. 술 마시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고, 음주 습관이 불러온 곤궁과 불행 때문에 파괴되는 집안이 부지기수입니다. 게다가 건강도 잃고, 정신은 피폐해지며, 재산은 줄어들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존엄성이 훼손되고 윤리 의식은 희미해지며, 현실에서 도피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위해 술을 마신다는 사람도 알코올에 중독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슬람은 이런 위협과 삶의 비극적인 남용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이슬람은 도박과 음주를 스포츠와 기분 전환을 위한 오락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단호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의학 기사를 읽거나, 공공구호 단체를 방문하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참관하면, 이슬람의 견해에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회문제 중에서도 알코올 중독이 단연 심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자료에 의하면 중증 알코올 중독자가 155만 명을 넘었으며, 위

험군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이 1,110만 명이나 됩니다. 음주 행위로 발생하는 연간 사회적 비용은 23조 4천억 원으로 추정합니다. 구태여 통계 자료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 고통스러운 개인적, 사회적 비극과 손실은 누구나 아는 현실입니다.

가정 생활

가족에 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편의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 관계를 유대로 결속한 구성원이 이루는 사회 집단'이라는 정의를 택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유대관계는 구성원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 구성원은 서로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공유합니다. 가족 내에서 어린이는 정체성을 획득하고,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뿐 아니라 후일 가족의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대신 노인은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족의 평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슬람에서 가족의 기초는 혈연이나 혼인의 서약 혹은 두 가지 모두입니다. 양자, 상호 결연, 가솔(家率), 내연관계, 그리고 시험 결혼 등은 이슬람적 의미에서 가족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가족을 합당한 연속성과 진정한 안정성, 따뜻한 친밀감을 기초로 한다고 봅니다. 가족은 진심으로 서로 돕고 도덕적 만족을 주는 확고한 관계 위에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혈연관계가 가장 자연스러운 관계이며, 도덕적 만족이 포함된 부부관계가 가장 건전한 성생활이라 말합니다.

이슬람은 결혼의 종교적 미덕, 사회적 필요성, 도덕적 장점을 모두 인정합니다. 무슬림 개개인의 정상적인 행로는 가족을 지향하고, 가족을 꾸리는 것입니다. 혼인과 가족은 이슬람 제도의 핵심입니다. 선지자 무함마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결혼한 무슬림은 그로써 자기 종교의 절반을 완성한 것인즉, 하나님을 염원함으로 나머지 절반에 유념토록 하시오."

여러 무슬림 학자가 꾸란의 결혼관을 해석하고 내린 결론에 따르자면, 결혼은 종교적 의무이고, 도덕적 안전장치이며 사회적 약속입니다. 따라서 무슬림은 결혼을 종교적 의무로 행해야 하지만, 이슬람의 다른 의무가 모두 그렇듯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만 행할 일입니다.

1. 결혼의 의미

사람들이 결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상관 없이, 이슬람은 결혼을 강한 유대이자, 가장 완전한 의미의 위대한 약속으로 봅니다. 이는 삶 자체와 사회, 인류의 존엄하고 의미 있는 생존에 대한 서약인 동시에, 하나님과 결혼 당사자 서로에 대

해 한 서약입니다. 부부는 이 서약으로 상호 의무 이행과 자아 실현, 사랑과 평화, 동정과 평온, 위안과 희망을 확인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슬람에서 결혼이 의로운 행위이자 책임감을 지니고 헌신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성적 자제력은 도덕적 승리, 생식은 사회적 필요이자 사회에 대한 봉사, 건강은 기쁨 가득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 지니는 가치와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추구, 성스러운 축복과 함께할 때 특별한 의미가 있고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것이 이슬람에서 생각하는 결혼의 초점이 아닌가 합니다. 꾸란을 참고하면 결혼의 의미를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한 영혼에서 창조하시어, 다시 배우자를 만드셨으니, 그 둘로부터 남녀 자손이 탄생했노라."
(꾸란 4장 1절)

"하나님께서 그대로부터 배우자를 만드셨으며, 그 부부로부터 자식과 손자들을 낳게 하셨노라."
(꾸란 7장 107절)

"하나님의 징표 가운데, 그대로부터 배우자를 만들어 평안하도록 하시며, 그대 사이에 사랑과 공감을 채우셨으니, 진정 생

각하는 이들을 위한 징표가 담겨있노라."
(꾸란 30장 21절)

결혼 생활이 어려운 시련기에 부딪히더라도, 또 법적 분쟁과 소송 와중에서도 꾸란은 부부에게 하나님의 법을 상기시킵니다. 꾸란은 이들에게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용서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충실하도록 명합니다.

이슬람의 결혼 규정이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를테면, 남성에게 금욕을 권하지 않는다면, 여성에게도 마찬가지로 금욕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성의 욕구도 마찬가지로 정당하며,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혼은 여성에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이지만 결혼은 여성에게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경제적 거래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슬람이 중시하는 결혼의 요소 중 경제적 요인은 비중이 가장 작습니다.

선지자께서는 '아내를 맞이할 때 여자의 재산이나 미모, 집안, 종교를 고려하는데 그중 무엇보다도 독실한 신앙으로 선택하는 이가 가장 복 받는 행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앞으로 아내가 될 여자에게 주는 결혼 예물은 여자의 소유가 되며, 결혼 전후에 받은 것 역시 모두 여자의 소유입니다. 부부의 재산 공유는 필요 없습니다. 더구나 가족의 부양

과 경제적 안정에 대해 책임이 있는 쪽은 남편입니다. 심지어 남편은, 아내가 결혼 전에 남의 시중을 받았다면 결혼 후에도 그렇게 해주어야 합니다. 몇몇 학자에 견해로는, 아내는 매일 되풀이되는 집안일에 매달려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협동이나 절약 등의 이유로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통상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2. 결혼의 영속성

이슬람은 결혼을 매우 중대한 서약으로 보기 때문에, 결혼의 유대를 영속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수단을 규정했습니다. 결혼 당사자는 적정한 연령, 전체적인 조화, 자유로운 동의, 적절한 분별이라는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결혼을 할 때, 일시적이지 않은, 영원한 결합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이슬람은 시험 결혼과 기한부 결혼 그리고 실험적이거나 일시적, 임시적 성격을 띠는 결혼은 모두 금합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를 자주 바꾸는 사람, 즉 얼마 동안은 한 배우자를 즐기다가 다른 배우자로 바꾸는 식으로 '맛만 보는 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저주를 받는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의 영속성을 주장하는 것이 곧 결혼이 해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꾸란은 무슬림을 '중용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이슬람이야말로 '중용의 종교'이며, 균형과 통합을 잘 이룬 제도입니다.

이는 결혼의 경우에서 특히 분명합니다. 결혼을 성례(聖禮)나 일반적인 서약으로 나누어 보지 않습니다. 이슬람에서 결혼은 성례와 서약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독특한 것입니다. 결혼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유대가 아니지만, 해체가 불가능한 결합도 아닙니다. 결혼을 다룰 때도 공정하고 현실적인 중용의 길을 걷습니다. 결혼은 중대하고 영속적인 유대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결혼이 제구실을 못 하는 이유가 타당하면 호의와 명예를 견지하며 공정하고 평화롭게 끝낼 수 있습니다

3. 남편과 아내 관계

배우자 선택에서 독실함을 기준으로 삼고, 결혼에 필요한 요소를 성실히 충족한다면, 틀림없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슬람은 여기서 더 나아가 부부의 품행을 안내합니다.

꾸란과 선지자의 언행록에는 친절과 공정, 연민과 정, 사랑, 동정, 이해심, 인내와 호의를 명하는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자기 가족에게 친절한 사람이 훌륭한 무슬림이며, 인생에 있어 가장 크고 복된 기쁨은 착하고 의로운 아내라고 단언합니다.

결혼식을 마치면 부부는 각각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각 역할은 공정하고, 비례적인 여러 권리와 의무입니다. 남편의 역할은 인내심을 가지고 아내를 친절하고 명예롭게 대하

여, 악의나 슬픔을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남편의 엄숙한 의무입니다. (꾸란 2:229 – 232, 4:19) 아내의 역할은 다음 꾸란 구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도 권리가 동등하지만, 남성에게 몫이 더 있느니라." (꾸란 2장 228절)

일반적으로 무슬림 학자들은 지위에 관한 이 구절을 다른 구절과 연계해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여자보다 뛰어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남자가 자기 재산으로 여자를 부양하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의 수탁자, 후견인,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꾸란 4:34) 이러한 차이는 분업과 역할 분화에 따라 가정 내에 생긴,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수단적 리더십' 혹은 외적 권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차별이나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1) 아내의 권리: 남편의 의무

윤리원칙이 행위규칙으로 구체화하면, 이에 따라 권리와 상응하는 의무가 따릅니다. 꾸란과 언행록에서 여성에게 친절하도록 명했으므로, 아내와 화합하여 공평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남편의 의무입니다. 이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남편은 아내를 부양할 책임을 전적으로 집니다. 부양 의무를 기꺼이 이

행하되, 나무랄 데 없어야 하며, 아내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생색내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부양 내용

부양은 의식주를 비롯한 전반적인 보살핌과 안녕 등 아내의 당연한 권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주거 환경은 아내에게 합리적 수준의 개인 생활과 안락, 독립을 유지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아내의 안녕과 결혼 생활의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거뿐 아니라 의복, 음식, 전체적인 보살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재산과 아내의 생활양식에 맞춰 보살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무절제해서는 안 되지만 인색해서도 안 됩니다.

물질외적 권리

물질적 권리만이 아내의 안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윤리적 권리가 있고, 이 또한 구속력이 있으며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남편에게 아내를 공평하게 대우하고 감정을 존중하며, 친절과 이해심을 보이라 명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혐오해서는 안 되며, 아내가 불안과 의심을 느끼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규정의 당연한 결과로, 남편은 아내에게 고통을 주거나 자유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거나 애틋하지 않다면, 아내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그 누

구도 아내의 새로운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2) 아내의 의무: 남편의 권리

결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아내가 지켜야 할 주된 의무는 가급적 결혼 생활을 원만하고 행복하게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안락과 안녕에 주의를 기울이고, 남편을 화나게 하거나 남편의 기분을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의 꾸란의 말씀은 핵심을 지적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눈에 위안이 될 부인과 자식을 베푸시고, 정의를 이끌도록 해주소서."
(꾸란 25장 74절)

이것이 바로 아내가 따라야 하는 의무의 기반입니다 이러한 기초 의무를 이행하려면 아내는 충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임신을 고의로 회피하여 남편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또 전적으로 남편의 권리인 성관계를 타인에게 허락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 모르게, 남편 승낙이 없이 낯선 남자를 집에 들이거나 접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낯선 남자가 주는 선물을 남편의 허락 없이 받아서도 안 됩니다. 이는 질투, 의심, 험담 등을 피하고 부부 사이 모두의 결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남편의 재산은 아내의 책임입니다. 재산이 일부라도 아내가 관리하거나, 자금 등을 맡았을 때 슬기롭고 알뜰하게 아내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남편의 허락 없이 재산을 빌려주거나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성관계에 관해 말하자면,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보면 마음이 끌리도록, 매력적이고 섬세하며, 순응적이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꾸란은 부부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건강과 품위를 마땅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아내는 동침하고 싶은 생각이 가시게 하거나 만족을 빼앗을 여지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위를 하거나 자신을 소홀히 할 경우, 남편은 아내의 자유에 간섭하여 상황을 바로잡을 권리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최대한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남편 역시 아내의 만족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4. 부모와 자녀의 관계

(1) 자녀의 권리: 부모의 의무

자녀에 관한 이슬람의 일반적 관점은 몇 가지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어떤 자식이라도 부모 불행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명입니다. (꾸란 2:233)

둘째, 부모는 자녀에게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대해야 하

며, 자녀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꾸란은 부모의 과잉 보호나 무관심 양쪽 모두에 책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셋째, 꾸란은 몇 가지 지침을 확립하고, 자녀에 관해 몇 가지를 지적합니다. 자녀가 자만의 근원, 허영과 허망의 씨앗, 고난과 유혹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다 큰 영혼의 기쁨을 강조하고, 부모에게 과신하거나 터무니없이 자만하게 하지 말고, 자녀가 저지를지도 모르는 비행을 방지하라고 경고합니다. 이런 입장이 가지는 종교적 윤리 원칙은 부모와 자녀를 막론하고 각 개인은 하나님께 직결되며, 자기 행위에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자녀가 부모를 사면할 수 없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대신 나설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슬람은 자녀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민하게 인식합니다. 자녀의 인격형성에 부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말하기를, 자녀는 모두 피뜨라Fitrah(이슬람의 순수한 자연 상태)라는 진정한 의미의 순수성을 타고나는데, 부모에 의해 유대교도, 기독교도 혹은 이교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특기할 만한 것으로 이들 지침에 의하면, 이슬람에서 양도불가능한 자녀의 권리는 생존과 동등한 삶의 기회를 누릴 권리입니다. 자녀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이슬람의 세 번째 계명입니다. (꾸란 6:151, 참조 17:23)

마찬가지로 양도 불가능한 또 하나의 권리는 자녀마다 오직 한 아버지만 있음으로 비롯하는 적출(嫡出)의 권리입니다. 사회화와 양육 그리고 전반적인 보살핌 속에서 자녀는 세 번째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자녀를 잘 보살피는 것은 이슬람에서 높이 칭송하는 규범입니다. 선지자는 아이들을 좋아했고, 무슬림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 사이에서 아이들에게 친절하다고 알려질 것이라는 확신에 찬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영적 복지, 교육 그리고 전반적 안녕은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선지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녀가 태어나면 7일 이내에 훌륭하고 호감이 가는 이름을 지어 주어야 하고, 머리를 깎고 아울러 건강하게 자라는 데 필요한 기타 위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태어난 날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축제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린이에 대한 책임과 애정은 사회적 관심사일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모의 생사나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또 부모를 알든 모르든 어린이에게는 최선의 알맞는 보살핌을 베풀어야 합니다. 부모가 없을 경우, 아이를 책임질 후견인이나 친척에게 이러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친척도 없다면, 그 아이를 보살피는 것은 무슬림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 됩니다.

(2) 자녀의 의무: 부모의 권리

부모와 자녀 관계는 상호보완적입니다. 이슬람에서 부모와 자

녀는 상호 의무와 상호 책임에 의해 결속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나이가 너무 많아, 부모의 심신이 몹시 약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노인은 흔히 기력이 쇠퇴하고 조급해지거나 신경이 예민해지고, 때때로 판단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부모의 권위를 남용하거나, 소위 '세대 차이'로 부르는 갈등과 불안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슬람이 개인과 부모 관계를 조율하는 기본 규정은 이런 사실도 인지하고 예상합니다.

부모의 경험이 자녀보다 대체로 더 풍부하다는 사실만으로 부모의 견해를 정당화하거나 부모의 기준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젊음 자체가 활기나 이상주의 혹은 지혜의 유일한 원천도 아닙니다. 꾸란은 여러 곳에서 부모와 자식 간 대립에서 부모가 잘못된 경우와 자식이 부모의 입장을 잘못 판단한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꾸란 6:74, 11:42 – 46, 19:42 – 48 참고)

관습과 전통 혹은 부모의 가치 체계와 기준 등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꾸란은 몇몇 구절에서 진리가 새롭거나 친숙한 것에 반하거나 부모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리에서 벗어나는 자들을 엄히 꾸짖습니다. 더 나아가 꾸란은 부모에 대한 효심으로 인해 하나님에게 멀어질 경우에는 하나님 편을 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모에게는 마땅히 배려와 공감,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적정선을 넘어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한다면, 거기에

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꾸란은 의(義), 선(善), 미(美)를 경외심이라는 최상위 개념으로 요약합니다. 경외심의 개념을 부모에 적용하면, 적극적 감정 이입과 인내, 감사와 연민, 존경과 부모의 영혼을 위한 기도, 가족 공동체의 지위와 진지한 조언의 존중 등을 포함합니다.

경외심의 기초는 존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고 키운 부분적인 보답의 의미로 자녀의 존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불의를 명하거나, 부정한 일을 요구한다면 따르지 않는 것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따르지 않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 자녀의 태도를 무분별한 반항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끝으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경외심의 중요한 일면은 자녀가 늙은 부모를 부양할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늙고 병든 부모를 부양하고 편안한 여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종교적 의무입니다.

5. 여타 가정생활 측면

가정생활에서 노동자, 다른 식구, 친척,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선지자 무함마드는 노동자를 거느린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충고했습니다. 즉 노동자를 하인이나 노예가 아니라 형제처럼 대우하는 것이 '고용인'에게 내려진 명령이었습니다. 선지자 무함마드는, 노동자를 잘 대우하는 사람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임종의 순간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 줄

것이라 말했습니다.

노동자도 정의, 친절, 자비, 의식주, 기타 개인 비용의 권리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인도 주인이 먹고 입는 것과 같은 것을 먹고 입어야 하며, 이런 배려가 주인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자를 멸시, 학대하거나 지나치게 부려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명예로운 노동을 존중하는 이슬람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해서는 안 됩니다. 참다운 무슬림 사회의 시민 모두는 동등한 지위를 갖습니다. 이슬람은 카스트 제도나 2등 시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이 인정하는 유일한 우월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나타나는 독실함과 선행뿐 입니다. (꾸란 9:105, 49:13)

하나님은 다른 식구나 친척에 최대한 도움과 친절을 베풀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랑과 관심을 보이라고 명합니다. 아랍어로 '친척'이라는 말은 자비(라힘 Rahim과 라흐마 Rahmah)를 뜻하는 어근에서 파생합니다. 친척에 대한 친절은 낙원에 이르는 지름길이며, 반면 이를 소홀히 하는 자에게 낙원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친척에 친절한 태도를 가리켜 삶에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미래를 대비하는 저축이라 말합니다. 친척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신성한 의무입니다. 비록 친척이 자신에게 똑같이 대해 주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무는 하나님

의 명이기 때문에, 친척의 반응에 상관없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슬람 관점에서 이웃 역시 귀한 존중의 대상입니다. 이웃이 어떤 사람이든 이슬람이 부여하는 많은 특권을 누립니다. 선지자 무함마드는 그 누구도 자기 이웃이 자기로부터 안전을 느끼지 못한다면 진정한 믿는 이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기 이웃은 굶주리는데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 역시 진정한 믿는 이가 될 수 없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바와 같이 자신의 이웃에게 친절한 사람은 심판날에 하나님의 이웃이 될 것입니다. 이웃 간에는 선물을 주고받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의 권리가 무엇인지 아는가? 이웃이 그대 도움을 구한다면 도와야 하며, 구제를 청할 때는 구제해주고, 빌려 달라면 빌려 줄 것이니, 걱정거리가 생긴다면 염려해 주며, 병들면 간호해 주고, 초상이 나면 장례에 참여하며, 경사가 생긴다면 축하하고, 재난을 당하면 위로할 것이니, 이웃의 허락 없이 그대의 집을 높이 올려 하늘을 막지 말 것이며, 이웃을 괴롭히지 마시오. 과일을 사면 나누고, 나누지 않으려면 그대가 산 것을 남이 눈치 못 채게 집으로 바로 가지고 들어가되, 그대 자녀들이 그것을 들고 나가 옆집 자녀들이 보고 샘내는 일이 없게 하시오."

선지자는 천사 가브리엘이 이웃의 권리를 누누이 강조했노라 말했습니다. (꾸란 2:117, 4:36, 16:90, 17:23 – 26)

사회 생활

진정한 무슬림의 사회생활은 지고한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는 물론 개인의 행복과 번영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계급갈등, 사회적 특권 계층, 그리고 개인 독식 지배 등은 이슬람의 사회생활과 거리가 멉니다. 꾸란과 무함마드의 언행록 어디에도 계급이나 출신, 집안 혹은 재산을 근거로 우월성을 인정한다는 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면 인류가 살아가는데 극히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이슬람적 삶을 사회구조의 원리로 삼는 꾸란 구절과 무함마드의 말씀은 여러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은, 모든 인류가 한 부모에게서 나서 같은 최종 목적을 지향하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공통 조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인류는 통일성을 지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세계 가족의 일원이며, 공통의 책임을 지고 공통의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닫는다면, 인종적 편견, 사회적 부조리 혹은 2등 시민 차별 등이 발붙일 여지가 없습니다.

공통 부모로 태생이 통일되어 있듯이 사회적 행위도 통일될 것입니다. 꾸란과 무함마드의 언행록은 인류가 기원과 본성에서 통일되어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강조합니다. 여기에 인종적 자만이나 민족적 우수성 주장은 의미를 가지지 못하며, 오직 형제애만 남을 뿐입니다. (꾸란 4:1, 7:189, 49:10 – 13)

인류는 기원뿐 아니라 최종 목적으로도 통일됩니다. 인류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꾸란이 말하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진리와 정의, 사랑과 자비, 형제애와 도덕이라는 하나님의 대의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꾸란 51:56 – 58)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통일성에 기반을 둡니다. 통일성은 이슬람 사회의 바탕으로, 같은 기원과 같은 최종 목적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의 역할은 사회의 역할을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는 사회적 연대와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은 사회의 공통 복지와 번영에 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책임은 사회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은 사회를 건전하게 지키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올바로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공통 복지에 기여하는 것이 개인의 역할입니다.

사회 역시 개인의 복지에 책임을 집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

한 것이기도 합니다. 개인에게 능력이 있을 때, 개인이 수여자가 되고 사회는 수혜자가 됩니다. 개인이 무능할 땐 사회가 개인의 안전과 보호를 책임져야 합니다. 개인이 수혜자가 되고 사회가 수여자가 됩니다. 의무와 권리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책임과 의무는 개인과 사회 모두의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배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말살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한 개인이나 계급이 사회를 착취하고 국가를 타락시켜서도 안 됩니다. 개인과 사회는 서로 안전과 평화를 제공해야 하며, 건설적으로 상호 작용해야 합니다.

기원과 최종 목적에 따른 인류의 통일성, 그리고 그에 따른 상호 책임과 관심 이외에도 이슬람 사회생활의 특징은 선하고 경건한 일을 서로 협력해 하는 데 있습니다. 무슬림은 개인의 생명, 재산, 명예의 신성한 권리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사회의 도덕과 윤리적 측면에서 각 개인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개인은 사회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돕습니다. 사회에 무관심한 개인은 이기적인 죄인이자, 윤리가 추락하고, 양심이 혼란하며, 신앙은 피폐한 사람입니다.

이슬람 사회생활의 구조는 기품있고 견실하며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이러한 구조를 이루는 실질적 요소는, 인류에 동료의식과 사랑, 젊은이에게 자비, 노인에게 공경, 고통받는 자에게 위로, 환자에게 보살핌, 슬퍼하는 이에게 위안, 진정한 형

제애와 사회적 연대입니다. 타인의 생명, 재산, 명예에 대한 권리의 존중, 개인과 사회 사이의 상호 책임입니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슬픔을 덜어 준다면,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슬픔을 덜어 주시리라."

"연소자에게 자애롭지 못하고 연장자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 무슬림 가운데 들지 못하도다."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동료를 사랑하지 않는 한 진정한 무슬림이라 할 수 없도다."

"다른 사람을 선으로 이끄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이와 다를 바 없으니 상당하는 보상이 따르리라. 그리고 악을 충동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자와 다를 바 없으니 응분의 처벌을 받으리라."

꾸란에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오, 그대 믿는 이들이여, 하나님을 늘 유념하리니, 그래야만 하니, 무슬림이 아닌 상태에서 죽지 말아야 하노라.

다 함께 하나님의 밧줄을 잡고 흩어지지 말 것이며, 그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할지니, 그대가 서로 원수였을 때, 은총으로 마음을 맺어 형제가 되게 하셨으며, 불구덩이에 가까웠을 때, 지켜 주셨도다, 이토록 하나님의 징표가 확실하니, 그대가 안내받기 위함이로다.
그대 중에서 선으로 초대하여, 의를 명하고, 악을 금하는, 무리를 일으키리니, 성공하게 될 것이니라."
(꾸란 3장 102 - 104절)

"오, 그대 믿는 이들이여, 모든 의무를 지킬 것이니. …… 올바른 일에 서로 돕고, 악행은 협력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리니, 진정 형벌에 엄격하신 분이로다."
(꾸란 5장 1 - 3절)

앞서 말한 내용에 더해, 선지자 무함마드가 마지막 순례 여정 중 설교에서 이슬람 사회생활 양식을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순례자 수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선지자 무함마드가 한 설교에서 특히 살펴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 다시 한 해가 나에게 허락되어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기에 지금 내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순례의 달이 신성하듯, 모든 이의 생명과 재산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모두 신성하니, 여러분의 행위로 주님 앞에 나가리라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여러분은 아내에 대한 권리가 있고, 또 아내는 여러분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 사랑과 친절로 대하도록 하십시오. 정녕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하나님 말씀으로 아내를 맞이하고 법적 부부가 되었으니 언제나 충실하고 죄짓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무지와 이교도의 산물인 유혈 보복을 금하며 모든 피의 복수는 폐지됩니다.

하인도 하나님의 종복이기에 여러분이 먹고 입는 음식과 옷을 주십시오. 용서하기 어려운 잘못을 저지른다면 떠나 보내야지 학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내 말을 주의해 듣고 잘 깨닫기 바랍니다. 모든 무슬림은 서로 형제이니 여러분은 오직 한 형제입니다. 호의로 주지 않는 한 다른 형제의 것은 불법인바, 부당함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지키십시오.

이 성역에서 순례의 달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이의 생명과 명예와 재산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모두 신성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여기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전해 들은 이가 직접 들은 이보다 더 잘 기억하게 하십시오.

이제 난 나의 사명을 이루었으며, 그것을 여러분에게 남기니 분명한 명령이오, 하나님의 성서요, 명백한 법령이라 굳게 지킨다면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 생활

이슬람의 경제 생활 역시 확고한 기초와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떳떳하게 일해서 생활비를 버는 일은 의무일 뿐 아니라 미덕이기도 합니다. 능력이 있으면서 노력하지 않고 남에게 의지해서 사는 것은 종교적 죄악이며 사회적 오명이자 수치스러운 굴욕입니다. 하나님은 남에게 짐이 되지 말고 제힘으로 살아가라 명합니다. 이슬람은 떳떳하지 못하거나 나쁜 일이 아닌 한 생계비를 벌기 위해 하는 모든 노동을 존중합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사회에서 합당한 존경을 받으면서 무슬림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이고 모든 종류의 일에 나설 수 있습니다. 선지자 무함마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행인들이) 주거나 말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는 것보다, 새끼줄을 들고 나무를 베어 팔아서 자기도 먹고 살고 남에게 자선 베푸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슬람은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의 지위를 생업의 종류를 따라 격하시킬 수 없습니다. 이슬람에는 직업의 귀천이 없습니다. 노동자는 제약 없이 능력껏 자기 운명을 개척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할 수 있으며, 원하는 대로 균등한 기회를 누리며 사업의 자유를 누립니다.

개인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벌어들인 것은 모두 사유재산입니다. 국가나 그 누구도 사유재산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답으로 사회에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에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이로써 국가에게 보호를 받을 권리를 누리고 사업의 자유를 보장받습니다.

이슬람에서는 탐욕적 자본주의와 파괴적 공산주의가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왕성한 개인은 국가의 번영을 책임지고, 국가는 개인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협동과 조화가 갈등을 대신하고, 상호 안정과 신뢰가 공포와 불신을 없앱니다.

산술적 계산과 생산력만 보고 이슬람 경제 제도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윤리와 원칙이라는 포괄적인 체계에 비추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이나 회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능률적이고 정직하게 수행하라 명합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았을 때, 하나님은 능률적으로 제대로 일하는 것을 보기 바라십니다."

일을 마치면 일한 사람은 대가로 공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깎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벌 받을 행위입니다.

이슬람은 특히 상거래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거래를 인정하고 축복합니다. 개인·회사·중계소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 관계는 숨김없고 정직해야 합니다. 속이거나, 문제를 숨기거나, 고객의 필요를 악용하거나, 사재기는 범죄행위이며 이슬람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떳떳한 생활을 하려면 정직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없어집니다. 선지자의 말씀에 따르면, 부정한 양식을 취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심판날, 지옥불에 빠집니다. 이슬람은 사기와 이기적 악용을 막기 위해 거래에 정직을 요구하고, 사기꾼에게 경고합니다. 떳떳하게 일할 것을 권하고, 고리 대금업을 하거나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곧 자신이 일해서 얻은 것만 정당하게 소유할 수 있으며, 타인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하는 것은 비종교적이고, 비인간적이며, 부도덕한 처사로 보기 때문입니다. 꾸란의 하나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놀이를 하는 자, 사탄의 미친 광기만을 대신하리니, 그런 까닭으로 저들이 '장사는 이자놀이와 같다'고 말하나, 하나님

께서 장사를 허락하시되, 이자놀이는 금하셨으며, 주님의 명을 받들어 멈추는 이는 용서를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실 것이오, 거부하는 자는 지옥의 동료이며,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자놀이에 은총을 막으시고 자선에 내리시니, 모든 불충과 악행을 불쾌해 하시도다."
(꾸란 2장 274 - 276절)

"창공을 올리심에 균형을 잡으셨으니,
균형을 침범하지 말 것이며,
저울을 공정하게 달아, 모자람이 없도록 하라."
(꾸란 55장 7 - 9절)

이는 곧 모든 거래를 공정과 정직에 따라 하도록 하는 인도입니다. 사기꾼의 앞날은 냉혹하며 그 운명은 끔찍합니다. 꾸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속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니, 다른 이에게 받을 때 빈틈없으나, 줄 때에는 자와 저울을 속이는도다. 계산에 불려지리라 생각 못하는가?
이 강력한 날에, 인류가 온 세상의 주님 앞에 서게 되리라."
(꾸란 83장 1 - 6절)

이 밖에도 선지자 무함마드의 언행록은 진정한 무슬림의 분류에서 사기꾼, 착취자, 독점자와 함께 부정직한 상인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부정이나 사기, 착취가 개입된 상거래는 엄히 금지하며 거래 관계가 맺어진 후에라도 이슬람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제와 상업에 관한 이슬람법의 주목적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의 연대를 유지하며, 경제계에 고도의 윤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경제에 관심을 두는 것은 일관된 논리의 귀결입니다. 이슬람은 영적 공식일 뿐만 아니라 각 분야를 망라하는 총괄적 생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은 재산의 소유자가 단지 하나님이 그 소유물을 관리하기 위해 임명한 대리자에 불과하다는 실상을 끊임없이 주지시킵니다. 이슬람은 무슬림이 합법적인 수단과 떳떳한 경로로 부를 축적하고 물질적 풍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소유주이며 그 밖의 소유자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임명한 임시적, 한시적 대리자에 불과합니다.

이는 인간 삶의 진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도 중대한 의미를 줍니다. 현재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정한 소유주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항상

베풀고, 가치 있는 대의명분에 기여하려는 마음 자세를 갖도록 합니다. 재산 소유자는 사회의 필요에 호응하며, 자신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 이행해야 할 신성한 사명을 깨달아, 이기심과 탐욕, 부정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이슬람에서 말하는 사유 재산의 올바른 개념이며, 재산 소유자가 차지하는 실제 지위입니다.

꾸란은 재산의 소유를 뛰어난 덕이나 특전으로 주어진 고귀한 신분의 증거, 혹은 착취의 수단이 아니라 참기 어려운 시험으로 간주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이 땅의 대리인으로 하시어, 그대 중에서 더 나은이가 생기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선물로 시험하심이고, 그대 주님의 형벌은 망설임이 없도다, 또 하나님께서는 늘 용서하시며 자애하시도다."
(꾸란 6장 165절)

꾸란은 또한, 모세와 백성 사이에서 오고 간 흥미로운 대화를 소개합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에게 말 하기를 '하나님께 빌고 인내하라,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오, 원하는 종복들에게 주시나니, 그 끝은 정의로움이리라.'

저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오기 전이나 이후나 우리에게는 고생뿐이라', 모세가 말하기를, '그대 주님께서 그대 적들을 물리치시어, 그대를 이 땅의 대리인으로 삼으시니, 그대 행위로 시험하시노라.'"
(꾸란 7장 128 - 129절)

모세와 백성이 주고받은 이 대화가 민족의 기원이나 민족의식을 내세워 인류 가운데 특권을 받았다는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꾸란이 후대의 모세 추종자들이 한 행위나 생각을 전적으로 긍정한다는 뜻 또한 아닙니다. 본문의 어조는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은 신탁물이나 시험물 형태로 인간에게 나누어준다는 사실을 재확인합니다. 이점은 꾸란의 여러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 모든 영토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꾸란 57장 5절)

"하나님과 선지자를 믿고, 받은 것을 나눌 것이며,
이들에게 큰 보상이 있으리라."
(꾸란 57장 7절)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길에서 쓰지 않는다는 말인가.
하늘과 땅의 유산이 하나님께 속하도다."
(꾸란 57장 10절)

이슬람은 인위적인 전체주의 주권 대신에 하나님의 유익한 주권을 선택하고, 건전한 윤리, 상호적 책임과 화합으로 계급갈등을 대신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탐욕적인 자본주의와 가진 자의 무자비한 착취를 억제합니다.

이슬람의 경제제도는 개인이라는 '독립' 실체를 인정하고, 일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타고난 열망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하나님이나 세상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독립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간이나 인간이 가진 자본을 신격화하지 않으며, 특정 계급을 신성시한다든지 기업을 폐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을 창조된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에 걸맞게 인간을 대하고, 인간의 타고난 열망과 능력의 한계를 고려합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이므로, 인간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또 그렇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즉 인간은 절대의 권력을 타고났거나, 실수나 오류 없는 신이거나, 반신반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찮고 미천한 존재도 아니며, 인간은 본연의 지위와 본성의 테두리 안에서 인식되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제외되거나 초월하는 존재가 아닌 전 체계의 일부이고, 세계의 전체적인 바탕을 이루는 한 요소입니다.

이슬람은 일을 권하고 사업의 자유와 벌고 소유할 권리를 부여하지만, 인간은 단순한 수탁자, 임시로 맡은 자에 불과하기에, 신탁물인 재산을 정직하게 관리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벌어서 투자하고 소비할 권한이 있지만,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도 필요합니다. 소유자는 아무 제한 없이 내키는 대로 돈을 쓰거나 재산을 처리해서는 안 되며, 지출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해야 합니다. 꾸란의 하나님 말씀 중에, 동료들에게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고 소비를 검소하게 하라 명합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베푸시는 분이자 진정한 소유주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꾸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이와 나그네에게 하듯 가난한 친척에게도 권리가 있으나, 그대 재산을 낭비하지 말 것이오,
낭비하는 자는 악마의 형제이리니, 악마란 진정 주님께 불충하도다.
그대 주님께 의지하고 자비를 구해 그들과 결별할지라도, 다정한 말을 해줄 것이오,
그대 손으로 목 조르지를 말 것이오, 그대의 손을 한없이 펼치지도 말 것이니, 아니라면 그대는 비난 받고 곤궁해지리라.
정녕코 그대 주님께서는 원하는 이를 아낌없이 주시고 공정하시니, 모든 종복을 보며 아시노라."
(꾸란 17장 26 - 30절)

정치 생활

이슬람의 정치 생활은 사회경제 생활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영적·도덕적 기초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인도됩니다. 이슬람의 정치제도는 구조와 기능, 목적이 독특합니다.

이슬람의 정치제도는 실용주의적이거나 도구주의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특정 계급이 신적 세습 혹은 비 세습 권리를 사칭하여 국민 위에 군림하고 책임을 초월하는 신정이 아니며, 복수심에 불타는 일부 계층이 권력을 장악하는 독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의 정치 제도가 흔히 생각하는 의미의 민주주의도 아니며, 이 모든 것과 구별됩니다. 이슬람의 정치관을 제대로 인식하려면 다음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1. 하나님의 법인 꾸란이 무슬림 개인과 집단을 인도해야 합니다. 꾸란은 하나님이 진실한 종복을 위해 택하신 법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판결과 통치하지 않는 자, 불신자요, 악한이오, 반역자로다."
(꾸란 5장 47 - 50절)

"꾸란 이야말로 믿는 이를 선으로 이끄노라."
(꾸란 17장 9절)

2. 이슬람에서 주권은 통치자나 심지어 국민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며,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법제화하기 위해, 국민전체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 그 주권을 행사합니다. 통치자가 누구든, 하나님의 법에 따라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국민에 의해 선출된 행정대리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슬람의 기초인 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유일한 주권으로 계시는 이 세계에 대한 이슬람의 전체적 소망과 일치합니다. 꾸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권위와 권력과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니, 모든 권능의 위에 계시니라."
(꾸란 67장 1절)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 그대가 받은 신임을 되돌려줄 곳에 보내고, 판결할 때는 공정함에, 하나님의 가르침이란 얼마나 우월한가."
(꾸란 4장 58절)

"하늘과 땅의 주권과 그 사이 만물이 하나님께 속하나니,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꾸란 5장 20절)

3. 이슬람의 목적은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헌법인 꾸란의 규정과 일치하게 모든 국민에게 안전과 보호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종교적 혹은 인종적 소수자도 법을 준수하고 평화를 지키는 국민으로 있는 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꾸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그대 믿는 이들이여, 하나님께 굳세고 증언은 공명정대할지니, 그대를 등돌렸다 하여 미움으로 공정을 벗어나지 말 것이며 경건 다음이 공정이로다. 하나님을 유념할지니, 하나님께서 그대의 일을 다 알고 계시노라."
(꾸란 5장 9절)

"진정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을 지키시니, ……
그들이 이 땅에 보내졌을 때, 예배 드리고, 구빈세를 내며, 의를 명하고, 악을 금하나니, 모두의 끝은 하나님께 있도다."
(꾸란 22장 38절, 41절)

4. 통치자가 누구든, 국민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닙니다. 통치자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국민을 대표하는 고용인이며, 하나님이 감독하는 엄숙한 계약에 의해 통치자와 피치자를 함께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에 통치자 자신도 복종함으로써 권위를 부

여받습니다.

이슬람의 정치적 계약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체결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약은 정부와 국민을 한 편으로 하고 하나님을 다른 편으로 해서 체결하고, 인간 쪽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덕적으로 유효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하기 위해 국민에 의해 선출된 통치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한, 국민으로부터 협조와 지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이나 사회구성원이 통치자에 지지와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통치자의 행위는 하나님은 물론 정부에 대한 무책임한 범죄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똑같이 죄를 범하는 것뿐 아니라 국민의 지지와 충성을 받을 권리를 잃게 됩니다. 꾸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그대 믿는 이들이여,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니, 선지자와 그대 중 명령받은 이에게 순종할 것이며,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다면, 그대 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 이를 하나님과 선지자에게 맡길 것이며, 최선의 좋은 결정이 될 것 이니라."
(꾸란 4장 59절)

권위가 부여된 이들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법과 선지자에게

복종함을 조건으로 합니다. 무함마드는 다음과 같은 결정적 언명을 표했습니다.

"통치자이든 아니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한, 순종이나 충성해서는 안됩니다."

무함마드의 초기 계승자들은 정책의 제1원칙으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한, 백성은 자신들을 따르고 도움을 주어야 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다면, 백성들에게 따르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음을 천명했습니다.

5. 통치자나 정부 관리는 덕성과 적성, 능력을 기반으로 최선의 자격을 갖춘 국민 중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출신 인종이나 가문 혹은 경제적 지위 등은 결코 후보자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입후보자 개인의 자질로 판단해야 하며, 가문의 위세, 재산, 인종, 나이 따위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후보자는 총선거를 통해 국민의 동의로 선출하거나, 사회 여러 분야의 자유로운 합의를 통해 지도력을 인정받은 민중의 지도자가 뽑아서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필요한 만큼, 의회나 지방자치단체를 둘 수 있습니다. 선거권과 행정 행위는 하나님의 법에 따르고, 사회 전체의 최선의 이익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선지자 무함마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적임자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공직을 맡기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선지자와 무슬림 동료들의 신뢰를 배반한 것입니다"

정치적 의미로 보면, 유권자는 윤리적으로 사회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후보자를 신중히 파악한 다음에 투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책임 있는 시민의식을 고양합니다. 이는 현대의 많은 민주국가가 때때로 실패하는 것입니다.

6. 국민은 선거를 통해 통치자를 선출한 다음, 국민 각자는 자력으로 정부 행위를 감독하고, 잘못된 점을 발견하면 항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하나님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다면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상실합니다. 권리를 상실한 정부는 축출하고 다른 정부로 대체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이런 일이 이루는 것이 시민 모두의 의무입니다. 이슬람은 세습정권이나 종신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7. 국민이 선출하고 임명하지만, 통치자는 일차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지며 그다음으로 국민에게 책임집니다. 통치자 직책은 상징적 존재가 아니며 역할 역시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는 문서에 서명이나 하고 국민의 의사를 시비를 가리지 않고 집행만 하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통치자는 최선의 국민 이익을 위해 국민을 대신해 실권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통치자는 이중의 책임을 짊어집니다.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께 책임지고, 자신을 신뢰하는 국민에게 책임집니다. 통치자는 하나님 앞에서 국민과 국민의 대표자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통치자와 국민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꾸란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법을 어떻게 대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이는 통치자가 국민을 위해 최선의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슬람의 정치 제도는 인류가 알고 있는 여타 모든 정치 제도나 교리와 근본적으로 다르고, 통치자가 마음대로 국민을 지배하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통치자는 정의를 불문율로 하고, 온 세상의 주권자인 주님을 진정으로 따름을 국가의 정식 기능으로 하며, 건전한 윤리를 정부의 우선 사업으로 하여 국민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8. 이슬람의 법은 꾸란이지만, 하나님은 여러 사람이 모여 의논함을 통해 공공사업을 처리하라 명합니다. 따라서 국가·국제적 차원은 물론, 지방 차원에서 의회와 자문기관을 둘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는 공공사업에 최선의 조언을 해야 하며, 조언과 참여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와 이행을 실천

적,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통치자는 학식 있고 경험 있는 국민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리낌 없이 말할 일반 국민의 권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민 모두는 어떤 자격으로든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고 공공사업 처리에 직간접적으로 깊이 관여합니다.

이슬람의 역사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일반 국민이 최고 통치자와 칼리프를 추궁하고 시정을 요구한 기록이 많습니다. 이슬람에서 상호협의 원칙은 근본인 만큼, 누구나 자기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말해야 할뿐 아니라, 최선의 사회 이익을 위해 진지하고 효과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해야 합니다.

정치나 여타 분야에서 협의는 민주적 통치 방식일 뿐 아니라 종교적 명령이고, 피치자는 물론 통치자에게 부과되는 도덕적 의무입니다. 선지자 역시 이 원칙을 부단히 준수했을 뿐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한 조언 제시는 종교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언의 목적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의무 이행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직업적인 정치의 발흥을 막고 기회주의적 정강을 가진 지하 정치가들을 꺾기 위해, 선지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할 때는 조언이든 아니든 오직 바르고 선한 말만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려거든 침묵을 지키는 것이 낫습니다."

이는 조언자들의 이기적인 성향과 유혹을 억제하고, 최선의 공익을 위해 가장 진실한 태도로 조언하라는 지시입니다. 왜냐하면, 조언은 하나님이 승인하고, 하나님을 대신해 제시하며, 공공의 행복과 이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통치자가 조언을 구하고 국민이 조언을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자원봉사도 아닙니다. 이는 신앙의 요소이고, 종교적 의무입니다. 무함마드는 지혜롭고, 오류 없고, 이타적이었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규칙의 예외는 아니었고, 이러한 규정을 넘어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무함마드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대가 사람들에게 온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나니, 그대가 냉혹하다면, 벌써 그대를 떠났으리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리니, 그들의 조언을 구할 것이며, 결정했으면 하나님께 맡길 것이로다."
(꾸란 3장 159절)

꾸란은 신자의 특성을 열거하는 가운데 상호 조언과 논의를 신조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어 신뢰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은 더 낫고 영원하리니.
악행과 수치스러운 일을 금하고, 분노할 때 용서를 하며,
주님께 귀 기울여 예배 드리고, 서로가 의논하며, 베푼 것을 나누고,
압제가 도래하면 함께 견디노라."
(꾸란 42장 36 - 39절)

9. 모든 시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하며 운명을 개척하고, 일하며 경쟁하고, 벌어서 소유하고, 자신의 정직한 판단에 따라 찬성하거나 반대할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가 모든 것을 허용하는 무한 자유는 아니며, 무한 자유일 경우 혼돈과 무정부 상태로 변할 것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법이 보장하고, 그 법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유가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는 한 국민 모두의 정당한 특권이 되지만, 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공익과 충돌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밖에 없고, 따라서 통제되어야 합니다.

개인은 우주의 일부이므로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순응해야 합니다. 개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일원이므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고

려하여 상호 유익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한 개인이 특정한 공공 문제에 대해 다수와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사회적 연대와 협조를 유지하기 위해 다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방해받거나 왜곡되지 않는 상태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타인을 설득할 자유가 있습니다. 결국, 다수가 다른 길을 선택했음이 확실해지면 다수와 함께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문제가 개인의 것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 처리할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꾸란 3:102 – 105, 8:46)

10. 통치자의 직위는 공공의 신탁인 바, 국민의 일반적 동의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위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국가의 주인이므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는 당연히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이어야 합니다. 이는 공익에 이바지하고 국민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국가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당위입니다. 또한, 이른바 종교적·인종적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기 위해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인류애 측면에서, 이러한 이슬람의 통치 방식이 잘 이해되지 못하고 곡해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슬람은 소수를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소수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합니다. 준법 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영받으며, 책임 있는 국민으로서 의무와 특권을 똑같이 공유합니다. 법에 따르고, 권리를 행사하되 그에 따르는 책임을 이행하는 한, 무슬림

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위가 격하되거나 이등국민으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국가의 존속과 자신의 안전, 복지의 대가로 무슬림과 같이 구빈세를 내려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슬람 형식의 구빈세를 내는 것이 어색하거나, 무슬림이 아니라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형태의 세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자는 무슬림에겐 해당하지 않는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소수자 역시, 국가에 기여한 대가로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혼인, 이혼, 음식, 상속 등의 개인 생활에서 이슬람법에 따르고 싶다면, 그 희망을 인정하고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반면, 자신의 종교 교리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가 있으며, 누구도 권리 행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사적인 혹은 감정의 문제는 자신이 선택한 가르침에 의지할 수 있고, 공적 규정에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과 공공 사업에 관해서는 국가의 법, 즉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안전과 보호의 권리가 다른 국민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의 꿈은 아닙니다. 이는 꾸란과 무함마드의 언행록의 가르침이고 이슬람 역사의 기록입니다. 예를 들자면, 무함마드 이후 2대 칼리프인 우마르 이븐 알-카땁이 어떤 곳을 지나다가 가엾은 처지에 있는 나이

든 유대인을 보았습니다. 우마르는 사정을 물어보고 딱한 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마르는 안타까운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그대에게서 공물을 징수했다. 그런데 이제 돌보는 이 없이 버려졌으니, 진정 그대에게 불공평하였도다!"

말을 마친 후 우마르는 노인에게 연금을 정기적으로 주라 명했고, 그 명은 즉각 시행되었습니다. 우마르를 비롯한 통치자들은 무함마드가 이룬 정치적 이상을 수용했으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에 관한 꾸란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금하지 않으셨노라, 신앙을 침범하지 않고, 주거지를 침략하지 않는 한,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할 것이니, 진정 하나님은 공정한 이를 사랑하시노라.
하나님께서 그대를 금하셨노라, 신앙을 침범하고, 주거지를 침략하며, 남을 충동하여 이를 조장함에 가까이하지 말 것이니, 그들은 사악하도다."
(꾸란 60장 8 - 9절)

국제 관계

이슬람의 국제 관계란 이슬람을 채택한 국가나 무슬림 민족이 다른 국가나 민족과 관계할 때 취하는 노선을 말합니다. 이슬

람 생활의 다른 측면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하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국제 관계의 기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류의 기원과 지위, 목적이 같음을 확신합니다 (꾸란 4:1, 7:189, 49:13)
2. 무슬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타국민의 정당한 이익과 생존권, 명예와 재산을 존중합니다. 권리 침해, 모든 범죄와 부정을 엄격히 금하기 때문입니다. (꾸란 2:190 – 193, 42:42)
3. 평화를 정상적인 관계 노선으로 하여, 선의의 사절을 교환하고, 만인이 공유하는 인간애를 위해 상호 정직하게 노력합니다. (꾸란 8:61)
4. 국제 관계에서 지나친 유화정책이나 침략을 공히 배제합니다. 이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평화를 어지럽히거나, 안보를 위협하거나, 평화정책을 악용하려는 자가 있다면, 즉시 방위하고 이러한 모든 시도를 분쇄해야 합니다. 이슬람은 오직 이런 경우에만 전쟁을 정당하게 봅니다. 이 경우에도 범위를 최소한으로 국한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전쟁을 한다는 도덕적인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슬람에서 전쟁과 평화의 법은 윤리적이고 고유하며, 포괄적이고 철저합니다. 이 책에서 전쟁과 평화 관련 법을 다룰 이유는 없지만, 법학자나 윤리학자라면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슬람은 침략전쟁을 정당시하지 않으며, 농작물, 동물, 집 등의 전쟁 외 객체는 파손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슬람은 비전투원인 부녀자, 아이, 노약자의 살해를 허용하지 않으며, 전쟁포로의 고문이나 패자에 교리 강요를 금합니다. 세상에 부정과 불의와 침략이 존재하는 한, 이슬람의 현실적인 원칙에 의한 정당한 방어 조치에 불과한 것이 전쟁입니다. (꾸란 2:190 – 195, 216 – 218, 22:39 – 41)

5.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을 존중하고 의무를 이행합니다. 이는 조약 당사자가 의무에 충실하고 존중하는 경우에 한 해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약은 효력을 잃으며 구속력은 소멸합니다. (꾸란 5:1, 8:55 – 56, 58, 9:3 – 4)

6. 국내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인도적 협력과 보편적인 형제애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합니다.

이상이 이슬람이 국제 관계를 영위하는 기본적 방침입니다. 이슬람은 자국과 자국민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제무대에서 폭넓은 활동과 중요한 사명을 갖습니다. 이슬람의 명에 따라 생활의 모든 면에서 자국민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또한, 전체 인류에게 가치 있는 공헌을 해야 합니다.

이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국가 간 우호 관계를 마련하며, 국제적 차원의 교육·경제·산업·정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무함마드가 직접 시작했고, 후

대 교우들이 본받았습니다.

이 장을 마무리하기에 전에, 여기서 논의한 모든 내용은, 꾸란과 무함마드의 언행록에 언급된 건전하고 진실하며 참된 이슬람의 원칙에 근거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것이 무함마드와 충실한 교우들이 훌륭하게 실천하고 모범을 보인 이슬람입니다. 이는 특정 신학자나 법학자, 지배자의 이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이슬람이며, 본연의 이슬람입니다.

또 하나 강조할 점은 이슬람의 생활 체계는 독특하고, 여타 제도나 이데올로기와 다릅니다. 영적·도덕적·지적·문화적·정치적·경제적 관점에서, 그리고 모든 관점에서 독특한 고유의 특성을 지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 이슬람의 이념은 근원이 다릅니다.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닙니다. 파괴적인 정치가나 분노로 타오르는 경제학자의 저작에서 비롯한 것도 아니고, 실용주의적 윤리학자나 이기적 사업가의 작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류 전체의 최선을 위해 창조한 작품이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예술품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며, 충직한 모든 이들이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이념은 풀기 어려운 신비나 은밀한 조건, 특권의 사칭이 없기 때문에 정상인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이슬람의 이념은 목적 또한 다릅니다. 세계 지배나 물리적 팽창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안내하고, 하나님의 법 체계로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인류에 도움을 주어 창조주의 법에 따르고, 충실한 대리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간 삶의 모든 측면을 다룹니다. 의도는 깨끗한 마음과 순수한 정신, 살아있는 양심과 건전한 신체 그리고 감수성을 키우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자질을 지닌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따르며, 건전한 생활의 길을 택합니다. 이슬람 이념의 목적은 단지 사람의 생각이거나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3. 이슬람의 이념은 부드럽고 유연하며, 이해하기 쉽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기본적이고 불가침한 원칙을 나타낼 뿐, 인간의 지혜로 세부항목을 결정하고, 필요할 때마다 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이념은 어떻게 보든 이해하기 쉽고 실천적이며, 기지에 넘치는 원칙들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실제로 이들 원칙을 언제나 현실에 적용하고 실현해 왔다는 의미에서 실천적입니다. 이슬람의 원칙은 자본가나 특정 계급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고, 세속적인 일과 영적인 일 모두 중시하며, 현세와 내세의 삶 모두를 참작하며, 모든 일에 극단을 경계하여 온건하고 안정된 삶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중도적입니다.

이렇게 확립된 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이슬람은 각 지역과 시대에 맞게 상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융통성은 명백한 사실이고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의 이념은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작품 모두가 그러하듯, 인간의 정신이 활동할 여지, 인간이 시도와 노력할 폭넓은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모두를 위한 이슬람

5장
이슬람에 관한 왜곡

5장. 이슬람에 관한 왜곡

이 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왜곡해 온 이슬람에 관한 오해를 다룹니다.

우리는 왜곡과 오해를 제대로 조명해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거나, 비난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이슬람은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정도를 걷는 생각과 행동을 요구합니다. 진실을 밝히고 알리면서 사람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지적이고 책임을 아는 합리적인 존재답게 각자가 스스로 보고 결정하도록 돕는 것이 이 글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충격적인 기사나 논평을 접합니다. '성전', '반그리스도 이슬람', '일부다처제', '이혼', '이슬람에서 여성의 지위' 등이 자주 거론되는 주제입니다. 진실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악의는 없지만 오해하는 정직한 사람들을 위해 이 주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 (지하드)

이슬람이 칼로써 전파되었을까요? '꾸란 아니면 칼'은 무슬림의 상징이었을까요? 무슬림은 세속 권력이나 전리품을 추구하

는 제국주의자였을까요?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꾸란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이와 관련해 무함마드의 전기가 말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진실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정직한 사람이라면 스스로 답을 찾아 분명하게 밝혀야 할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꾸란은 세상에 불의와 압제와 변덕스러운 야심, 독단적 주장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쟁은 필연이고, 현실이란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런 주장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역사의 먼동이 틀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지전과 내란, 세계 대전으로 인류가 고통받아온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한 동맹국이 분쟁을 전쟁이나 전쟁의 위협을 통해 해결하고, 자국 이익을 챙기고 약한 상대의 처지를 결정한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인류는 세계도처의 분쟁지역에서 전쟁의 끊임없는 공포와 소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현실을 간과했을까요? 혹은 꾸란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없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이슬람은 정의, 자유, 평화 그리고 정당 방위를 위한 적법하고 정당한 길로서 전쟁을 인식합니다. 꾸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을 명했으나 그대가 싫어하니, 그대가 싫어함에도 이로운 것이 있으며, 그대가 좋아함에도 해로운 것이 있느니라, 하

나님이 아는 것을 그대는 알지 못함이로다."
(꾸란 2장 216절)

"사람들 중에 한 무리를 세우지 않는다면, 이 땅은 해악으로 가득할 것이니, 진정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자비로 충만하시도다."
(꾸란 2장 251절)

"사람들 중에 한 무리를 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무수히 찾는, 수도원과 교회와 유대회당과 마스짇이 허물어지리니."
(꾸란 22장 40절)

이슬람의 관점이 현실에 기초하지만, 침략하는 것은 물론, 침략 전쟁 도발이나 개입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무슬림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격적 행위에 동참하거나,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꾸란의 다음 구절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침략자와 싸울 것이나, 한계를 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 위반자를 사랑 않으시니라.

전쟁으로 서로 죽이며, 침략자를 몰아낼지나, 압제는 살육보다 더 사악하도다. 저들이 약탈하지 않는 한, 성지에서 전쟁을 삼갈 것이나, 전쟁을 벌인다면 마주할 것이니, 응징이 불신자의 보상이로다.
그들이 그만둔다면, 하나님은 용서와 자비이시니라.
하나님의 종교가 서고 압제가 사라질 때까지 싸우되, 저들이 그만둔다면 폭군을 제외하고는 적대하지 말지어다."
(꾸란 2장 190 - 193절)

전쟁은 이슬람의 목적이 아니며, 무슬림의 정상적인 수단도 아닙니다. 이는 다른 모든 수단이 통하지 않는 비상사태에만 사용하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슬람에서 보는 전쟁의 개념입니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입니다. 이슬람의 의미는 평화이며, 하나님의 아흔아홉 이름(덕성) 중 하나가 평화입니다. 무슬림의 일상적인 인사말도 '평화'입니다. 낙원은 평화의 집이며 '형용사'로서 무슬림은 '평화로운'을 뜻합니다. 평화는 이슬람의 본질이자 의미이며, 상징이자 목적입니다.

이슬람이나 무슬림을 공격하지 않는 한, 이슬람의 평화와 무슬림의 친절을 향유할 권리가 종교·지리·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무슬림과 평화를 유지하거나 이슬람에 무관심하다면 그들에게 선전포고할 이유가 전혀 없을 뿐 아

니라, 이슬람을 강요하기 위한 종교전쟁은 없습니다. 안으로부터 깊은 확신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다면 이슬람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의 스승도 이를 도울 수 없습니다. 이슬람은 평화로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요를 금합니다. 이 점에 관해 꾸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종교에는 강요가 없느니라. 진리는 오류에서 뚜렷이 구분되나니, 누구라도 악을 금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 밧줄을 잡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다 아시노라."
(꾸란 2장 256절)

이슬람에 초대할 때도 무슬림은 무력을 쓰는 것이 금할 뿐 아니라, 평화로운 방법을 쓰라는 명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함마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설교와 지혜로 하나님의 길로 초대하여 무엇이 더 나은 길인지 논하라, 그대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잃은 자와 안내에 있는 이를 잘 아시노라."
(꾸란 16장 125절)

"성서의 백성들과 논쟁하지 말 것이며, 저들의 만행보다 더 좋

게 대하리니, 말하라 '우리에게 내린 계시와, 그대에게 내린 계시를 믿으며, 우리의 신과 그대의 신이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 모두는 무슬림이로다.' "
(꾸란 29장 46절)

이슬람이 이처럼 평화로 불리는 종교이고, 무슬림이 그처럼 평화에 헌신한다면, 그리고 꾸란이 평화를 지지한다면 무함마드가 전쟁을 하고 전투를 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째서 꾸란은 저들을 죽이고 저들과 싸우라 말하는 걸까요?

일견 순진해 보이는 이 질문을 검토하려면, 어쩔 수 없이 무슬림이 불신자들과 싸워야 했던 역사적 사실과 전쟁을 예견한 사례 몇 가지를 언급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무함마드는 공개회의를 소집하여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내용을 전하면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뿐인 진짜 하나님을 믿으라 호소했습니다. 무함마드가 행한 최초의 평화적이고 논리 정연한 호소는 저항에 부딪혔을 뿐 아니라 조롱과 냉소,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무함마드는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축복받을 부름을 말했으나 성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이슬람을 전파하는 길이 막히자, 교우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박해를 덜기 위해 몇 년에 걸쳐 은밀히 선교했습니다.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선교하라는 지시를 내린 후, 무슬림은 점점 더 심한 박해

와 고문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무슬림의 수는 늘어갔습니다. 이교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침묵시키려고 온갖 압력과 회유를 시도했지만, 이런 기도가 되풀이될수록 무함마드와 무슬림 교우들은 점점 더 의연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교도들은 위협, 압력, 재산의 몰수, 조롱 등으로 이들의 믿음을 깨뜨릴 수 없자, 조직적으로 경원하고 심지어 추방운동까지 벌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 무슬림은 메카에서 사람들에게 선교는 물론이고, 물건을 팔거나, 결혼도 할 수 없었을뿐더러 심지어 어떤 형태의 접촉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슬림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마침내는 이교도들도 지쳐 경원을 철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배척운동이 끝났다고 해서 평화의 뜻을 비치거나 평온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압박과 박해는 더 심해졌지만 이런 일들이 무슬림의 신앙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이교도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수뇌회담을 열어 이슬람을 뿌리뽑고, 무함마드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각 부족에서 전사 한 사람씩을 뽑아 무함마드가 잠자는 틈을 타서 살해하자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무함마드의 사명이 거기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무함마드에게 고향인 메카를 떠나라, 메디나로 이주하라, 메디나의 무슬림과 먼저 메디나로 피신한 이주자들과 재결합하라 지시했습니다. (꾸란 8:30, 9:40 참조) 이것이 바로 히즈라 혹은 성천

의 대사건이며, 이슬람 역사는 여기서 시작되고 이슬람력은 이 때부터 시작합니다.

메카를 떠나 피신하는 무슬림은 가족이나 재산을 남겨 놓은 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디나에 정착한 무함마드는 곧바로 평화적인 선교를 재개하여 이슬람으로 정중하게 초대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하여 무슬림 공동체의 어엿한 구성원이 되었지만,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전통적 신념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귀한 평화와 개혁에 헌신하려는 무함마드는, 비무슬림과 조약을 체결해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편협한 부족적 충성 대신에 사회적 양심을 일깨웠습니다.

무함마드가 이러한 개혁을 하면서 메디나에 무슬림 공동체를 조직하고 무슬림과 비무슬림이 공존하는 평화로운 사회의 기초를 닦는데 힘쓰는 동안, 메카의 적들은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무슬림에 대한 증오심이 불처럼 타올랐고 이슬람을 뿌리 뽑자는 결의는 하루가 다르게 굳세졌습니다. 그들은 전략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 실행에 착수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무슬림을 곤경에 빠뜨리자는 작전이었습니다.

메카의 적들은 메디나를 공략해 닥치는 대로 전리품을 취할 생각으로 약탈침략군을 조직했습니다. 한편 메디나에서 이슬람이 인기를 끌고, 무슬림이 서로 형제처럼 여기며 친교를 나누자, 다른 비무슬림은 그 모습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메

카의 적들은 이런 상황을 놓칠세라, 메디나의 비무슬림 세력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디나의 시기에 찬 비무슬림은 메카인의 선동에 반응했고, 메디나 전역에 걸쳐 심각한 분란이 발생했습니다. 무슬림은 이제, 메카의 조직적인 침공뿐 아니라 메디나의 난동꾼들로 내부로부터도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무슬림은 더 이상의 박해와 위협을 감당할 수 없는 막바지에 몰렸습니다. 가족과는 강제로 헤어졌고, 재산도 몰수당했으며. 일부는 생명까지 잃었습니다. 무슬림은 세 번에 걸쳐 고향을 떠나야만 했는데, 그 중 두 번은 아비시니아로, 한 번은 메디나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13년 넘게 고초를 견뎌야 했습니다. 메카의 적이 세운 새로운 전략 앞에서 무슬림은 대량 학살당하는 최후를 기다리거나 압제와 박해에 대항하여 자신들을 스스로 지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는 분명 역설적 현상이었습니다. 이슬람은 무슬림에게 존엄과 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선과 협력, 능력과 평화의 최고 원천이신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주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도움 받기는커녕 근심과 위협 속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슬람은 무슬림들에게 평화를 수립하고, 의를 명하며, 악을 금하고, 억압당하는 자들을 옹호하며, 피지배자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종복에게 얼마나 믿음직하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인지 입증할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무슬림 자신이 억압당하고 무력하고 공포에 질려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 특별히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꾸란에는 없었기 때문에 당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혹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에 처한 무슬림들의 문제를 해결할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음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을 지키시니, 정녕 하나님은 배신하는 불신자를 좋아하지 않으시니라.
전쟁을 허락하심은 악행 때문이니, 하나님은 도움이시며 강하시도다.
하나님을 주님이라 말한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쫓겨났으니, 사람들 중에 한 무리를 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무수히 찾는 수도원과 교회와 유대회당과 마스짇이 허물어지리라, 하나님의 도움이 돕는 이들에 있을 것이며 정녕 하나님은 무궁한 힘이로다.
그들이 이 땅에 보내졌을 때, 예배 드리고, 구빈세를 내며, 의를 명하고, 악을 금하나니, 모두의 끝은 하나님께 있도다."
(꾸란 22장 38 - 41절)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자 무슬림은 더 이상 박해와 압제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평온을 다시 찾고 평화와 자유를 회복하며

자기 가족과 재회하고 재산을 되찾기 위해 대항했습니다. 무슬림에게 평화와 자유를 빼앗은 악의에 찬 이교도들과 전투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먼저 공격하거나, 집, 농작물, 보급품 등을 파손하거나, 비전투원인 아이, 부녀자, 무능력자를 죽이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무슬림은 이들 규정을 지켜 하나님의 정한 제한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이는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무슬림은 이런 제약 아래 싸워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원칙과 지시 하에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라비아의 이글거리는 메마른 사막에서 출현하여 로마와 페르시아의 속령을 정복하고, 대담하게도 유럽의 성벽을 에워쌌던 '잔인한' 무슬림을 다룬 이야기나 기록은 상당히 많습니다. 무슬림은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무력으로 이슬람을 전파하려는 종교적 열망에 따라 움직였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반면, 이슬람은 본질상 강요할 수 없으며, 설령 피정복민에게 이슬람을 강요했더라도 오랫동안 존속할 수 없었을 테고, 정복한 지역에서 비무슬림을 축출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견해를 어리석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슬람은 가는 곳마다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몇 가지 이유로 스페인과 프랑스 남부는 예외인데 나중에 설명합니다—, 비무슬림 토착민들과 공존했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이슬람이 강요된다면, 새로운 지역의 무슬림 개종자가 신실한 신자가 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패배한 사람들이 훌륭한 무슬림이 되기 위해서는 강요 이상의 것이 필요하며, 이들이 '강요된' 종교를 지지하고 고수하기 위해서는 억압보다 더 뛰어난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일부 지식인이나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지닌 사고의 경향이라면 이슬람이 무력으로 전파되었다는 어리석고 순진한 견해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팽창을 아라비아의 열기와 가뭄에 질식할 듯했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인 필요와 사정 때문에 무슬림이 일으킨 침략 전쟁으로 설명합니다. 즉 무슬림의 전쟁과 팽창은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었으며,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긴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랍인이 희생과 헌신에 몸 바칠 만큼 숭고하지 않았거나, 무함마드의 사후 남은 사람들이 종교에 아주 흥미를 잃고 당장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 움직였다고 암시하는 듯합니다. 혹은 이슬람 자체가 무슬림 전사의 마음에 열기와 정열을 불어넣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 '지식인'은 이 중 어떤 암시가 가장 유력한지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덧붙여 당시 아라비아에서 일어난 전쟁들을 무슬림의 침략과 약탈의 야욕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무슬림이 피에 굶주려 전리품을 노린다는 주장 외에 다른 동기는 외면하고, 이슬람의 호소력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에서 미덕을 보지 않고, 무슬림에게 고상한 동기란 있을 수 없다고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논쟁은 아주 심각하며, 때로는 학술적 논의의 양상을 띠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문제는 이 비판자 중 누구도 진지하게,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정직하게 진실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모두에게 통찰력이 결여되었고, 일어난 사실의 올바른 해석을 공표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언젠가 그들 스스로 수많은 사람을 오도하여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엄청난 짐을 진 것을 알 것입니다. 진실에 반해, 무슬림에 맞서 그리고 자신의 동료들에게조차 큰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책임감이 얼마나 막중하겠습니까.

여기서 각 전쟁과 전투에 관한 이슬람의 견해 모두를 상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 전체를 올바로 알게 해주는 주요 논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한 자비의 차원에서 임무를 부여한 무함마드는, 인근 지역의 통치자들에게 이슬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비를 함께 나누자고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치자들은 무함마드의 정중한 권유를 거절했을 뿐 아니라, 그를 조롱하고 무슬림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무함마드의 생전, 로마와 페르시아 군대는 국경을 넘어 여러 번 침략했습니다. 무슬림은 무함마드가 죽을 때까지도 부득

이 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태가 계속되었던 만큼, 후대에 일어난 일은 모두 최초의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는 당시 스페인과 프랑스를 비롯한 모든 기독교 국가가 새로 등장하는 이슬람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다는 뜻입니다.

이슬람의 전쟁 역시 이런 상황에 비추어서 보아야 합니다. 한때 모든 기독교 국가가 힘을 합쳐 하나의 세력으로 움직였는데, 이는 로마 교황이 기독교인에 의심의 여지없는 권위를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중세의 십자군과, 심지어 20세기에도 기독교 세력이 이슬람을 상대로 총동원한 병력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로마가 이슬람에 대한 전쟁을 승인하자, 무슬림은 어느 전장이든—팔레스타인, 비옥한 초승달 지역, 이탈리아, 헝가리, 그 어디든—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와 페르시아의 막강한 병력이 사방에서 무슬림은 포위했을 때,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무슬림은 스페인과 프랑스 남부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무슬림은 앉은 자리에서 최후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로마는 무함마드의 목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로마가 초기 기독교 개척자에게 저질렀던 만행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후세기의 일부 전쟁은 무슬림이 싸우기는 했지만 이슬람과 관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 전쟁은 이

슬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지역적인, 어쩌면 개인적이라 할 이유들이 작용한 것이었습니다. 무슬림이 가한 것이건, 당한 것이건 침략은 침략입니다. 이슬람의 전쟁에 대한 태도는 알려진 그대로이며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후에 침략 전쟁이 있었다면 이슬람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2. 앞서 말한 비판자 중 누구도 이슬람 발흥 초기의 역사적 특성과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대중 소통 매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대인 접촉 없이 홍보하거나 선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생명이나 재산, 명예 그리고 개인이나 약소국의 협정을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안전한 치안이나 표현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고귀한 명분을 위해 싸우거나 인기 없는 신념을 입 밖에 내는 자는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이는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기독교 개척자들 그리고 초기 무슬림의 기록에서 잘 드러납니다. 통치자들과 총독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명을 띤 많은 특사들은 함흥차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자들이 그들을 냉혹하게 살해하거나 가둬버렸습니다.

아라비아의 무슬림은 이 모든 곤경을 딛고,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무슬림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인류를 위해 기여하고, 구원의 신앙을 권해야 했습

니다. 꾸란은 "지혜를 다하고, 아름다운 선교를 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에 초대하고, 가장 정중하게 의논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화적인 부름에 기꺼이 귀 기울인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많은 불신자들이 평화적인 설교에 영향받지 않기 위해 선지자의 말을 듣기조차 피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무력으로 이슬람의 평화적인 초대에 저항했습니다. 일찍이 아라비아에서 겪은 체험을 통해 무슬림은 평화를 견지하면서 동시에 경계태세를 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평화를 수호할 수 있을 만큼 강할 때 평화롭게 행동할 수 있고, 평화의 소리는 압박에 저항하고 압제를 제거할 수 있을 때 더 잘 울려 퍼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무슬림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이슬람을 바깥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원거리 통신체계나 신문 혹은 소위 대중매체라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 즉 직접적인 대인 접촉뿐이었고, 이는 국경을 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소규모의 비무장집단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무장 보호 집단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분명 군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정한 의미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무슬림은 여러 시기에 여러 지역으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어떤 지역에

서는 로마와 페르시아라는 외세에 오랫동안 시달렸던 현지인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던 많은 사람에게 처음으로 이슬람을 권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슬람의 세금(구빈세)에 상당하는 헌금을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이 세금을 요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자가 헌금에 담긴 뜻을 이해하고, 이슬람을 접했지만 스스로의 선택으로 이슬람을 거부했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2) 납세자를 보호하고 안전과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납세자의 위험은 곧 무슬림 동포의 위험이었으며, 무슬림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무슬림 역시 지키고 안전을 보장해야 했습니다.

(3) 새로운 사태는 모두의 지지와 협조, 즉 무슬림에게는 구빈세를, 비무슬림에게는 헌금을 요청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익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4) 납세자가 새로운 형제를 적대하거나, 무슬림이 된 동포를 괴롭힐 생각이 없음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슬람을 배척하고 반군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분파들과 공모하여 납세를 거부한 자들은 스스로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처

음부터 적대 행각을 벌였던 그들은, 특히 숫자가 적은 무슬림이나 개종자, 헌금납부자를 상대로 일을 꾸몄습니다. 이는 국가에 대한 반역이자 인간적으로 야비한 짓이었고, 사회 혼란이자 군사적 도발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진압이 필요한 사태였습니다. 새로이 온 무슬림의 안녕뿐 아니라 이러한 반역자가 사는 지역의 치안을 위해 진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는 혼란 세력을 안정시키고, 시민의 책임, 즉 이슬람을 받아들인 사람과 헌금을 내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는 성실한 시민의 책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한 유일한 경우였습니다.

3. 이슬람 비판자들은 정직한 의도를 갖고, 꾸란이 전쟁과 평화에 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연구하는 편이 현명할 것입니다. 무슬림과 접촉한 전후 피정복민의 지위와 생활조건을 연구해보면 더욱 좋습니다.

페르시아와 로마 속령에 살던 지역 사람들이 외세의 억압적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무슬림에게 절박하게 호소했다는 사실을 알면 비판자들은 뭐라 말할까요? 무슬림의 보호와 정의로운 통치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무슬림 정복자가 크게 환영 받았다는 사실을 비판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피정복민들이 쳐들어오는 무슬림을 환영했을 뿐 아니라 무슬림 편에 서서 압제자와 싸운 현상을 비판자들은 어떻게 설명할까

요? 이슬람 점령 지역의 번영과 자유, 발전을 이전과 비교해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는 이런 문제에 관해 특별한 관점을 제시하거나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재고와 신중한 연구의 여지가 있다고 믿을 뿐입니다. 연구 결과는 확실히 흥미롭고 의미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열강이 지배하는 현대 국제 관계에 비추어 비교한다면 이해가 더 잘될 것입니다.

4. 무슬림이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벌인 요인이 아랍인의 경제적 필요 때문이었다는 주장 역시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진지하게 연구한 것이 아닌 근거와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진심으로 경제적 필요 때문에 무슬림이 아라비아 국경을 넘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어떤 근거에서 고대로부터 상거래의 중심지였던 아라비아가 더 이상 무슬림을 충분히 부양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걸까요? '침공한' 무슬림이 어느 정도로 자급자족했으며 백성들에게 얼마나 분배했고, 메디나, 다마스커스, 바그다드, 카이로에 있는 중앙정부에 얼마나 보냈는지 신중하게 조사해본 걸까요? '점령' 지역의 이슬람 이전 소득과 비교해 보고, 무슬림의 이익만 추구한 투기꾼인지 밝혀낸 걸까요? 당시 무슬림이 준 것보다 뺏은 게 더 많다거나 혹은 투자한 것보다 벌어들인 게 더 많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까

요? 아라비아의 중앙정부가 지역 발전에 필요한 공물이나 조세를 갈취했다면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라도 발견했을까요? 또 그렇다면 얼마나 많이 받았으며, 그것이 미지의 세계에서 모험할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알아낸 걸까요? 점령 지역보다 아라비아가 세출이나 발전 계획 면에서 특권이나 우선권이 있었다는 믿을 만한 정보라도 입수했나요? 끝으로 아라비아가 인구폭발의 위협을 갑자기 의식한 나머지 무슬림이 부득이하게 전쟁이나 경제적 침탈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무슬림이 비무슬림과 접촉한 것을 경제적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시도가 참신하고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관계 확인이나 근거가 없고, 학문적 연구 결과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시도는 진실을 밝히는데 만족스럽거나 완벽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연구, 조사, 분석, 비교 여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연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비판자들은 이론적 가정을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주장할 도덕적 권리가 없습니다. 이슬람은 다시 한 번 모든 비판자에게 더욱 진지하게 진실을 탐구할 것을 권합니다.

5. 무슬림이 약탈을 위해 전쟁을 벌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엉성하고 상투적인 견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주장이 학문의 지름길이고, 지적·윤리적 질문을 회피하는 쉬운 방법

일지는 모르지만, 결코 진실은 아닙니다.

3항과 4항의 주장에는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아라비아로 보냈는지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고,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바로 이러한 '약탈자'에게 짓밟힌 '약탈당한' 지역이 전보다 더 번영하고 융성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히려 무슬림이 모진 박해와 그리고 엄청난 인명과 재산 손실을 보았고, 도발과 위협에 직면했다는 것이 진실에 가깝습니다. '무슬림 약탈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책임 있는 결론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설령 무슬림이 전리품을 얻었다 해도, 이는 해당 지역에서 무슬림이 몰수·강탈당하고 빼앗아간 것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여러가지 논리로 비판하는 비판자들이 반박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완전한 의미에서 평화의 종교이고, 이슬람의 가르침에 부당한 전쟁은 결코 없으며, 침략이 교의에 포함되거나 이슬람에 의해 용납되는 일도 결코 없고, 누구에게도 무력을 통해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슬람의 팽창은 강요나 억압 때문이 결코 아니며, 착복은 하나님이 용서하거나 이슬람이 용납하지 않고, 이슬람의 가르침을 왜곡하거나 잘못 전하는 자는 자신과 동료들에게 더 큰 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은 하나님의 종교이며, 하나님께로 가는 바른길이기

에 어려운 조건 아래서도 살아남았으며, 영원의 행복에 이르는 안전한 다리로 앞으로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의심스럽다면 이슬람을 연구하고 꾸란을 읽어 역사적 사실을 새롭게 인지함이 현명할 것입니다.

이슬람이 전파된 지역에 경제적 번영과 문예부흥이 따랐다는 사실이 무슬림이 경제적 이익과 전리품을 추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이슬람의 후기 역사에서, 추정대로 이러한 이득과 전리품이 동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슬람이 평화를 전쟁보다 더 좋아했고, 무슬림이 전리품 획득을 추구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적 사례가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이 기타 요인들과 더불어 현대 자본주의의 발흥을 이끌었다고 지적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관한 고전적 논의가 있습니다. 진지한 사람이라면, 프로테스탄트가 경제적 번영을 위해 윤리를 발전시켰다거나, 현대 자본주의가 아직도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

인류 역사상 논란이 가장 많은 주제가 예수입니다. 예수는 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에 불과했을까요? 혹은 반신반인이었을까요? 그는 실존 인물일까요? 보통 사람처럼 부모에게 태어

난 건 아닐까요? 정말 크리스마스 무렵에 태어났을까요?

종교와 관련 없이 이와 같은 여러 질문은 끊기지 않고, 이 문제에 관한 논쟁과 토론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됩니다. 이와 관련한 해석 차이로 다양한 기독교 교파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슬람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슬람이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일러두기** / 예수 생애의 주요 내용, 즉 어떻게,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살고 계시를 받고 죽어 매장되었는가, 정말 '기적'을 행했는가, 했다면 어떤 기적이었나, 죽음으로부터 부활했는가, 언제, 어떻게 부활했는가 등에 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면도 부족하고 논의의 성격이 모독적이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감이 있어 이런 세부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논의에 앞서 세 가지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첫째, 무슬림은 예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슬람은 예수가 실존했고 도덕적이며 굳건한 신앙을 가졌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 종교, 선지자, 계시, 인간애에 관한 무슬림의 인식에 따라 예수를 역사적 사실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특별한 선지자 중의 한 분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슬람의 기본 신앙이며, 무슬림이라면 결코 예수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셋째, 여기에 언급하는 것은 모두 꾸란을 출처로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기독교와 다르지만, 이슬람은 결코 예수의 역할이나 특성, 위대함을 과소평가하거나 깎아 내리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슬람은 예수를 매우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높인, 높은 지위에 있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예수가 태어나서 자라난 환경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예수를 맞이한 당시 사람들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들은 취지와 어휘 양면에서 하나님의 성서를 개필, 왜곡했습니다.

(2) 예수를 비롯한 선지자들 일부는 배척하고 일부는 죽였습니다.

(3) 자기 재산에 관해 무책임하고 함부로 말했습니다.

꾸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지 않는 선지자가 왔을 때마다, 거만함으로 사기꾼이라 불렀으며, 또 살해했도다."
(꾸란 2장 87절)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 '하나님은 가난하고 우리가 더 부유하노라', 그 말을 적으시고, 부당하게 선지자를 살해한 자를 적으며 말씀하시니, 지옥의 화염 맛을 보이리라."
(꾸란 3장 181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서약을 받아 내시며 ……
저들이 그 서약을 어겼으니, 마음을 닫게 하였거늘, 받은 계시를 바꾸더니 또 잊었도다."
(꾸란 5장 13 - 14절)

예수의 탄생 연대에 관해, 기독교인은 정확한 연도나 계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시기보다 무슬림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입니다. 예수 시대 이전까지 세 번의 인간 창조가 있었는데, 각 창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식과 지혜가 명백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첫째, 아버지나 어머니의 육체적 개입이나 존재가 없이 창조된 사람으로 아담이 있습니다. 둘째, 어머니나 조상의 육체적 존재 없이 창조된 사람으로 하와가 있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상징적 아버지 혹은 비유적 아버지라면, 하와는 아버지가 원한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 창조된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상상력이 동원해보면 네 번째 창조, 즉 인간 아버지의 육체

적 개입이 없는 인간 창조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예수의 창조 시에 하나님이 현실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네 번째 창조를 완성하고, 가능한 모든 형태로 하나님의 능력을 예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독실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은 기적의 작용이었으며, 하나님의 의지가 깃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특정한 시기에 이러한 창조를 선택한 것은 흥미롭고 동시에 이해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의술이 대중화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크게 벗어난 데다가 고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형태의 창조로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함을 보이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예수 창조의 생생한 실연(實演)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이는 또한 예수가 후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행하는, 의학적 성격을 띤 기적을 예고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탄생에 관한 이러한 가정적 해석은 꾸란이나 무함마드의 언행록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이처럼 논리적으로 가능한 네 가지 유형의 창조와 예수의 탄생이 네 번째이자 최종적인 유형을 이룬다는 귀납적 결론은 개인의 의견이고 가정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꾸란과 무함마드의 언행록의 권위 혹은 진실과는 관계없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창조에 대한 이러한 가정이 타당하든 타당하지 않든, 이는 꾸란의 진리와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의 뜻이고, 일이라는 꾸란의 언명에 대한 무슬림의 믿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논점은 계속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가, 인간 아버지의 선재(先在) 없이 창조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로 삼으시거나 아버지 행세를 했노라, 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이라 부르고자 한다면, 이런 주장이 맞는다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었던 아담에게도 역시 같은 논리가 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용어를 비유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모든 인류 특히 더할 수 없이 높은 주님에 대한 봉사로 이름을 떨친 사람들 모두에게도 같은 의미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뛰어난 창조물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아담을 빼버리고, 비유적 해석에서 나머지 인류를 제외하는 것은 대단히 독단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꾸란은 예수의 탄생을 다음과 같이 계시합니다.

"마리아가 가족을 떠나 동쪽으로 간 성서 내용을 기억할지니.
그녀가 장막으로 가림에, 영을 보내어, 그녀 앞에 나타났으니,
남자의 모습이로다.
그녀가 말했으니, '나는 자애하신 하나님께로 당신을 피하니,

당신이 경건하다면 다가오지 마시오.'
그가 말하니, '아니요, 나는 단지 주님의 전달자로서, 그대에게 티없는 아들을 전해주는 것뿐이오.'
그녀가 말하니, '나는 순결하고, 부정한 일이 없으니, 어찌 아들을 가지리오'
그가 말하기를, '그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게는 쉬운 일이며, 자비로서 그를 인류의 징표로 삼을 것이고, 정해진 일이노라' 하셨소.'
깨달은 마리아가 그를 따라서 먼 곳으로 떠나노라.
해산이 가까워진 그녀가, 괴로움에 소리지르니, '아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차라리 죽었더라면! 눈에 띄지 않게 잊혀져 버렸더라면!'
그때 아래쪽에서 소리가 들리더라, '슬퍼하지를 말 것이니, 주님께서 개울을 마련하셨느니라. 야자나무를 흔들면 잘 익은 대추야자가 떨어지리라. 먹고 마시며 두 눈을 식힐 것임에, 한 사내를 볼 것이니.' 말하라, '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단식을 맹세했으니, 오늘부터 그 누구와도 대화하지를 않으리라.'
그녀가 아기와 함께 그들에게 오자, 저들이 말하도다, '오! 마리아여, 이렇게 끔찍한 것을 데려오다니!'
'오! 아론의 누이여, 아버지는 악한 이가 아닐뿐더러, 어머니도 부정하지를 않았노라.'
그녀가 아기를 가리키자, '어떻게 요람에 있는 아기와 말할 수

있으리요?'하니,
아기가 말하니, '나는 하나님 종복으로서, 계시를 받은 선지자나니.'
'내가 어디에 있든 축복되게끔 하셨으며, 살아있는 한 예배와 구빈세를 명하셨노라.'
'어머니에게 상냥하여, 방만하거나 비참해지지 않게끔 하셨으니.'
'내가 태어나던 날, 죽는 날, 다시 부활하는 날에도 평화 깃들리라.'
바로 마리아의 아들, 예수이니, 저들이 논쟁하는 진실의 전말이로다.
하나님께는 자식이 없으며, 영광이 깃드옵소서!
명령하시니, 있거라 하신다면 생기노라.
진정 하나님께선 나와 그대의 주님이시니, 따를 때에 올바른 길이로다."
(꾸란 19장 16 - 36절)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맡기신 사명은 피의 희생을 통해 속죄함으로 모두를 구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인도와 자기 수양으로 침체한 정신에 활기를 불어넣고 굳은 영혼을 풀어 구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종교를 정립하고, 곡해와 오용된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침체한 정신과 굳어진 영혼에 접근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징표를 가져오고 기적을 행함으로 자기 사명을 뒷받침했습니다. 당시의 완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초자연적이고 비범할 뿐 아니라 논리적이고 영적인 증거를 예수를 통해 제시했습니다.

예수의 사명과 그가 보인 기적에 관해 꾸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라' 천사가 말하기를, '오! 마리아여, 하나님께서 기쁜 말씀을 보내시니, 그의 이름은 메시아,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 현세와 내세에서 영광이 있을 것이오, 내 곁의 사람들과 함께 하노라.'
'어릴 때나 자라서나,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며, 올바른 이와 함께하노라.'
그녀가 말씀드리니, '주님이시여,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아들을 갖겠습니까?'
그가 말하니,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니, 운명을 명하심에, 있거라 하신다면 생기노라.'
그에게 성서와 지혜와 율법과 복음을 가르치시어, 이스라엘 자손의 선지자로 삼으셨으니,
'그대 주님의 징표를 가져왔노라, 진흙으로 새를 빚어 숨을 불

어넣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새로 살아나고, 장님과 문둥병자를 고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죽은 이를 살리고, 집에서 먹고 저장하는 음식을 알아 맞추니, 그대가 믿는다면 그 중에 징표가 있으리라.'

'그대에게 보낸 율법과 성경과 금지되었던 것을 입증하려고 왔으니, 그대 주님의 징표로 왔노라, 하나님께 경외드리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나와 그대의 주님이시니 경배드릴 것이며, 이것이 바른길이라.'"

(꾸란 3장 45 - 5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마리아의 아들 예수여! 그대와 어미에게 내린 내 은총을 기억할지니, 보라! 성령을 보내 그대가 어릴 때나 자라서나 사람들에게 말했으며, 보라! 그대에게 성서와 지혜와 율법과 복음을 가르쳤으며, 진흙으로 새를 빚어 숨을 불어넣으니, 내가 허락함에 새로 살아나고, 장님과 문둥병자를 고치며, 내 허락으로 죽은 이를 살렸으니, 보라! 그대를 통해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징표를 상기시켰음에도 저들이 해치지 못하게 하였으나 그중 불신자는 단지 요술에 불과하다고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 하시니, '마리아의 아들 예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 대신 그대와 어미를 경배하도록 말했는가?' 그가 말하

니, '영광을 바치오니, 저에게는 그렇게 말 할 권리가 없습니다, 저들에게 한 말은…' … 명 받은 나와 저들의 주님 하나님께 경배 드리라는 것 이외에는 한 말이 없었고, 저들과 지내는 동안 저들이 증인이며, 저를 보호하실 때 저들이 보았으니, 당신께서 저들을 보셨으며, 당신께서 모두 증언을 하십니다."
(꾸란 5장 110 - 117절)

이 구절들은 꾸란에 여러 곳에 산재하는 유사한 구절을 대표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모두, 예수가 신이나 하나님의 아들을 자처하지 않았으며, 예수 역시 그보다 앞서 왔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종복으로, 다른 선지자와 다름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꾸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 자취를 따라,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보냈으며, 토라를 확인하고, 또 성서를 보냈으니, 안내와 빛과 토라를 확인하기 위함이라, 경건한 이를 위한 안내와 훈계로다."
(꾸란 5장 46절)

"'하나님이 곧 마리아의 아들인 그리스도다' 말하는 자, 신성모독이노라, 그리스도가 말했으니,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여! 나와 그대의 주님 하나님께만 경배드려야 하리니, 다신을 저지른다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금하실테요, 불지옥을 거처로

보내시리니, 그 누구도 악한 자들을 도울 수 없노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중 한 분이다' 말하는 자, 신성모독이니, 하나님 외에 어떠한 신도 없노라. 저들이 그 말을 그치지 않는다면, 불신자에게 보상이란 가혹한 형벌이로다.
저들은 뉘우침으로 하나님께 어찌 용서를 빌지 않는 것인가? 진정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 용서하시노라.
마리아의 아들 그리스도는, 그 전에 보내졌듯이 선지자에 지나지 않으며, 그 어미는 진실했으니, 그들 둘 모두 음식을 먹었노라. 어떻게 저들에게 징표를 증명했는지 볼 것이며, 또 어떻게 저들이 떠나는지를 볼 것이니 ……
말하라, '성서의 백성들이여! 그대 종교의 한계를 부당하게 넘지 말 것이며, 진리를 침범하지 말 것이니, 시시때때로 타락하여 헛된 욕망을 좇던 사람의 길을 따르지 말지어다.' "
(꾸란 5장 72 - 75절)

예수의 시작을 놓고 이론이 분분했고, 최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는 최후까지, 하나님의 성서와 지혜와 분명한 징표와 성령에 의한 불굴의 의지로 자기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극히 적었습니다. 예수는 관대하고 온화했지만,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위선으로 율법의 정신을 저버리고 문자에만 집착했습니다. 예수는 이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반대했습

니다. 실제로 그를 잔혹하게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선지자 중 일부를 배척하고 죽인 사례가 있었는데, 예수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실제 사건의 극화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려는 음모가 있었고, 실제로 십자가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누군가 형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는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예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직접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잔혹한 죽음으로부터 예수를 구해 하늘 높이 올리셨고, 그것으로 지상에서 예수가 맡은 사명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영혼만 높아진 것인지, 영혼과 육체가 모두 살아나 하늘로 올라갔는지, 아니면 그가 자연사한 후에 영혼만 올라갔는지는 꾸란에서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졌다고 계시했습니다. 꾸란은 예수의 최후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서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계시를 내려달라 그대에게 요구할 것이며, 실로 하나님을 직접 군중에게 보여달라 더 큰 기적을 모세에게 요구했었으니, 현혹에 얼이 빠졌노라. 명백한 징

표를 받았음에도 송아지를 섬기었으나 용서하시어 권위와 증거로 모세를 보냈도다.
서약으로 그들의 위로 산을 올리고 말했나니 '문으로 들어 절하라' 또 말했나니 '안식일을 어기지 말라.' 이렇게 그들 서약을 엄숙하게 받았노라.
저들이 계약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징표를 부정했으며, 선지자들을 부당하게 살해하면서 말하니 '우리 마음이 덮혔도다.' 아니로다,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불신으로 봉하셨으니, 오직 몇몇만 믿으리라.
불신으로 마리아에 큰 거짓을 말하니
'우리가 마리아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노라' 말하나 아니로다, 그들은 죽이지 못했으며 십자가에 달지도 못했으니 그렇게 보였음이라. 이렇게 다른 자들은 의심 속에 있으며, 알지 못하면서 추측만을 따르나니, 결코 죽이지 못했도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올리셨나니, 하나님은 권위와 지식이 충만하시니라."
(꾸란 4장 153 - 158절, 참조: 꾸란 3장 52 - 59절)

이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교리와 이 교리의 바탕이 되는 사상을 믿지 않습니다. 꾸란의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사실이 아니고, 피의 희생과

대속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아담의 원죄는 속죄로 용서받았고,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때 스스로 자기 죄에 책임을 지며,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속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슬람에서 피의 희생과 대속의 교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파 중 일부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바칠리드 교파Bacilidan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도체태 교파Docetae는 예수가 결코 육체를 갖지 않았고 단지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 하고, 서기 138년경, 마르치온 교파 복음서Marcionite Gospel는 예수의 탄생 자체를 부인하면서, 단지 인간 형체로 나타났을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성 바나바 복음서Gospel of Saint Barnabas는 '십자가 대체설'을 지지합니다.

무슬림은 예수의 최후에 관해, 시작과 같은 시각으로 받아들입니다. 무슬림은 예수가 살해되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명예와 은총으로 하나님께 올려졌다고 믿습니다. 이 문제 전반에 관한 한 무슬림의 생각은 뚜렷합니다. 꾸란은 예수에 관한 논쟁을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의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1. 기독교 교회가 생각하는 예수의 십자가형이 하나님의 정의, 자비, 능력, 지혜에 부합하는가.

2. 죄 지은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타인의 죄와 악행을 회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처리하시는 것인가.

3. 예수가 굴욕적으로 살해당했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지혜에 맞나.

4. 예수가 희생되도록 방치하는 것이 동맹자를 수호하고 사랑하는 이를 보호한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말씀을 지키는 것인가.

5. 지극히 관대하신 하나님이, 원죄로 아담과 자손들을 용서할 수 없었고, 예수의 피로 속죄할 때까지 불안과 당혹 속에 인류를 방치했다고 믿는 것이 타당한가.

6. 초기 그리스, 로마, 인도, 페르시아의 종교 교의는 별개 문제로 하고 십자가형과 피의 희생에 대한 믿음이 또 어느 종교에 나타나는가.

7. 바커스, 아폴로, 아도니스, 호루스 기타 처녀가 수태하여 낳은 신화 속 신들이 아닌, 인간 중에서 예수 말고 또 다른 처녀 수태 사례가 있는가.

8. 예수가 했다는 말과, 바커스가 한 말. 즉 '내가 세상의 알파요 오메가며 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는 말을 비교하면 새로운 관점이 생기지 않는가. 예수가 했다는 말과 유사한 사례가 많다는 사실이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나.

9. 로마 당국은 왜 예수를 처벌하려 했나. 설교자였던 그는 로마 당국이 해당 지역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 이처럼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시민 지지자를 잃어버릴 이유가 무엇인가.

10. 로마 총독 빌라도의 성품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나. 빌라도에게 불복하여 로마에 항소한 당시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았나. 빌라도의 통치 방식으로 볼 때, 그는 유대인을 미워하고 경멸하지 않았나. 뇌물에 약하지 않았나. 아리마다의 요셉 같이 예수에게 감복한 부자의 뇌물을 받지 않을 이유라도 있었나. 누가의 말에 의하면, 요셉은 예수에게 관심이 많았고, 법률 고문으로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라는 평결에 찬성하지 않았으며, 평결 논의에서 구출 노력이 실패로 끝나자 부패한 총독에게 뇌물을 주어서라도 예수를 십자가형에서 구해내려고 할 수 없었을까.

11. 예수의 제자 몇 명이 실제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목격했으며, 반응은 어떠했나.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는 마태의 말(마태복음 26:56)이 사실일 수 있나. 이것이 위대한 교사의 위대한 제자들이 지닌 인격이었다는 말인가. 오직 요한만이 현장에 있었는데, 그는 얼마 동안 현장에 있었나. 믿을만한 사료(The Chamber's Encyclopedia, 1950. 십자가에 관한 논문 참조)에 의하면, 사형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데는 보통 며칠씩 걸렸는데, 예수의 경우에는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나. 함께 십자가형을 당한 두 사람은 죽지 않았는데 어째서 예수만 죽었나. 형 집행 세 시간 동안 온 땅을 뒤덮은

어둠은 어찌된 일인가. (마태 27:45, 마가 15:33, 누가 23:44) 어둡고 혼란한 그 시간에 바꿔 치기할 수는 없었을까.

12. 예수의 십자가형 집행을 위해 온 로마 군인들은 예수를 얼마나 잘 알고 있었나. 그들이 현장에 데려간 사람이 예수였는지 어느 정도로 확신했을까.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았을까. 민중 폭동이 두려운 그때, 그들이 예수를 확인하는데 신경을 쓸 경황이 있었을까.

13. 단호하고 강인한 선지자셨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비난 혹은 근심하는 투로 하나님께 말했다고 상상할 수 있나. 예수처럼 특출한 선지자가 고통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이것을 하나님께 말하거나 고통에 반응하는 자의 모범 혹은 선례로 간주할 수 있나.

14. 자비롭고 관대한 하나님께서, 죄 없을 뿐 아니라 봉사와 대의에 헌신한 이에게 잔인하고 치욕적인 십자가형을 가하지 않고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방식인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반영인가.

당시 주변 상황, 당국의 행동, 민중의 반응, 하나님의 개념, 인간의 지위, 종교와 생명의 목적 등을 연구하면 비슷한 질문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러한 의문에 충분히 답할 수 있어야 비로소 평온과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 모두 이 문제를 진지하게, 깊이 연구 조사

해 보기를 권합니다.

무슬림에게는 이런 의문이 없습니다. 이슬람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살해된 것이 아니라, 영예롭게도 하나님께 올려졌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문헌에 의하면, 십자가형을 당한 이후 예수가 몇몇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꾸란의 내용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예수는 스스로를 구하고 적의 음모에 반격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으로 은신했던 것입니다. 적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지위가 더욱 높여지고 더욱 영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위대함이 가르침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기독교의 신앙에서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러한 믿음이 타당하다면, 여전히 인간의 죄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대속은 헛된 일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수처럼 대의를 위해 죽어간 위대한 영웅은 수없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신격화될 수 있다면 인류에게는 무수한 신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 이러한 신성을 예수에만 국한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죽은 다른 영웅을 제외한다면 독단적인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슬림은 이런 역설에 빠지지 않습니다.

무슬림은 예수의 위대함이, 하나님의 선택과 말씀으로 영예롭게 했으며, 계시를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 훌륭한 인격에서 비롯한다고 믿습니다. 겉과 속이 모두 진실했으며, 위선과

신성 모독에 맞서 싸웠고, 태어날 때와 승천할 때 모두 특별했으며, 백성에 대한 증거이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비의 산물이었다는 사실에서 비롯한다고 믿습니다.

참고를 위해 꾸란 관련 구절을 열거합니다.

2장 87, 136, 253절

3장 42 – 59, 84절

4장 156 – 159, 171 – 172절

5장 17, 46, 72, 75, 78, 110 – 118절

6장 85절

9장 30 – 31절

19장 1 – 40절

23장 50절

33장 7절

42장 13절

43장 57 – 65절

57장 27절

61장 6, 14절

일부다처제

엄밀히 말해 '중혼'은 복수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한 남자가 아내를 두 명 이상의 동시에 둘 때 이를 일부다처(一夫多妻)라

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두 용어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구별 없이 사용하기로 합니다.

한 여자가 두 명 이상의 배우자를 두는 경우 이를 일처다부(一妻多夫)라 합니다. 남녀 혼성인 경우는 집단혼이 됩니다. 각 사회는 제각기 처한 시대와 놓인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이러한 세 가지 기본적 유형의 중혼을 행해왔습니다.

이 중 가장 흔한 경우는 일부다처입니다. 그러나 일부다처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극히 소수의 특정 인구에 한정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슬람이 허용하는 유일한 유형입니다. 이슬람은 다른 두 가지 유형, 즉 복수의 남편(一妻多夫)과 집단혼을 엄하게 금합니다.

유대교나 기독교가 오로지 일부일처제였다거나 일부다처제에 철저하게 반대해 왔다는 말은 심지어 오늘날에도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고이테인Goitein 등 몇몇 저명한 유대인 학자를 통해 알려진 바로는, 일부다처 유대인 이주민 때문에 이스라엘 주택 당국이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한 갈래인 모르몬교 입장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간통, 불륜, 배우자 교환보다는 차라리 일부다처가 낫다고 하는 가톨릭 주교들의 견해 역시 모르몬교와 같은 입장입니다.

이슬람의 경우로 돌아가면, 무슬림은 육욕에 사로잡혀 많은 아내와 첩을 거느린 사람이라 여기는 시각이 많습니다. 아내가 하나인 무슬림이나 미혼 무슬림을 보면 놀라움을 표시하

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은 무슬림이 한껏 자유롭게 한 아내 혹은 다수의 아내로부터 다른 아내로 전전할 수 있으며, 이것이 아파트를 옮기는 것만큼이나 심지어 옷을 갈아입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선정적인 영화나 싸구려 소설 때문에, 혹은 몇몇 무슬림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이슬람의 찬란한 빛과 사회 철학을 보지 못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무슬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글을 읽고 난 후 나름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다처제는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다윗, 솔로몬 등의 선지자, 왕, 귀족 가운데 여러 형태로 일부다처가 행해졌습니다. 그중 일부는 적법적하지만 다른 일부는 불법적, 위선적 형태였습니다. 또 몰래 숨긴 일부다처가 있는가 하면 공개적 일부다처도 있습니다. 숱한 기혼자가 남몰래 정부를 부양하거나 애인을 따로 숨겨 놓은 경우도 많으며, 여성들과 놀아나는 남자들이 많다는 사실은 구태여 조사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도덕주의자들이 좋아하든 않든 일부다처는 행하고 있으며, 어디에나 그리고 역사 모든 시대에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서가 계시되던 시대에는 일부다처가 공

인된 관습이었습니다.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인정되었고 이에 대해 아무런 반대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문화적 관습으로 이 문제를 성서에서 거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일부다처가 기정사실이고 당연지사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성서는 일부다처를 금하지도, 규제하지도 않으며, 어떤 식으로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성서에 나오는 열 처녀 이야기를 한 번에 열 명의 아내를 허락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선지자·왕·귀족의 이야기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무함마드 당시에는 일부다처의 관습이 사회생활 속에 널리 그리고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슬람은 이러한 관습을 무시하거나 버리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아무 제한도 없이 그대로 두지도 않았습니다. 이슬람은 이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일부다처가 조장하는 혼란과 무책임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널리 행해지는 여타 관습과 관행에 대해서도 그러했듯이, 악습을 일소하고 좋은 점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일부다처 제도를 체계화하고 정비하기 위해 개입했습니다. 이슬람은 사회기반인 가정이 혼란해 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에 현실적인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1. 일부다처는 일정한 조건과 상황 아래에서만 허용된다. 하지만 이는 조건부 허용이며 종교적 신조나 필수가 아니다.

2. 이슬람 이전에는 아무런 제한이나 방침도 없었지만, 특정한 조건에서는 최대 네 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한다.

3. 두 번째, 세 번째 아내도 혼인 후에는 첫 번째 아내와 동등한 권리와 특권을 누린다. 아내들은 어떤 경우에나 첫 번째 아내가 가지는 것을 당연히 가질 수 있다. 아내들 모두에게 공평한 대우, 부양, 사랑을 해야 한다. 이는 아내를 둘 이상 둔 남자가 지켜야 할 필수 조건이다.

4. 이러한 허용은 예외적 허용이다. 이는 일부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불가피한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자 시도다. 요컨대 이는 긴급조치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이 문제에 관련한 꾸란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대가 고아에 대해 공정하지 못할까 두렵다면, 바라는 여자 두 명이나, 세 명, 네 명과 결혼할지니, 그대가 한 명처럼 공정하지 못 할까 두렵다면, 오직 한 명이거나 오른손 소유리니•, 그대의 부당함을 막으리로다."

(꾸란 4장 3절) • 포로 한 명을 뜻합니다. 이 경우에도 첩이 아니라 혼인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많은 무슬림이 전사하여 과부와 고아를 남긴 우후드 전투 이후에 계시되었습니다. 생존한 무슬림이 전사자의 아이와 과부를 마땅히 돌봐야 했습니다. 결혼은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꾸란은 이와 같이 경고하는 한편, 고아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호자가 부양가족을 불공평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던 만큼, 이슬람이 일부다처를 장려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존재하는 일부다처의 관습에 규정을 도입해서 규율한 것입니다.

이슬람이 일부다처를 폐지하지 않은 이유는, 오늘날 일부다처를 허용하지 않는 헌법과 사회규범을 가진 국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폐지한다고 해도 이론으로만 폐지될 뿐 현실에서 이 관습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은 생활에서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단지 외우기만 하는 교리나 이론이 아닙니다. 이슬람은 현실에 기반하며 이슬람 관점은 매우 실질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은 제한적이고 조건을 둔 일부다처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제도를 없애는 것이 인류에 더 이로운 길이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를 폐지하라 명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이슬람이 일부다처를 허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단지 상상이거나 가정만은 아닙니다. 실제

로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1. 사회에 따라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산업 지역, 상업 지역 또는 전쟁에 휘말린 지역이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 무슬림 사회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고, 이슬람이 일부다처를 금하며 법률 혼을 일부일처로 제한한다면 미혼여성은 생존과 생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문제뿐이 아닙니다. 이는 도덕, 감정, 사회, 정서 문제이자 인간 본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가정을 꾸리기 원합니다. 단순히 육체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문제는 심각해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심리적 콤플렉스, 신경쇠약, 사회 혐오, 정신적 불안 등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현실에서 의사들이 익히 경험하는 사실입니다.

타고난 욕구와 감정적인 요구는 실현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딘가에 속하고, 누군가를 돌보고, 돌봄을 받고 싶은 욕구는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성도 인생을 즐기고 자기 몫을 차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합법적이고 떳떳한 방법으로 권리를 차지할 수 없을 때는 위험하고 일시적이지라도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제를 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남녀는 서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습

니다. 파티, 사교 모임이나 여러 행사에 참석합니다. 이러한 구애 행위가 항상 도덕적으로 떳떳하지만은 않습니다. 기혼자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날 경우, 법을 어겨서라도 곁에 두려 합니다. 공개적이든 은밀하든, 품위가 있든 없든, 법의 형식을 갖추든 아니든 어떻게 해서든 관계를 가지려 합니다. 이는 틀림없이 기혼자의 가정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풍기와 도덕을 파괴하게 됩니다. 배우자와 자식은 버려지고 방치되며, 가정은 파탄납니다. 그리고 혼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보호받지 못하고, 품위와 권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도덕은 이런 관계의 시작부터 이미 치명타를 맞았고, 양심은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규칙을 어기고 관계에 빠졌을 때 마비됐습니다. 게다가 사회의 법은 혼외 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가 반복된다면 품위와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특히 아이라도 딸린 경우에는 부담이 점점 더 커집니다. 결국에는 소외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엄에 어울릴까요? 이런 처지라면 정신적 문제가 생기거나, 문제에 대한 반발로 이성 모두를 미워하거나, 거리낌 없이 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모든 기혼자는 행복하고 원만하며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잘못이든 아내의 잘못이든, 불행한 남편은 다른 상대를 찾아 위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경우, 정직한 경로를 통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면, 정직하지 않은 경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결과 부도덕하고 음란한 관계에 빠져 사생아, 낙태, 기타 그치지 않는 두통거리로 시달리게 될지 모릅니다.

이는 추악하고 불편한 사실이지만,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과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해 이슬람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불행하고 불만족한 남편이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해 공개적으로 책임을 지고, 두 아내에게 모든 의무를 똑같이 이행하면서 살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여자 쪽에도 마찬가지로 요구를 만족시키고 소망을 실현하며 정당한 열망과 타고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합니다. 결혼하여 법적 아내로 모든 권리와 특권을 누리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방관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솔직하며 현실에 기반합니다. 이슬람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합법적이고 떳떳하며 자비로운 것입니다. 이슬람이 이러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이유는 위선적 인간관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은 법적으로 한 여자와 결혼했으면서 실제로는 은밀한 관계를 나누는 남성의 태도를 정당하고 도덕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슬람은 간통을 묵과할 수 없으며 엄격하게 반대합니다. 간통한 남녀, 간음한 자들에게는 엄한 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일부다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대

안에 의지해야 하는데, 이슬람은 이런 대안을 수용하거나 특별히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수양을 쌓아 모든 면에서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일부다처가 필요 없습니다. 이슬람의 주요 관심은 개인의 존엄과 안전을 유지하고 사회의 고결함과 풍기를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사회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혼란과 무책임한 행위가 사회의 기초를 파괴하도록 내버려두는 쪽이 나을까요, 아니면 현실적 문제를 인정하고 이슬람의 해결책을 시행하는 쪽이 나을까요. 첨예한 문제들을 무시하고 위선과 외설을 용납해 간통과 밀통을 묵과하는 것이 사회를 위하는 길일까요. 사실상 실효를 거둘 수가 없고 불법적이고 음란한 배출구로 몰아갈 뿐인데, 남녀의 욕구와 타고난 열망을 억누르는 것이 더 건전할까요. 사회적, 윤리적, 인도적, 영적 관점에서 고려하든,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고려하든, 개인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법의 보호 하에 교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여성의 관점에서 보아도, 이슬람이 여성을 합당하게 존중하고, 여성의 권리와 고결성을 안전하게 지키며, 떳떳하게 교제하려는 정당한 욕구를 인정하고, 사회에 귀속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며, 사랑하는 관계를 보살피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접근하여 교제하거나 자기 남편의 부양과 친절을 나누는 것이 못

마땅하고 불쾌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편이나 믿을 만한 반려가 없는 다른 여자의 입장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녀들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녀들에게는 안정의 권리도 없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외면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만약 자신의 남편이 전사하고 홀로된다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회에 귀속되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지 않을까요? 가득 채워 받을 수 없다면, 비유를 들어 말하자면, 반 잔 혹은 반 남편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보호와 안전을 누리는 것이 모두 다 빼앗기는 것보다 더 행복하지는 않을까요? 만약 사랑하는 남편이 모임이나 파티에 갔다가 이러한 여성에게 빠진다면, 그녀 자신과 자식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남편이 가족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새출발 한다면 어찌될까요? 일생에 하나뿐인 남자가 다른 여자들과 관계를 갖고 남몰래 부양하거나 숨겨 둔 애인을 찾아간다면 어떨까요?

이런 남자는 해로울 뿐 아니라 위협적인 존재이며 비열하고 악랄한 인간입니다. 말인즉 옳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로만 하는 저주가 당사자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고통 받는 사람은 여성, 즉 법적 아내와 불법적 애인입니다. 관련된 두 여성이 보살핌과 부양을 똑같이 공유하고 똑같은 관계로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 남자는 이제 사실상 한 아내만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는 비열한 위선자입니다. 하지만, 당장 피해가 생기고 영혼들이 상처를 입고 있습

니다. 충분한 사정과 이유가 있다면, 이슬람이 개입하여 기혼 남자의 재혼을 허용하는 것이 당사자 모두를 보호하는 일이자 부정과 해를 막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구하는 일입니다.

2. 결혼을 했더라도 아내가 임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한 의미에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인류 보존에 기여하려면 자식이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자식을 두는 것은 결혼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므로, 남자는 선천적으로 자기 이름을 보존하고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자식을 원합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남자에게는 보통 다음 세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1) 자식을 가지려는 욕구를 억눌러 잊는다.

(2) 자식이 없는 아내와 이혼한다.

(3) 아이를 입양하여 그 아이에게 자기 이름을 준다.

이런 대안 모두 생명과 본성에 관한 이슬람의 일반적 견해에 맞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정당한 욕구와 타고난 열망을 억누르라 권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본성의 억압이 제도에 포함되지 않기에, 이슬람은 적법하게 이러한 열망과 욕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것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아내 본인이 원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된 것이 아니기에 아내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혼은 정당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혼이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일이고,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한편으로 아내에게는 남편의 도움과 부부애가 필요합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아쉬움과 절망에 빠졌을 때 아무런 관심조차 없이 이혼하는 건 너무나 잔인한 처사입니다.

모든 아이는 친부의 이름을 붙여야 하며, 친부의 이름을 모를 경우에는 믿음의 형제로 불르는 것이 규정이기 때문에, 입양을 고려할 여지가 없습니다. (꾸란 33:4 – 5) 물론 이는 아버지나 보호자를 모르는 아이가 보살핌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입양이란 방식이 아이에게 안전하고 만족하는 생활을 보장해주는 방법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친부모를 온전하고 완벽하게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사건, 복잡한 법원소송절차 등 가족 간 분쟁은 입양만이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법원이 하루에 처리하는 재판, 소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친부모는 재판으로 낯선 가정에 입양된 자기 자식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낯선 가정에 있는 것을 참고 볼 수 있을까요? 양부모가 자기 자식을 올바로 양육하고 제대로 보살펴 주리라고 얼마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자란 후 친부모가 버려서 양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친부모가 누군지 모르거나 혹은 친모가 가난, 수치, 불안정이 두려워 자식을 버렸다는 것을 알면 버림 받은 당사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친척이나 식구

모두가 입양한 아이를 좋아할까요? 낯선 아이가 들어와서 자기네 이름을 갖고, 자기들이 상속받을 재산을 그 아이와 나눠 상속받는 것을 좋아할까요? 친부모가 자기 자식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입양한 아이가 친부모와 같이 살고 싶어하면 기른 양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처럼 복잡하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 친부모, 양부모, 양부모의 가족, 친척, 사회에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입양은 많은 사람이 무책임한 행동과 관계에 빠져들도록 조장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요즈음에는 입양이 상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뉴스 매체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자식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여러 문제 때문에 이슬람은 이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무슬림이 이를 행하는 것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꾸란 33:4 - 6)

이런 이유로 이슬람은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슬람은 이런 상황의 남자가 재혼하여 선천적인 요구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자식 없는 아내를 부양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에도 입양을 하거나, 이혼하거나, 본능을 부자연스럽게 혹은 의지로 억누르는 대신에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허용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 가능한 최선을 고르자면 중혼하는 것입니다. 이는 난관을 벗어나 모든 면에서 정상적이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3. 아내가 결혼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와 때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만족스러운 반려자가 되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남편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아내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소지가 있으며,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아내의 잘못은 아닙니다. 천성적으로, 지병으로 인해, 혹은 산후조리 기간이나 특정한 기간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모든 남자가 자제하고 천사같이 행동하지 못합니다. 애석하게도 불륜과 기만, 위선과 간통의 수렁에 빠지는 남자도 있습니다.

아내가 병상이나 해산 후 자리에 누워 있는 동안, 남편이 집안일을 봐주러 온 여자와 열렬한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아내가 어려운 분만수술이나 외과 수술을 받는 동안, 남편이 다른 여자와 연애를 벌이는 사태가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환자의 동생이나 친구가 이 비극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아마도 좋은 의도로 병든 언니나 아끼는 친구를 돕고, 아이를 보살피거나, 집안일을 잠시 돌보러 왔다가 일이 크게 벌어졌을 것입니다. 아내가 집이나 병원에 누워 있으면 남편은 외롭고 우울해집니다. 아내를 도우러 온 여성도 돕는 길이라 생각해 남편에게 동정과 이해심을 보여 줍니다. 그런 태도가 진심에서 나온 것일 수도, 아니면 그런 척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이런 계기를 끝까지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는 여기저기 상처뿐인 마음과 파탄 난 가정입니다.

이런 비극이 상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드물게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문에도 종종 등장하고, 법원 기록에도 흔히 등장합니다. 여기서 남자의 행위는 비열하고 부도덕하며 음란하고 악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인즉 옳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난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다고 현실이 달라지고 인간성이 바뀔까요? 일은 벌어졌고, 죄는 되풀이해 저질러졌으며, 이 예민한 문제는 실질적인 해결을 요구합니다.

입법자는 이들의 행위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할까요? 이 남자가 자신의 성실성과 사회의 도덕적 기초를 파괴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할까요? 정직과 성실 대신 위선과 부도덕이 들어서는 것을 허용해야 할까요? 공공연하게 금지하고 비난하면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고 자기 양심을 일깨울까요? 명백한 금지는 도리어 위선과 은밀한 간통과 무책임만 남겼습니다.

이슬람마저 속수무책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슬람은 도덕적인 기준을 놓고 타협하거나 위선과 간통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슬람은 만족을 가장해 속일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단순히 공공연한 비난이나 금지에만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해악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

니다.

이 남자를 나락으로부터 구하고 관련 여성이 불필요하게 복잡한 문제에 휘말려 들지 않도록 보호하며, 해악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슬람은 앞서 언급한 단서와 조건을 붙여 일부다처제를 허용했습니다. 이는 일종의 긴급조치로 볼 수 있으며, 이름뿐인, 게다가 상징적인 일부일처제와 무책임한 남녀 관계보다 건전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거나 혼란에 빠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이 해결책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할 점이 있습니다. 일부다처를 시행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에 대해 불공평하고 해로운 일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일부일처를 원칙으로 합니다.

4. 사회적 특성으로 남성에게 일이나 행동을 요구합니다. 사업차 여행, 출장 등 집을 떠나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 모두가 책임감 있게 충실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지 않은 남성이 출장 기간이 길어질 경우 낯선 여자와 불륜에 빠져 죄를 짓습니다. 쉽게 뿌리칠 수 있는 유혹조차 우유부단하여 뿌리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죄에 빠지는데, 이것이 가정 파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한된 일부다처제를 적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경우입니다. 이런 남성의 경우, 제멋대로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죄를 짓느니 차라리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고, 두 번

째 가정을 갖는 편이 낫습니다.

이편이 아내에게도 더 낫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되 법적 규정과 윤리 원칙에 구속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다른 형태보다는 안심될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배우자에 다른 이성이 끼어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책임을 지고 윤리적으로 구속을 받을지, 아니면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교제를 계속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아마도 대안을 선택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아내가 피해를 입거나 권리가 침해된다면 언제라도 법에 호소할 수 있고, 이혼하는 쪽이 이롭다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일부다처제를 적용하면, 남성의 성실성과 두 번째 여성의 존엄성과 사회의 윤리가치가 더 많이 보호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사례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드물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무슬림이 일부다처를 행하는 경우가 더 보기 어렵습니다. 일부일처제 사회에서 바람둥이 남편과 아내 관계보다 일부다처제에 의지하는 무슬림이 훨씬 드물다는 말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부다처제에도 위험성과 많은 전제조건이 따르지만, 무관심, 위선, 불안정, 부도덕, 외설보다는 낫습니다. 일부다처제의 도움으로 남녀가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

게 자신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부다처제가 심리적, 천성적, 감정적 성격을 띠는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줄여줍니다. 이는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행하는 예방 조치입니다.

그러나 일부다처제는 이슬람의 신조가 아닐뿐더러 명령도 아닙니다. 일부다처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예외적 허용이고,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 일부에 대한 해결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슬림은 일부일처제만을 고수하는 많은 사람과는 달리, 합법적인 조건부 일부다처가 실속 없는 결혼 생활과 피상적 일부일처제보다 낫다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무슬림의 입장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일부일처가 일부다처보다 바람직할 뿐 아니라 그것이 원칙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필요할 때만 일부다처를 고려하여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논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선지자 무함마드의 결혼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선지자의 이상적 특성과 그가 혼인을 맺은 상황을 이해하는 무슬림에게는 이러한 결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무슬림은 무함마드의 결혼 사례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이슬람이나 선지자에게 불명예스러운 무책임하고 성급한 결론에 이르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을 내세우거나 다른 사람의 결론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몇 가지 사실을 제시하여 독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

도록 하겠습니다.

1. 이슬람에서 결혼 제도는 높은 지위를 차지합니다. 사회의 건전한 존속을 위해 꼭 필요하며 가급적 하도록 권유합니다

2. 무함마드는 결코 자신이 불사신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류에게 전하기 위해 선택된, 죽게 될 인간이라는 사실을 늘 되풀이하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독특하고 뛰어났지만, 인간답게 살다가 인간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당연한 일로 비종교적이거나 저주받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3. 무함마드는 무더운 지역에 살았습니다. 이런 지역의 기후에서 사람은 육욕에 짓눌리고 몸은 조기에 성숙하며 모든 계층의 사람이 쉽게 욕망을 채우기 일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함마드는 25세에 결혼하기 전까지 여자에게 손을 대본 적이 없습니다. 아라비아 전역에서 그는 나무랄 데 없는 성격으로 유명하였으며, 도덕적 생활의 최고 기준을 뜻하는 칭호인 '알-아민'으로 불렸습니다.

4. 그 지역에서 볼 때 이례적으로 늦게 이루어진 첫 번째 결혼 상대는 카디자라는 미망인이었습니다. 무함마드보다 15년 연

상인 데다 두 번이나 과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함마드는 청혼을 수락했습니다. 당시에 무함마드가 육체적 정열을 추구했다면 얼마든지 젊은 아내를 얻었을 것입니다.

5. 무함마드는 50세가 넘어 아내 카디자와 사별할 때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이브라힘을 제외한 모든 자녀가 그녀에게 태어났습니다. 카디자가 65세를 넘길 때까지 함께 살았고, 그녀 생전에 다른 여자와 결혼하거나 하나뿐인 아내 이외의 여자와도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6.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그의 나이 40세, 카디자의 나이 55세를 넘긴 때였습니다. 박해와 위험이 쉼 없이 무함마드와 교우들에게 가해졌습니다. 이런 고난의 와중에서 아내와 사별했습니다. 무함마드는 한동안 홀로 지냈는데, 박해 초기에 남편을 따라 아비시니아로 이주한 싸우다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죽자, 그녀는 보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무함마드의 사명을 위해 남편이 사망한 터라, 그녀는 직접 선지자에게 호소하였고 선지자는 보호를 베풀어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특히 젊거나 아름답거나 호감이 가는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성질 급하고 산만한 평범한 과부였습니다. 같은 해에 선지자는 아끼는 동료 아부 바크르의 딸이며 일곱 살이었던 아이샤에게 청혼했습니다. 이 결혼은 메디

나로 이주하고 얼마 지나고 나서 성사되었습니다. 그는 56세가 될 때까지 다른 아내를 더 두지 않았고, 5, 6년간 두 아내와 살았습니다. 이 두 번의 결혼은 성적 욕망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7. 56세에서 60세 사이에 선지자는 잇달아 9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생애 마지막 3년에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혼은 약 5년에 걸쳐 이뤄졌는데, 이는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무슬림이 결정적인 전투를 벌이고 대내외로 끝없이 되풀이되는 분쟁에 말려든 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또 이 시기에 이슬람법이 정립되었고, 이슬람 사회의 기반이 놓이고 있었습니다. 매우 흥미 있는 현상은 무함마드가 당시 사건의 가장 지배적인 중심인물이었으며 그의 결혼 대부분이 이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육체적 매력과 성적인 이유로 이 결혼들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8. 무함마드는 소박하고 엄격하며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동시에 국가 원수, 재판장, 총사령관, 교사의 역할을 했던 그는 매우 바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밤의 삼 분의 이(2/3)를 기도와 명상으로 보냈습니다. (꾸란 73:20) 아라비아의 왕이자 통치자였지만 그의 가구는 작은 깔개, 주전자, 담요 같이 소박한 물건 뿐이었습니다. 어찌나 엄격하고 검소한 생활

을 했던지 한 번은 아내들이 세상 재미도 좀 보라고 했지만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교, 꾸란 33:48) 그의 생활은 분명 호색과 정욕에 불타는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9. 무함마드가 결혼한 아내들은 어린 소녀였던 아이샤를 제외하고는 모두 과부나 이혼녀였습니다. 아내로 맞이한 이들 과부와 이혼녀 중 육체적 매력이나 아름다움으로 알려진 사람은 없습니다. 이들 중 몇은 나이가 위였고, 그들 모두가 실제로 보호의 손길을 구했거나, 또 몇몇은 정치적 선물로 보내졌지만, 법적인 아내로 맞았습니다.

선지자가 결혼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로 볼 때 선지자의 결혼이 육체적 요구나 생물학적 충동에 응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사로운 의도나 육체적인 욕구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아내를 부양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친구든, 적이든, 무함마드의 결혼 때문에 그의 도덕적 성실성이나 영적인 우월성을 의심하는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함마드가 여자와 교제가 전혀 없이 25세에 최초 결혼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째서 그는 두 번이나 과부가 되었던 15년 연상의 부인을 선택했을까요? 50세가 넘어 카디자가 죽을 때까지 그녀와만 같이 산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는 특별한 매력 없는, 의지할 데 없는 과부와 이혼녀들을 받아들였을

까요? 편하고 안락한 생활 대신, 무슨 이유로 엄격하고 힘든 생활을 했을까요? 그의 사명과 경력이 위태롭던, 생애에서 가장 분주한 5년 동안에 결혼 대부분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렘 Harem 생활과 정욕이 그를 사로잡았다면 어떻게 그와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외에도 많은 논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자에 대한 남자의 사랑과 욕망의 견지에서만 해석해도 될 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진지하고 정직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무함마드의 결혼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면, 이들 결혼의 배후에 있는 실제 이유가 어김없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선지자는 인류의 이상적인 본보기로서 이 세상에 왔으며, 생활의 모든 면에서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특히 그의 결혼이 놀라운 사례입니다. 그는 다정한 남편이자, 사랑을 주는 소중한 반려자였습니다. 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경험과 도덕적인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한 명의 아내와 두 명 이상의 아내, 나이든 여자와 젊은 여자, 과부와 이혼녀, 상냥한 여자와 신경질적인 여자, 유명한 여자와 비천한 여자 등을 아내로 하여 함께 살았습니다. 친절과 위로의 본보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육체적 쾌락은 아니었습니다. 도덕적 시련이자, 고된 과업이었습니다.

2. 선지자는 도덕을 확립하고, 모든 무슬림에게 안전과 보호, 윤리적 성실과 떳떳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의 사명은 생활 속에서 시험 받았고, 정형화된 이론 형태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힘든 역할을 맡았고, 불편 속에 자기 직분을 이행했습니다.

전쟁과 박해는 무슬림에게 많은 과부와 고아를 짐으로 안겨 주었습니다. 이들은 생존한 남자들이 보호하고 부양해야 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을 잃은 가족에게 가정을 만들어주어 다시 안정을 찾게 하는 것이 선지자가 세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선지자의 사적인 후원과 보호를 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여건과 이슬람을 위해 치른 희생을 너무나 잘 알았던 선지자는 어떻게 해서든 구제해야 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 방법이 무거운 책임을 감수하고서라도 아내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내 여러 명을 부양했습니다. 즐겁지도 쉽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하지 않는 일을 동료에게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과부와 고아의 처지를 회복시키는데 직접 모범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쟁 희생자 가족은 무슬림에게 맡겨진 사람들이었으므로 공동으로 보살펴 주어야 했습니다. 이 때에 한 일이 바로 스스로 책임과 모범을 보인 것이며, 항상 그렇듯이 선지자의 부담이 가

장 크고 무거웠습니다.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고, 동료 중에서 가장 많은 아내를 맞이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3. 무슬림은 많은 전쟁 포로를 잡았는데, 이들에게도 안전과 보호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살해되거나 인간으로서 권리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포로 중에는 가장을 잃은 여성과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첩이나 정부가 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정식 결혼을 통해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무슬림에게 또 하나의 도덕적인 부담이었으며, 공동 책임으로 분담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었습니다. 이에 무함마드는 포로 중 두 명과 결혼함으로써 책임 일부를 떠맡았습니다.

4. 선지자가 한 결혼의 일부는 사회·정치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슬람의 장래를 고민했던 그는 무슬림 사회를 가능한 모든 유대로 견고하게 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계승한 칼리프 아부 바크르의 어린 딸, 그리고 두 번째 칼리프 우마르의 딸과 결혼한 이유입니다.

무함마드는 주와이리아와 혼인으로 무스딸리끄 가문 전체와 이들과 동맹한 부족들의 이슬람 지지를 얻었습니다. 샤피아와 혼인을 통해서는 아라비아의 적대적 유대인들이 차지한 큰 지역을 중립화시켰습니다. 이집트 출신의 콥트 기독교인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서 유력한 왕과 정치적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무함마드가 아비시니아의 네구스가 보낸 자이납과 혼인한 것 역시 정치적 우호의 표시였고 아비시니아에서 무슬림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5. 이처럼 결혼을 통해 선지자는 신분제도와 인종·민족적 허영과 종교적 편견을 일소하고자 했습니다. 선지자는 비천하고 가련한 여자와도 결혼했으며, 이집트 출신 콥트 기독교인, 종교와 민족이 다른 유대인, 아비시니아 출신 흑인과도 결혼했습니다. 선지자는 단지 형제애와 평등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심으로 실천했습니다.

6. 법적인 이유로 또 타락한 전통을 폐기하기 위해 결혼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이납과 결혼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이납은 노예에서 해방된 자이드와 이혼한 여자였는데, 이슬람 이전에는 이혼녀와 재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무함마드는 이전 관습대로 자이드를 양자로 삼고 아들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양자 관습을 폐지했습니다.

무함마드는 실천을 통해 최초로 이것이 불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무함마드는 양자의 이혼녀와 결혼으로, 양자가 입양에 의해 실제로 양부의 친자가 되지 못하며, 이혼녀도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자이납은 바로 무함마드의 사촌이었습니다. 그

녀는 자이드와 결혼하기 전에 무함마드에게 청혼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무함마드가 청혼을 거절했지만, 그녀가 이혼한 후 이혼녀의 합법적 재혼과 양자의 지위라는 두 가지 입법상의 목적을 위해서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자이납에 얽힌 이야기를 무함마드의 도덕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왜곡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왜곡된 그 이야기는 여기에서 고려할 가치가 없습니다. (꾸란 33:36,37, 40)

이제까지 선지자의 결혼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무슬림은 무함마드가 최고의 도덕 규범을 지녔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완벽한 본보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결혼과 이혼

많은 오해와 왜곡된 개념이 퍼져 있는 것으로 이슬람에서 결혼의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간략히 언급한 데 이어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이슬람에서 결혼은 양 당사자가 맺는 상거래가 아닙니다. 대조하고 물질적 이득과 의무를 저울질하는 세속 계약도 아닙니다.

결혼은 엄숙하고 신성합니다. 단순히 육체적, 물질적, 세속적 견지에서 규정함은 잘못입니다. 윤리적 자애, 영적인 향상, 사회적 결속, 인간적 안정, 평화와 자비가 결혼을 구성하는 주

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결혼은 하나님이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서약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법에 의해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허락하고 감독하는 사람을 위한 떳떳한 교제이며, 꾸란(30:21)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한 자비의 징표입니다. 그러므로 이슬람의 결혼은 양 당사자와 하나님 사이의 영속적인 관계와 부단한 조화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혼인 서약을 맺는 무슬림은 좋든 나쁘든, 더 좋아지든 더 나빠지든 결혼을 원만하게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이슬람은 몇 가지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규정들은 결혼이 목적에 완전히 합치될 것을 보장합니다.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쌍방은 서로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이는 잘 모르는 상대와 결혼함으로 부도덕한 일을 하거나 기만 혹은 착취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2. 남자는 여자의 재산이나 집안 혹은 단순히 육체적 매력이 아니라, 종교적 헌신, 도덕적 성실, 성격 등 영속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할 것을 권합니다.

3. 여자는 청혼하는 남자가 자신과 어울리며,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한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남자의 청혼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남자와 결혼하면 아내로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고 결혼 생활마저 파탄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여자는 자신의 기준과 청혼한 남자의 재력에 따라 결혼 지참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참금을 거의 혹은 전혀 받지 않고 남자를 맞아들이고자 한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남자에게 여자에게 지참금을 준다는 것은 곧 남자가 여자를 원하고 필요로 하며 기꺼이 재정적 혹은 기타의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지참금은 여자가 안전을 누릴 것이며, 남자가 물질적 이득을 노리는 의도로 결혼하는 것이 아님을 내포하는 상징입니다. 이는 당사자가 서로에 기대하는 것과 기대하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5. 결혼은 공개적으로 하며 즐거움이 넘치는 가운데 축복받아야 합니다.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가 필수 조건이며, 이러한 동의 없는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

6. 모든 결혼은 합법성을 얻기 위해 성인 두 명이 증인을 서고

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7. 아내를 온전하게 부양하는 것은 남편의 의무입니다. 여자는 결혼으로 부양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여자에게 재산이나 소유물이 있는 경우, 결혼 전이나 후나 여자의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재산에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곧 결혼을 숭고한 목적에 한정하고 온갖 쓸데없는 목적과 단절하게 합니다.

이슬람이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결혼을 행복한 교제, 부단한 조화와 영속적인 평화의 확고한 토대로 만들기 위해 가능한 여러 장치를 마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행위란 변하기가 쉽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슬람은 현실적 인생관을 견지하고 예기치 않은 사건도 고려합니다.

결혼은 고상하고 숭고한 목적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슬람은 제구실을 못하거나 효과 없는 결혼생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름뿐이거나 부질없는 결혼 생활은 무의미합니다. 원만한 결혼 생활을 못한다면 아예 그만두는 것이 맞습니다. 결혼은 엄숙한 서약인 만큼 보람도 없이 침체한 상태로 방치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이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제구실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혼으로 청산하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이름뿐인 무익한 서약을 지킬 의의가 없기 때문이며, 이렇게 해서 존중할 수 없는 서약에 매인 사람을 풀어 주

는 것입니다.

규정에 근거해 예방책이 적용되는 결혼 생활이 제구실을 못 할 때는 매우 심각한, 화해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선지자는 이혼을 가리켜 모든 합법적인 일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증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최종적이고 절망적인 조처를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몇 가지 시도를 해보아야 합니다.

(1) 당사자는 다툼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당사자가 해결을 못 하면, 남편과 아내의 친척 가운데 각각 한 사람씩 대표에게 일을 맡겨 둘 사이를 중재하여 다툼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3) 그래도 안 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할 때, 이슬람법은 양 당사자 모두 이혼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며, 각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슬람법은 남자나 여자 한쪽에만 국한하지 않고, 부부 모두에게 이혼 권리를 부여합니다. 둘 중 한쪽이 이혼에 반대하거나 상대와 함께 지내는 것이 불안, 불행하다고 생각할 경우, 이혼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개입하여 모든 권리를 검토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 후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요즘의 이혼숙려제도와 비

슷합니다. 이 기간에도 남편이 아내를 부양해야 합니다. 여성은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대기 기간은 여성의 형편에 따라 3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인데, 부부가 자신들의 태도를 더 진지하게 재고하고 깊이 생각할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 기간에 재결합을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별거하게 되면 상대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고 재결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결합 후 관계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전과 마찬가지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즉 두 번째 결합도 실패하면 최종적인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 기간이 끝나면 자유롭게 다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쌍방은 더는 서로에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이혼을 허용함으로써, 이혼보다도 더 해로운, 불행하고 차갑고 침체된 결혼 생활을 용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당사자의 결혼과 이혼을 허용함으로써 보람 있고 효과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처럼 이슬람은 생활 속 여러 문제와 상황을 대면하고 대처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혼의 허용이 결혼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에서 잘못을 저지른 쪽은 이혼을 청구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구실을 다 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결혼 생활만이 구속력이 있음을 깨달아 양 당사자는 결혼 생활을 지속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잘못된 행위를 하기에 앞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슬람은 각 당사자가 결혼 전 배우자 선택과 결혼 후 배우자 대우에 신중을 기하게 합니다.

이슬람이 당사자 상호 동의로 혹은 법원의 개입으로 이혼을 허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도덕을 확고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이슬람은 충실하지 못한 배우자로 인한 다른 쪽의 부당함을 방치하지 않으며, 부도덕하고 음란한 행위를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이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적으로 행복하게 함께 살든지 아니면 품위를 지켜 떳떳하게 별거하라.' 이는 단지 이혼으로 한 사람의 품위나 도덕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슬림은 이혼을 위하여 몇 년씩 배우자와 별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대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혼 제도가 별거를 고려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별거는 부도덕하고 음란한 행위를 수반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별거할 때는 결혼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습니다. 별거 당사자는 공식적으로 결혼 상태에 있지만, 실제 얼마나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별거 당사자는 형식적으로 얽매여 있지만 어떤 제약이나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만큼 해이하기 쉽습니다. 이러면 이혼도 재혼도 할 수 없습니다. 혼외 관계에도 제약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흔한 만큼,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별거가 긍정적으로는 이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도덕적 희생과 사회가 지불할 대가는 적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이를 수용하고 인정하기 힘듭니다. 만약 이를 인정한다면, 윤리적 가치 체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에 만연한 간통과 이로 인한 이혼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혼을 위해 간통하거나, 간통을 가장하는 일은 인간 존엄성을 크게 모욕하고 도덕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다.'

간통에 대한 이슬람의 견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지만, 간통을 하거나 간통을 가장한다고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 판결을 위해 간통하거나 간통을 가장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다른 식으로는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객 전도된 수치스러운 행위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한 이슬람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이혼해야 한다면 품위를 지키고 상대를 존중해야 합니다. 결혼생활에 이슬람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별거나 간통이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극단적 엄격함에서 비롯한 극단적 반응인 쉬운 이혼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성에 관련된 제도라면 현실을 반영해야 하고, 균형을 지켜야 하며, 여러 조건과 상황에 대처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제도는 설 땅을 잃고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꾸란 2:224 – 232, 4:34 – 35, 4:127 – 130 참조)

끝으로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모든 사회, 모든 종교마다 제각기 결혼 생활을 끝맺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율은 산업화된

세계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이혼 관련 법은 점점 더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에서 이혼은 여전히 중요한 도덕적 행위입니다.

기혼자는 배우자에게 친절하고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명과 함께 하나님이 많은 미덕과 장점을 심어준 배우자라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생길 수 있다는 가르침도 받습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으로 갈라서야 할 때라도 서로를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품위를 지켜 명예롭게 갈라선다면, 하나님은 자비를 주십니다.

결혼 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중심으로 합니다. 꾸란에서 이혼을 다룬 구절은 형식적 규정이 아닙니다. 이 구절들은 고귀한 명에 따른 도덕적 권고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당사자의 도덕적 책임은 이혼 너머까지 미칩니다. 이혼을 도덕적 행위에 포함하는 것은 실로 윤리 체계의 높은 경지입니다.

이슬람에서 여성의 지위

꾸란과 초기 무슬림의 태도를 보면, 여성이 적어도 남성만큼 생명에 필요한 존재이고, 남성보다 열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외래 문화의 영향이 아니었다면 무슬림은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과 남성의 지위는 당연하게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연한 기정사실이었

기에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다른 종교나 제도가 결코 허락하지 않았던 권리와 특권을 여성에게 부여했습니다. 문제를 부분적으로가 아닌, 비교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조사하면 이러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와 책임은 남성과 평등하지만,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평등과 동일은 별개의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동일하지 않지만 동등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완전히 똑같은 남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평등과 동일의 차이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평등은 바람직하고 공평·공정한 것이지만, 동일은 의미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동일하게 창조되지 않고 평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감안한다면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성과 남자의 권리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성이 남성보다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지위가 동일했다면 여성은 남성의 복제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의 복제물이 아닙니다.

이슬람에서 여성이 공평한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은 이슬람이 여성을 합당하게 고려하고 여성을 인정하며, 여성의 독립적 인격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악마가 여성을 만들어 낸다거나 악의 씨라고 낙인 찍는 것은 이슬람과 전혀 관계 없는 일입니다.

꾸란에서, 여성은 남성의 선택을 무조건 받들어야 한다거나 남성을 지배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성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로 논쟁을 벌인 것도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였습니다. 이슬람 역사상, 무슬림이라면 그 누구도 여성이 인간으로서 지닌 지위와 영혼의 소유 그리고 기타 훌륭한 영적 자질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교의 믿음과는 달리, 이슬람은 하와에게 원죄의 책임을 씌우지 않습니다. 꾸란은, 아담과 하와가 모두 유혹을 받았으며, 둘 다 죄를 범했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두 용서하셨으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 사람 모두에게 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꾸란2:35 – 36, 7:19,27, 20:117 – 123)

꾸란은 원죄의 책임이 아담에게 더 많았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과 의심은 다른 종교의 원죄론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이슬람은 이러한 편견과 의심을 정당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모두 똑같이 잘못을 범했고, 하와에게 죄가 있다면, 아담에게는 더 한층 더 많은 죄가 있다고 해야 합니다. (본 논의와 관련해서 '2장. 신앙의 기초'에서 '죄'의 개념을 참조하십시오)

이슬람에서 여성의 지위는 매우 독특한 것이어서 다른 체제에서 비슷한 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사회주의 체제 국가나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 국가를 보더라도, 여성이 행복한 상황에만 놓여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여성도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며, 종종 남성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더 적은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여성은 때론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리기도 하지만, 현재 지위에 도달하기 위해 수십 년, 수세기 동안 싸워왔습니다. 여성은 교육받을 권리와 노동의 자유를 얻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렀으며 타고난 많은 권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영혼을 지닌 하나의 인간으로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희생과 투쟁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이슬람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성에게 제공한 것을 아직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현대 여성의 권리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며, 누군가 배려를 베풀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성의 오늘날 지위는 힘으로 쟁취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나 남녀 간의 동의 혹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루어진 변화가 아닙니다. 여성은 실력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여러 방면에서 일어난 상황이 여성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경제적 압박, 산업 발전의 필요 등을 이유로 여성은 가정 밖으로 밀려나 일하고, 직업 교육을 받아 생계를 위해 애쓰는 남성과 동일한 입장이 되어, 남자와 동일하게 생활 전선에 뛰어든 것입니다. 전쟁 등 여러 상황과 여성 자신의 투쟁으로 새로운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모든 여성이 이런 상황을 환영하고 결과에 기꺼이 만족하

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대 여성이 어떤 권리를 누리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무슬림 여성의 권리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슬람이 여성을 위해 제정해 놓은 것은 여성의 본성에 어울리고, 여성에게 충분한 안전을 보장하며, 수치스러운 상황과 불확실한 인생 행로에 빠져들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현대 여성의 지위와 자립을 위해 무릅써야 하는 위험을 여기서 모두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른바 여성의 권리에 따른 결과로 여성이 겪는 불행과 좌절을 파헤칠 필요도 없습니다. 현대 여성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유와 권리로 인한 많은 가정의 불행을 조정해 보자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여성이 자유롭게 독립해서 노동하고, 남자와 동일해진 것으로 행동할 권리를 행사하지만, 그 대가로 유감스럽게도 가족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은 이슬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지위입니다. 이제부터 여성에 관한 이슬람의 태도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1. 이슬람은 인류의 번성에 있어 여성을 남성의 완전하고 동등한 배우자로 인정합니다. 남자는 아버지로서 여자는 어머니로서 생존에 필요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여성의 역할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보조를 맞춤으로 여성은 모든 점에 있어서 동등한 몫을 차지합니다.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동등한 책임을 지며, 배우자와 같은 자질과 존엄성을 갖습니다. 꾸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 사람들이여! 그대를 한 쌍의 남녀로 만들고, 그대를 민족이 되게 하였음은, 서로가 알아 보게 하려함이라."
(꾸란 49장 13절)

2. 여성은 남성과 공평하게 개인과 사회에 책임을 가지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여성은 인간의 특성과 영적 열망을 가진 독립된 인격입니다. 여성의 인성은 남성보다 열등하지도 비정상이지도 않습니다. 둘은 서로가 한 쌍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답하시니, '그대의 행위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리니, 남성이든 여성이든, 서로가 동료이니라."
(꾸란 3장 195절)

3.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교육과 지식을 추구합니다. 이슬람은 무슬림에게 지식 추구에 있어 남녀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약 14세기 전 무함마드는, 지식의 추구가 남녀를 막론한 모든 무슬림의 의무라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의 내용은 명백하므로 무슬림은 이를 실천해왔습니다.

4.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를 누립니다. 여성의 건전한 의견은 고려해야 하며, 여성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경시할 수 없습니다. 꾸란과 역사 기록을 보면, 여성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했을 뿐 아니라, 무슬림 지도자인 선지자 무함마드와 진지한 토론을 했습니다. (꾸란 58:1 – 4, 60:10 – 12) 그뿐 아니라 무슬림 여성이 공익에 관한 입법상의 문제에 견해를 표명하고 칼리프와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시 칼리프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마르 이븐 알-카탑이 칼리프 직에 있을 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5. 역사 기록을 보면 여성이 초기 무슬림과 더불어 특히 비상사태 시에 공공 생활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도 부상자 간호와 군량 마련, 전쟁 뒷바라지 등을 위해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여성은 피난가거나, 무가치한 존재로 간주되지 않았으며, 영혼을 박탈당하지도 않았습니다.

6. 이슬람은 여성에게 계약을 맺고 사업할 권리, 독립하여 돈을 벌고 소유할 권리를 동등하게 부여합니다. 여성의 생명, 재산, 명예는 남자의 그것만큼 신성한 것입니다. 여성이 죄를 범할 때 받는 형벌은 남성에 비해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습니다. 여성이 피해를 입을 경우, 남성과 동등하게 응분의 보상을 받습니다.

(꾸란 2:178, 4:45,92 – 93)

7. 이슬람은 이러한 권리를 통계로만 열거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수적 신조로 실천하도록 조처를 해두었습니다. 여성에 편견을 갖거나 남녀를 차별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꾸란은 연속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누누이 책망합니다. (꾸란 16:57 – 59, 62, 42:47 – 50, 43:15 – 19, 53:21 – 23)

8. 인류의 생존에 필요 불가결한 존재로 인정하여 여성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슬람은 여성에게도 상속권을 부여해왔습니다. 이슬람 이전에는 여성에게 상속권이 없었을 뿐 아니라, 여성은 상속하는 재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은 양도 가능한 재산이었던 여성을 상속자로 만들어 여성의 선천적인 인격을 인정했습니다.

아내, 어머니, 누이, 딸을 막론하고 여성은 사망한 친척의 재산에서 일정 몫을 상속받습니다. 상속분은 고인과의 촌수와 상속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성의 상속분을 줄이려거나 빼앗고자 하는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소유자는 재산의 삼분의 일의 한도 내에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상속의 경우, 평등과 동일성의 문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

습니다. 원칙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게 고인이 된 친척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를 가지지만 상속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자가 한 몫만을 받는 반면, 남자는 두 몫을 받기도 합니다. 이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특별한 경우로 남성이 더 많이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자는 아내와 가족 그리고 가난한 친척을 온전히 부양할 책임을 집니다. 모든 재정적인 책임을 떠맡고 자신에 딸린 사람을 충분하게 부양하는 것이 남자의 의무입니다. 또한, 자신이 속한 사회의 대의명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역시 남자의 의무입니다. 남자만이 이런 재정적 부담을 짊어집니다.

둘째,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성은 개인 비용과 사치품을 제외하면 재정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여성은 재정적으로 안전할 뿐만 아니라 부양을 받습니다. 아내라면 남편이, 어머니라면 아들이, 딸이라면 아버지가, 누이라면 오빠나 남동생이 부양자가 됩니다.

의지할 친척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받을 것도 없고 유산을 남겨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상속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지할 데 없는 여성이 굶어 죽게 내버려두지는 않습니다. 홀로 남은 여성을 부양하는 것은 사회 전체와 국가의 책임입니다. 여성은 도움을 받을 수도, 직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성이 버는 돈은 당연히 전부 자기 것입니다. 여성에게는 자기 외

에 다른 사람을 부양할 책임이 없습니다. 남성은 같은 처지에 있더라도, 가족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척이 있다면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여성의 책임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남성의 책임은 더 큽니다.

셋째, 여성이 남성보다 덜 상속 받는 것은, 일한 대가를 박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 재산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넘어온 가외 재산입니다. 이는 불로소득입니다. 상속 재산은 일종의 도움이므로 이슬람 규정에 따라 다급한 필요와 책임을 고려해 분배해야 합니다.

한쪽에는 온갖 재정적인 책임과 의무를 짊어진 상속자가 있고 또 다른 쪽에는 재정적인 책임이 전혀 없거나 적은 상속자가 있습니다. 만일 여성의 몫을 완전히 박탈한다면, 여성 역시 고인의 친척이므로 이는 부당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언제나 여성에게 동일한 몫을 준다면 부양 책임이 있는 남성에게 부당할 것입니다. 이슬람은 남성이 가족의 필요와 사회적 책임에 응할 수 있도록 두 몫의 재산을 상속하게 합니다. 이와 동시에 여성에게도 개인적 필요를 충족하도록 한 몫의 재산을 상속해 왔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슬람은 여성에게 더 많은 호의를 보입니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과 남성의 권리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등하다고, 평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꾸란 4:11 – 14, 176)

9. 민사 계약의 증인으로 남성 두 명 혹은 남성 한 명과 여성 두 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 여성이 열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여성은 대개 남성보다 실생활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 부족으로 인해 계약 당사자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적어도 여성 두 명과 남성 한 명이 함께 증인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증인 중 한 명이 놓친 것이 있으면, 다른 한 명이 지적해줄 것입니다. 혹은 한 여성이 경험이 없어 잘못을 범하면, 다른 여성의 도움으로 잘못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이는 사람 사이에 정직하고 정당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처입니다. 이러한 조처는 시민 생활에서 여성이 역할을 담당해 정의를 확립하는 데도 이바지합니다. 설령 시민 생활의 경험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성의 지위가 남자보다 열등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족한 게 있기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의 지위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꾸란 2:282)

특정 문제에 한해서는 여성의 증언만 채택되고, 여성의 전문적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성의 증언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여성 한 명의 증언만 요구합니다. 더욱이 계약과 상거래의 증인이 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꾸란2:282 – 283) 이러한 의무의 부담이 여

성에게 반으로 경감되는 것이 여성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호의로 봐야 합니다.

10. 여성은 남성에게 없는 특권을 갖습니다. 여성은 생리 중이거나 산후 조리시, 예배, 단식 등 종교 의무가 면제됩니다. 금요일 합동 예배에 참석할 의무가 없으며, 모든 재정적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많은 인정을 받고 더 높은 명예를 누립니다. (꾸란 31:14 – 15, 46:15)

선지자는 낙원이 어머니들의 발 아래 있다고 선언하여 이러한 명예를 인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사랑과 친절의 3/4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머지 1/4을 차지합니다. 아내로서 여성은 남편이 될 사람에게 적정액의 결혼 지참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남편의 온전한 부양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여성은 일하거나 생활비를 남편과 공동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성은 결혼 후에도 결혼 전 소유물을 그대로 갖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소유물에 권리가 없습니다. 딸이나 누이로서 여성은 아버지와 남자 형제에게 안전의 보장과 부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일하거나 자립하고 싶은 경우, 가족 부양의 책임을 함께 지고 싶어 할 경우에는, 그녀의 의사와 명예가 보호된다면 또 그렇게 할 충분한 자유가 있습니다.

11. 예배할 때, 여성이 남성 뒤에 서는 것이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여성은 남성에게는 의무인 금요일 합동 예배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참석할 경우에는 미성년 아이들이 따로 열을 지어 성인 남자 뒤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은 따로 모여 섭니다.

이는 예배할 때 지켜야 할 계율을 규정한 것이지, 신분에 등급을 매긴 것이 아닙니다. 남성의 열에는 국가 원수와 빈민도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구분이 없습니다. 예배할 때 열의 순서를 정해 놓은 것은 각자가 예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슬림의 예배는 찬송가나 노래를 부르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슬람 예배에는 여러 몸 동작과 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남성과 여성이 같은 줄에 섞여 어깨를 맞대고 있다면 서로 불편하거나 신경 쓰이고 주의가 산만할 수 있습니다. 엉뚱한 일에 정신이 팔려 예배의 깨끗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눈으로 간음을 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무슬림은 예배할 때 이성의 몸에 접촉하는 것이 금합니다. 남녀가 나란히 선다면 서로 접촉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여성가 남성 앞이나 옆에서 절 동작하며 신체 부위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니다. 결과적으로 모두 당황하게 되고,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나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

서 순수한 예배에 전념하게 하고, 예배자 사이에 조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예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남성이 맨 앞 열에 서고, 남성 뒤에 아이들이, 아이들의 뒤에 여성이 서도록 했습니다. 예배의 본질과 목적, 예배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줄을 편성하는 현명함을 쉽게 이해합니다.

12. 무슬림 여성 이야기가 나오면 '히잡'으로 알려진 오랜 전통을 연상합니다. 여성이 명예, 품위, 정절, 순결, 성실로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이슬람의 전통입니다. 여성은 남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정욕을 자극하거나, 도덕성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나 거동을 삼가야 합니다. 여성은 낯선 남자에게 매력을 과시하거나 요염한 자태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히잡은 나약함에서, 방종에서, 음탕한 시선에서, 타락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여성의 정결에 관심을 갖고 여성의 도덕과 풍기, 개성과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꾸란 24:30 - 31)

13. 이제 이슬람에서 여성의 지위가 전례 없이 높고, 여성의 본성과 현실에 맞췄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여성의 권리와 의무는 남성과 동등·평등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어떤 면에서 한 가지를 못 가진다면, 다른 많은 면에서 더 보상받습니다. 여성에 속한다는 사실은 지위나 독립적 인격과 전혀 관

계없으며, 여성에 대한 편견과 불공평한 처사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슬람은 여성에게 요구하는 만큼 여성에게 줍니다. 여성의 권리는 여성의 의무와 어울립니다. 권리와 의무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 한쪽에 압도되는 일이 없습니다. 상속에 관해 설명하며 꾸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성에게도 권리가 동등하지만, 남성에게 몫이 더 있느니라." (꾸란 2장 228절)

이 구절이 남성의 우월함이나 여성을 지배해도 좋다는 허가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지는 추가적 책임에 상당하는 보상입니다. 위 인용 구절은 다른 구절에 비추어 해석해야 합니다. (꾸란 4:34) (4장. 신앙과 현실의 조화 '가정 생활'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경제적 측면에서 남자에게 더 몫이 있는 이유는 이러한 가외의 책임 때문이고, 결코 더 높은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의 지배나 억압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한 본성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여성에게 무엇이 좋고 남성에게 무엇이 좋은지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다음 말씀이 진실입니다.

"오 인간들이여! 그대 주님을 유념하리니, 하나의 본질로서 그대를 창조하시고, 배우자를 만드셨음에, 그 둘로 자손이 번창하도록 하셨노라."
(꾸란 4장 1절)

모두를 위한
이슬람

부록

꾸란의 특성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
이슬람력

부록. 꾸란의 특성

꾸란의 지혜

꾸란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푼 최대의 선물이며 꾸란의 지혜는 고유하며 비교할 데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꾸란의 목적은 앞서 내린 계시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회복하며, 인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영혼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양심을 일깨우고, 정신을 계몽하는 것입니다.

꾸란은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무함마드에게 계시한 말씀인 바, 이는 상상하여 모방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아랍어를 다루는 데 최고의 대가라는 평을 들었던 동시대 사람들이 꾸란에 필적할 만한 원전을 만들어보려 했습니만 꾸란의 내용이나 문체를 모방할 수 없었습니다.

무함마드는 공식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그 사실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 인류 전체, 곧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다 같이 하나님이 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꾸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이 유일무이한 성서에 관한 두 번째 사실은 내용과 순서의 의심할 여지없는 진본성(眞本性)입니다. 이는 일찍이 어느 책

도 가져 보지 못한, 혹은 가지기 힘든 특성이나 꾸란의 진본성은 원문의 순수성, 독창성, 그리고 총체성에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무슬림, 비무슬림을 막론하고 진지한 학자들은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꾸란이 무함마드를 가르치고 그가 생활의 지표로 삼고 약 14세기 전에 인류에게 남긴 바로 그 성서라고 확고히 인정합니다.

몇 가지 사실을 검토해보면, 이러한 유례없는 진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1. 꾸란은 일부분씩 단편적으로 계시되었지만, 그렇다고 순서나 배열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꾸란이라는 명칭 자체가 애초부터 하나의 책이었음을 나타냅니다. (꾸란 2:2, 41:41 – 42) 꾸란의 배열과 꾸란 구절의 점진적인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였으며, 무함마드와 동료들이 따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꾸란 25:32, 비교 75:17)

2. 아랍인의 세련된 문학적 성향은 유명했습니다. 이러한 문학적 취향이 있었기에 그들은 훌륭한 문학 작품을 음미하고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꾸란은 그들의 성향에 맞는 뛰어난 문학적 걸작품으로 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꾸란의 어조에 감동했고, 비범한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은 꾸란에서 큰 만족과 깊은 기쁨을 발견했으며, 성서를 외우고 암송하기 시작

했습니다. 모든 무슬림과 많은 비무슬림이 이를 찬양하고 인용하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 남녀를 불문하고 예배드릴 때 꾸란 일부를 암송하는 것이 모든 무슬림의 의무입니다. 꾸란을 암송하는 것은 무슬림에게 경건한 경배 형식이며 일상 습관입니다.

4. 아랍인은 대게 문맹이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시나 글귀를 보존하려면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빈틈없는 기억력으로 유명했는데, 바로 이 기억력으로 문학 유산을 저장했습니다. 문학적 성향과 재능을 가진 모든 사람이 꾸란은 모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항상 훌륭하고 공손한 태도로 꾸란을 암기했습니다.

5. 무함마드 살아있던 당시, 계시를 받아쓰는 전문적인 서기와 기록 담당자들이 있었습니다. 무함마드가 한 구절씩 계시를 받을 때마다 즉시 담당자들에게 지시를 내려 자신의 감독하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선지자 무함마드가 기록한 것을 모두 확인하고 인증했습니다. 낱말 하나하나를 확인했고, 구절 하나하나를 제 순서대로 배열했습니다.

6. 계시가 완결되자 무슬림은 완전한 꾸란을 갖게 되었습니다.

꾸란을 암송하고, 현실에 적용했으며, 연구했습니다. 차이가 하나라도 생기면 원문에 관련된 것이든 의미나 억양에 관련된 것이든 항상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직접 질문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7. 무함마드 사후에는 이미 많은 무슬림이 꾸란을 암기했고, 수많은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1대 칼리프인 아부 바크르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꾸란을 암기하는 사람들이 전사하면 꾸란에 심각한 혼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권위자들의 의견을 듣고, 계시를 받아 적은 무함마드의 일등 서기 자이드 이븐 사비트Zeyd Ibn Thabit에게 위임하여 무함마드가 인정한 순서대로 성서의 표준 완결판을 편찬하게 했습니다.

자이드 이븐 사비트는 선지자의 교우들의 감수와 도움을 받아 편찬했습니다. 무함마드에게 꾸란을 직접 듣고 암송했던 무슬림 모두가 최초 완결판을 확인하고 승인했습니다. 이 일은 무함마드 사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루어졌습니다. 계시가 서기와 암송자들, 선지자 무함마드의 동료 무슬림의 마음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던 때입니다.

8. 무함마드 사후 약 15년, 칼리프 우스만Uthman은 이슬람 전파 지역에 꾸란을 배포했습니다. 새로 이슬람을 알게 된 주민 대부분은 무함마드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지역적, 지리적 요인

으로 꾸란을 읽는데 발음과 억양이 조금씩 달라서 무슬림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우스만은 기민하게 움직여 이러한 상황에 대처했습니다. 모든 권위자들과 협의한 후, 계시를 받아 적은 4인의 전임 서기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사용 중인 모든 사본을 회수하고, 하나의 표준 사본으로 대체했습니다. 이 표준 사본은 무함마드의 말투였던 꾸라이쉬Quraish 발음에 맞추었습니다. 꾸라이쉬가 표준어로 채택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꾸란이 이 방언으로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꾸란은 계시를 받은 무함마드가 들은 그대로, 무함마드의 언어와 말투 그대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러한 표준 채택으로 꾸란 계시의 변용을 막았습니다. 그 이후, 낱말이나 순서, 심지어 구두점에 이르기까지 어떤 변화도 없이 현재까지 모두 같은 표준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 검토로 학자들은 현재 꾸란이 처음에 받은 그대로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꾸란에 다른 내용을 첨가한 일은 없었으며, 내용을 생략하거나 변조한 일도 없었습니다. 꾸란의 역사는 명확하고, 진본성은 확실하여 지금까지 완전무결하게 보존되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꾸란은 기원과 특성에 있어 유례 없는 지혜로 충만해 있습니다. 꾸란의 지혜는 저자의 지혜에서 연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누구도 꾸란의 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꾸란의 지혜는 모방이 불가능하고, 모든 문학인과 지식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성서의

저항할 수 없는 힘입니다. 꾸란의 현실적 접근 방법, 인간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 그리고 인간을 위해 정해 놓은 숭고한 목적이 꾸란의 지혜가 지닌 특성입니다.

역동성

꾸란의 지혜가 지닌 주요 특성에는 정태적(靜態的)이거나 무미건조하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꾸란의 지혜는 정신을 자극하고 활기를 불어 넣는 역동적인 지혜입니다. 꾸란의 지혜 속에는 사람을 고무하는 역동성과 역사적인 증거로 입증되는 활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안내를 알리기 시작할 당시, 그가 가진 유일한 힘은 꾸란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유일한 지혜는 꾸란의 지혜였습니다. 꾸란의 역동성은 실로 막강하여 저항할 수 없습니다. 가장 역동적인 인물의 가장 결정적인 논술과 언변도 꾸란의 역동적인 지혜에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많습니다. 하나님은 꾸란을 가리켜 루흐Rooh, 즉 영과 생명, 하나님의 종복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빛(꾸란 42:52)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꾸란을 산으로 보냈더라면, 그 산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경외를 봤을 것이니,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함이로다."
(꾸란 59장 21절)

여기서 핵심은 영과 빛으로 꾸란이 삶의 근원이며 영혼을 자극하고 안내의 빛을 비추어서 뚜렷하고 변함없는 목표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꾸란이 말하는 영적 역동성입니다.

실천성

꾸란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은 그 실천성입니다. 꾸란은 현실성이 없는 희망적 관측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꾸란의 가르침은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거나 도달하기 어려운 이상의 낙관으로 표류하지도 않습니다. 꾸란은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입장에서 가능한 인물이 되라 권합니다. 꾸란은 인간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저주를 받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무력하고 가망 없는 존재라 낙인 찍는 것이 아닌, 인간을 숭고하고, 명예롭고, 위엄 있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꾸란의 가르침이 지닌 실천성은 무함마드와 무슬림 교우가 보인 모범을 수립했습니다. 꾸란의 접근 방법과 가르침은 인간의 전반적인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면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에 기반합니다.

중용

꾸란의 특성으로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 사이의 중용과 조화를 들 수 있습니다. 꾸란은 현실의 삶과 인간의 필요에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며, 인간이 자신이 존재하는 숭고한 목적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꾸란은 이러한 중용의 방법 때문에 무슬림을 중용의 공동체(꾸란 2:143)로 부르고, 이러한 중용의 태도를 가질 때 가장 훌륭한 공동체라 부릅니다. 그들은 의로움을 지키고 불의와 싸우며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꾸란 3:110)

꾸란의 지혜는 3가지 주요한 측면, 즉 내적, 외적, 상향적 측면에서 작용합니다. 꾸란의 내적 지혜는 마음 속 가장 깊은 곳, 정신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스며듭니다. 이는 개인을 내면으로부터 건전하게 만드는데 목표를 둡니다. 이러한 내적 침투는 법적 혹은 윤리적 제도와 다르며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꾸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일임합니다.

외적 작용은 각계 각층을 포괄하며, 가장 개인 문제로부터 복잡한 국제관계에 이르기까지 인간사의 전 분야 원칙을 망라합니다. 꾸란은 법 제도나 윤리 규범에도 알려져 있지 않은 분야, 종교 교리가 도달하기 어려운 분야까지 모두 다룹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인간사를 다루되 거기에 하나님의 향기와 윤리

적인 색채를 곁들인다는 사실입니다. 꾸란은 매사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하나님을 안내의 원천이자 만사의 궁극적 목표로 합니다. 꾸란은 인간의 영적 지침, 법 제도, 윤리 규범이며 무엇보다도 생활 양식입니다.

상향적 작용에서 꾸란은 더할 수 없이 높고 유일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만사는 우주 위 하나님의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통하여 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광대한 영역에 있는 일시적 수탁자에 불과하며,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경배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은둔이나 현실 도피를 권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뛰어난 덕성을 지상에서 올바로 구현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꾸란이 상향적 관점이 하나님께 향할 때, 이는 곧 인간 앞에 새로운 사고의 지평을 열고, 숭고한 윤리의 기준으로 인도하며, 평화와 선의 영원한 원천을 주지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궁극적 목표라고 깨닫는 것은 인간의 사고와 종교 교리의 대중적인 경향에 역행하는 혁명입니다. 이 혁명의 목적은 마음을 의심에서, 영혼을 죄에서, 양심을 속박에서 해방하는 데 있습니다.

꾸란의 지혜는 모든 측면이 중요하기에, 육체를 죄악시하거나 괴롭히지 않으며, 영혼을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간화하거나 인간을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창조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제자리에 세심하게 놓여집니다. 행위

와 대가, 수단과 결과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중립과 중용은 다릅니다. 꾸란의 지혜는 입장을 정하지 않는 중립이 아닙니다. 조화로운 판단을 하며 여러 요구를 합니다. 올바른 인식과 이해력을 지닌 모든 사람들은 그 요구를 기꺼이 환영합니다. 꾸란의 지혜는 생각에 진실성을, 행동에 경건성을, 목적에 통일성을, 의도에 선량함을 요구합니다.

"이 책은, 의심할 바 없이, 경외하는 이들을 위한 안내로다."
(꾸란 2장 2절)

"그대에게 계시된 이 책은, 전 인류를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향하게 하기 위함이로다."
(꾸란 14장 1절)

부록.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

무슬림은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신앙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하나님께서 자비의 문을 닫아 버리셨거나 세상 일에서 손 놓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이상 위대한 신앙인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고,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마지막 은총을 베푸는 의미로, 다른 민족을 제외하고 아랍인만을 선택하여 무함마드에게 계시를 주었다는 뜻은 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정 민족이나 시대를 편애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비는 항상 열려 있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언제나 자비의 문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음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 영감을 통해: 하나님은 독실한 사람의 마음이나 정신에 암시나 생각의 형태로 영감을 보내십니다.
- 베일(휘장)로부터: 베일은 말씀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 잠들었을 때나 황홀경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납니다.
-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꾸란 42:51)

이 마지막 방법이 최고의 형식이자 꾸란이 무함마드에게 내려온 형태입니다. 이는 무함마드를 마지막으로 하는 선지자들에게만 국한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하나님이 뜻하는 사람에게 다른 두 가지 형태로 영감을 주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함마드를 마지막 선지자로 선택했다고 해서 더 이상 인간과 접촉하지 않거나 관심을 잃은 것이 아니며,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 막히거나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열망이 닫힌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무함마드를 마지막 선지자 지위에 올리고, 꾸란을 계시의 완결로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영구적 수단을 확정했으며, 끊임없이 인도하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외에,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인 이유를 설명하는 특별한 논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몇 가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꾸란은 '온 세상의 통치권이 귀속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무함마드가 만백성에게 보내졌다'(꾸란 7:158)고 선언합니다. 꾸란은 또한, 무함마드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자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다고(꾸란 21:107),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라고(꾸란 33:40) 밝힙니다.

꾸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꾸란은 모든 무슬림이 따르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무함마드가 전한 말씀은 민족적 부흥이나 독점 혹은 굴레와 압제로부터 일시적 해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역사의 갑작스러운 전환도 아닙니다. 무함마드가 전한 말씀은 세계적 부흥, 공통의 축복, 초국가적 유산, 그리고 영원한 영적 해방입니다. 그것은 무함마드 이전 말씀의 계승 발전이며, 앞서 내린 모든 계시의 균형적 통합입니다.

이는 인종, 지역의 모든 경계를 초월하고, 무함마드가 전한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무슬림은 무함마드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꾸란이 이 점을 확고하게 밝히고 있으며, 무함마드가 전한 말씀이 가장 높은 보편적, 결정적인 신앙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무함마드가 직접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언명했습니다. 이 문제에서 무슬림이든 다른 누구든 이 언명의 진실성을 의문시할 수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매우 진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실성과 진실성은 무슬림뿐 아니라 그를 철저하게 반대한 자들도 똑같이 인정했습니다. 그의 인품, 그의 영적 업적과 개혁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무함마드에 필적할 만한 인물을 또 나올지는 시간이 흘러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무함마드가 마지막 선지자인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러하기 때문이지, 무함마드가 명예를 바라거나 이득을 추구하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가르침을 주었지만 교만하지 않았고, 승리했지만 자만하지 않았으며, 세상을 바꾸고도 빼어난 덕은 그대로 였습니다. 이득이나 명예를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지혜와 진리의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3. 무함마드는 생전에 소임과 사명을 완수하고 매듭지은 유일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운명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언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종교가 완성되었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도 완결되었으며, 계시의 진실성이 지켜졌고 (앞으로도) 안전하게 보존되리라."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완성되었고, 무슬림 공동체는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꾸란은 무함마드 생전에 기록되었고, 온전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하나님의 종교가 개념에 있어서는 물론, 적용에 있어서도 무함마드가 완성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수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함마드의 사명, 본보기, 업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상이거나 오직 내세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함마드 시대에 존재하고 번영하였던 바, 진지한

신자와 신앙인에게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고 번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지위의 정점을 이루는 사람이 있다면 무함마드가 아니고 누가 있겠습니까? 계시의 완결을 이루는 책이 있다면 꾸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상에서 무함마드의 사명이 완수되었으며 생전에 꾸란 전체가 온전히 기록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마지막 선지자였다는 신앙을 증명합니다.

4. 무함마드가 마지막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결정은 꾸란의 독창적이고 순수한 진본성, 무함마드의 결정적인 업적, 이슬람의 보편성, 모든 상황과 시대, 모든 사람에게 꾸란 적용이 가능함을 근거로 합니다. 이는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 성별, 재산, 지위 같은 모든 장벽을 넘어 퍼지는 종교이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과 형제애, 자유와 존엄, 평화와 명예, 인도와 구원을 보장하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종교의 순수한 본질이며, 역사의 시초부터 인간에게 베풀어온 도움의 손길입니다.

무함마드와 꾸란과 더불어 종교의 발전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로서 역사가 끝났다거나,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새로운 방식의 시작이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으로,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안내와 함께 필요한 실질적 본보기를 충분히 마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내는 가장 믿을 만한 계시인 꾸란에 있으며, 실

질적인 본보기는 무함마드의 인격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선지자나 새로운 계시가 온다면 선지자의 특성이나 꾸란의 진리에 무엇을 보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거나 계시의 확고함을 지키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이미 꾸란을 통해 완성됐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집행할 수 있다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수립할 수 있다는 실증이라면, 무함마드가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을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꾸란과 무함마드가 이미 기초를 튼튼히 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계시나 새로운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깨어나는 것이고, 정신을 열고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현존하는 계시와 자원을 활용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화하고 이슬람의 무한한 보물을 캐내는 것입니다.

5. 하나님은 무함마드를 마지막 선지자로 정했고, 무함마드는 정해진 대로 마지막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전 어떤 선지자도 무함마드만큼 업적을 이루지 못했으며 무함마드 이후에 선지자를 자처한 누구도 그에 비할만한 일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는 앞으로 다가올 위대한 역사적 사건을 예고합니다.

이제 인간은 지적·영적 성숙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어, 무함마드와 다른 선지자들이 남긴 풍부한 유산과 계시를 들고,

스스로 인간사를 개척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세계 여러 문화, 인종, 지역이 서로 더 가까워지며, 인류가 하나의 보편 종교와 함께 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보편 종교로 하나님은 온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인류는 자아를 실현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인류가 하나님께 향하는 데, 인간의 뛰어난 지적 성취와 진지한 지적 탐구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뛰어난 지성과 건전한 잠재력에 꾸란의 영적·도덕적 가르침을 겸비한다면 하나님이 존재를 깨달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의지와 법에 순응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의 시대는 무함마드로 막을 내렸습니다. 무함마드는 인간이 자발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였고, 과학이 제 기능을 발휘해 하나님의 광대한 영역을 탐구할 수 있게 했으며, 정신이 성숙하고 통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슬람은 융통성과 실천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강한 적응력이 있습니다. 꾸란은 보편적이고 영원한 한편, 확실하고 의심할 여지 없는 안내를 함유합니다. 무함마드가 전한 말씀은 모든 사람, 모든 시대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함마드는 민족이나 국가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가장 훌륭한 본보기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무함마드에게 선과 경건의 모범을 발견하고 배우고 잃어버린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록. 이슬람력

이슬람력은 무함마드가 동료들과 함께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히즈라Hijrah 를 기준으로 합니다. 서기 622년 7월 16일을 히지라 원년 1월 1일로 삼습니다. 무함마드 이후 2대 칼리프 우마르 이븐 알-카탑이 이 때를 이슬람력의 시작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슬람력은 달의 위상변화에 따르는 음력입니다. 일년에 열두 달이 있으며, 한 달은 달의 위상에 따라 29일이 되기도, 30일이 되기도 합니다. 각 월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하르람

2. 싸파르

3. 라비 알-아우왈

4. 라비 알-싸니

5. 주마다 알-울라

6. 주마다 알-싸니야

7. 라잡

8. 샤아반

9. 라마단

10. 샤우왈

11. 둘-까다아

12. 둘-힛자

매주마다 잊지 않고 지켜야 할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금요일인데, 이 날의 의의는 참석이 가능한 모든 무슬림이 준행해야 할 정오 집단 예배에서 유래합니다. 이 외에도 잊지 않고 특별히 지켜야 할 뜻 깊은 날이 있습니다.

라마단 단식하는 달로 꾸란이 처음 계시된 달입니다.

라일라툴 까드르(권능의 밤) Laylatul Qadr 라마단 달 마지막 열흘 중 홀숫날 밤(21, 23, 25, 27, 29일)은 특별한 축복의 밤입니다.

이둘-피뜨르 Eid al-Fitr 샤우왈 달의 첫번째 날, 라마단을 마치는 축제입니다.

이둘-아드하 Eid al-Adha 희생의 축제입니다. 가축을 잡아 이웃과 나누고 자선을 실천하는 축제입니다. 둘-힛자 달의 열번째 날입니다.

모두를 위한 이슬람
쌀람누리 편집부 엮음

초판1쇄 발행 2016년 9월 29일

발행인 임인환
편집인 오승언

편집 조혜련, 오현수, 임인환
교정 안혜경
감수 조민행
꾸란 번역 쌀람누리 꾸란연구회
디자인 4days, 유지원
진행 김효신
인쇄 (주)에스제이 피앤비 SJ PNB
전자책 5werk

발행처 쌀람누리
등록일 2016년 1월 21일
등록번호 제 2016-000005호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76-21, 101호
전자우편 salamnuri.publish@gmail.com
가격 18,000 원
ISBN 979-11-955724-5-8

Salam Nuri is a group of Muslim youth and students that named it after the Arabic word 'Salam' combined with Korean 'Nuri' which makes up the meaning 'Peaceful World."

Aim of Salam Nuri is to provide sound vision for Islam despite of misunderstanding and epistemological bias that is introduced by western mass media and sharing culture and tradition with Muslim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In cooperation with Muslim Student Association of Korea, Salam Nuri is carrying out seminars, workshops, conferences and research works by inviting relevant outstanding scholars of the world in the academic field and holding youth camps and exhibitions for social activities along with operating Arabic classes and Korean class for public services.

Salam Nuri is a platform to introduce Islam everywhere and a home ground for new Muslims.

쌀람누리는 '평화'라는 뜻의 아랍어 '쌀람'과 '세상'이라는 뜻의 우리말 '누리'의 복합어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함께 공부하고 세상에 참 평화를 알리고자 하는 전 세계 무슬림 청년 학생 모임이다. 각종 이슬람 학술 연구 및 세미나를 이끌며 국내 정기 프로그램 외에도 외국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학술 연구의 일환으로, 종교의 의미 탐구를 출판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한다. 앞으로 이슬람 학술, 이슬람 바로알기, 비교종교학, 종교 교양, 종교 일반에 관한 책을 계획하고 있다.

www.salamnuri.org

쌀람누리

믿음이나 신앙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벗이 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모두 자신의 몫이다.
하나님과 각 개인 간 상호관계이니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

이슬람은 평화를 추구합니다.
이슬람은 공정과 공평을 추구합니다.
이슬람은 인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이슬람은 인간의 선한 속성과 불완전성을 인정합니다.
이슬람은 정신과 육체,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이슬람은 정신적 욕구와 육체적 욕망을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이슬람은
인간의 모든 욕구와 필요를 고려하고,
인간의 영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육체적 욕망 제어를 훈련하는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정신을 미신과 불확실성으로부터,
영혼을 죄와 타락으로부터,
양심을 억압과 공포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모두에게 열린 모두를 위한 종교입니다.

값 18,000원
03280
9 791195 572458
ISBN 979-11-955724-5-8